



2021 사회적경제 연구

3



사회적경제 지역성 탐색 연구

: 지역 기반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권소일·신이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연구진】

권소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실 실장

신이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실 선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기존문헌 검토	5
제1절 개념 및 담론 지형	7
제2절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연구 경향	16
제3절 소결	21
제3장 연구 방법론	23
제1절 지역성의 정의	25
제2절 연구 분석 프레임: 장소성을 중심으로	27
제3절 사례선정 방법	31
제4절 분석방법: 사례연구	36
제4장 사례 분석 결과	39
제1절 사례의 일반적 특성	41
제2절 조직 관점의 지역성 사례분석 결과	44
제3절 주민 관점의 지역성 사례분석 결과	70
제4절 소결	88
제5장 결론 및 제언	91
제1절 연구결과	93
제2절 제언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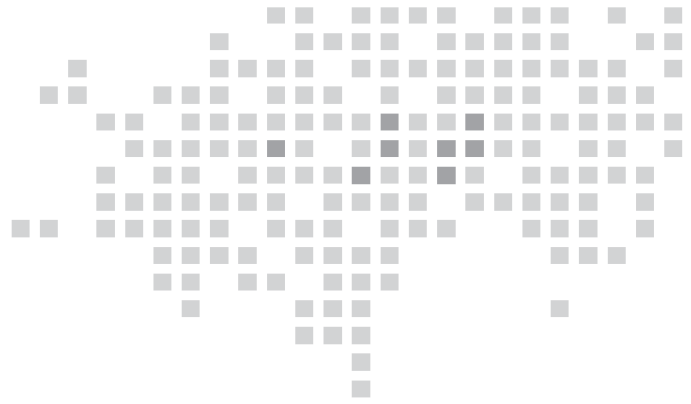
참고문헌	97
부록1. 인터뷰 질문지	103
부록2. GIS 지도화 내용	106

표 목차

〈표 2-1〉 사회적경제 제도화 방식과 지역의 개념	12
〈표 2-2〉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과제	14
〈표 2-3〉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15
〈표 2-4〉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연구 현황	17
〈표 3-1〉 장소의 차원(요소)와 그 내용	28
〈표 3-2〉 입지 조건의 제도적 유형화	29
〈표 3-3〉 최종 연구 분석틀(framework)	31
〈표 3-4〉 시점별 사회적경제 조직 개수(GIS 포함 기준)	32
〈표 3-5〉 연차별 사회적경제 조직 개수(GIS 포함 기준)	33
〈표 3-6〉 인터뷰 사례 일반적 특성	36
〈표 4-1〉 조직 사례 분석 내용 요약	44
〈표 4-2〉 주민 사례 분석 내용 요약	70

그림 목차

[그림 2-1]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9
[그림 2-2]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전환	11
[그림 3-1]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 구조	26
[그림 3-2] 사회적경제 조직 4대부문 군집분석	33
[그림 3-3] 자활기업 군집분석	34
[그림 3-4] 사회적기업 군집분석	34
[그림 3-5] 협동조합 군집분석	35
[그림 3-6] 사례연구설계의 기본 유형	3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1절 연구 배경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양적 증가, 매출액 및 일자리 수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개별기업 지원중심의 정책에서 자생력 제고와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자치구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도모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 1.0의 단계를 지나 2019년부터는 시민의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회적경제를 목표로 공간, 사회적금융 지원을 통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서 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태계적 관점의 중요성인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곳이 바로 ‘지역’이다. 지역사회로의 환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활동이자 목표, 사회적 가치로 당연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정착하고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 목적

사회적경제와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서 지역이 논의되고 있는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성이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를 밝힌다. 특히 지역성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장소성’을 채택하여 사회적경제가 운영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더불어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와 역사성, 가치체계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활동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위치 현황과 군집양상을 시기별로 확인함으로써 지리적인 분포 추이를 정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련 주민들을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역성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장에서는 지역에 대한 기본적 개념 정리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와 지역이 중요하게 연결되는 개념임을 사회적경제의 개념화, 역사, 제도 및 정책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한다. 또한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관련 기존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특징과 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태계적 관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해당 맥락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역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지역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프레임으로 특정 경험의 축적되어 발현되는 장소성을 채택해 구체화한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서울 사회적경제의 지리적 분포 추이와 군집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위한 사례를 선정한다. 4장에서는 사례에 대한 일반적 소개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경제 이용자 관점의 지역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룬다. 분석 결과를 총합하여 사회적경제 장소성의 속성과 차원을 정리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성 구성에 기여하는 지점과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 지원 시 지역이라는 장소적 범주를 고려할 필요성과 그것의 정책적 시사점, 향후 가능 연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제2장

기존문헌 검토

제1절 개념 및 담론 지형

제2절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연구 경향

제3절 소결

제1절 개념 및 담론 지형

1. 지역이란?

‘지역’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 ‘구기 경기에서 경기자가 맡고 있는 일정한 구간’이다(표준국어대사전). 물리적인 토지의 의미를 넘어 일정한 특징을 기준으로 사회를 구분하는 공간 영역이라는 지역의 두 번째 의미는 ‘지역’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인지적 차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정 지역 혹은 공간을 범주화하는 특징의 기준 자체가 이미 사회적 맥락과 인지적 과정을 반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은, 16-17세기에 는 지표상의 특정 지역을 지칭, 18세기에는 인문지리적 환경(地誌적 개념)적 단위를 지칭,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엽은 국민국가의 제도적 활동이 구현되는 영토 혹은 영역에 관한 것,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자본주의체제의 공간적 조직(노동의 공간적 분업 등)을 지칭해왔다(조명래 2013, 78). 즉 지역 개념의 변화가 구체적인 공간에서 제도, 관계, 의미 등이 포함된 추상적인 개념의 공간으로 발전되어왔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리적 영역이라는 절대적 공간의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 유동적인 사회관계, 의미 등을 포함하는 ‘공간1)’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연구의 동향을 정리한 김영정(2015, 167-170)은 지역연구의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먼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가치중립적 입장의 접근인 region에 대한 연구로, 여기서 region은 ‘지리적으로 위치 지워진 사회적 활동의 물리적 장’이라는 뜻이며 물리적 경계를 가진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다음은 중앙과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기초한 관점인 local 연구로, 정치학 및 행정학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

1)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던 공간을 점차 잘 알게 되고 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 공간은 더 구체화 된 ‘장소’가 된다(조명래 2013, 155-158). 1980년대 말 이후 학문적 개념으로서 공간(space)과 장소(place)에 대한 관심이 사회과학계 전반에서 새로이 주목을 받았다(정현목 2013, 108). 본 글은 사회적경제가 형성하는 ‘장소’의 특성을 살펴본다.

다(김영정 2015). 여러 지방민주주의(local democracy) 이론이나 권력구조 이론, 정치문화, 지방의회 및 선거, 지역언론, 지방행정, 지방자치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강원택 편 2016; 주운현 외 2021). 마지막으로 정치경제학 및 지리학의 공간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space에 대한 연구이다. 자본주의의 기제가 공간에 투영 및 재창출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으로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 현상을 들 수 있다.

물리적 토지의 의미부터 특정 공간과 장소로서의 의미, 권력관계나 자본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단위로서의 의미까지 지역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뜻은 다차원적이다. 따라서 지역을 단위로 연구할 때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적어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지역과 사회적경제의 연결 담론

1) 사회적경제의 개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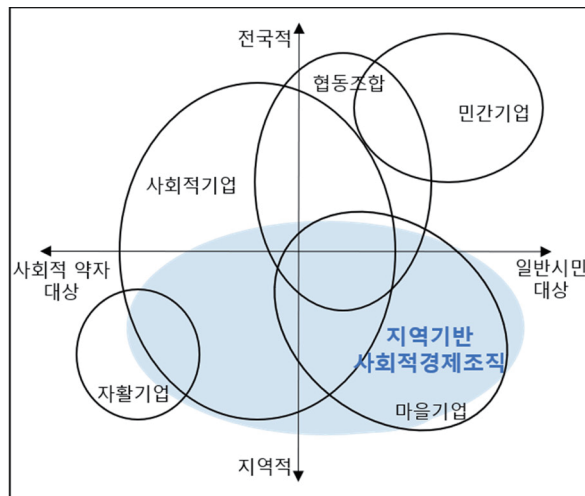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가 개념화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가 왜, 어떻게 지역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사회적 목적이 발견되고 실현되는 일차적 단위가 바로 지역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기준 중 첫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며(EMES: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이들은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Defourny and Nyssens 2006).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을 구성하는 7원칙에도 지역사회 기여가 포함된다(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Laville(1996; Amin et al.2002, 20 재인용)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특징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local)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감 및 민주주의 축진을 열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min et al.(2002, 20)은 사회적경제가 지역화된 사회적 배제(localized social exclusion)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개념화한다. 이는 국가적 인(national) 사회적경제와 지역적인(regional) 사회적경제가 다른 방식(localized practices)의 집합임을 뜻할 수 있다.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때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발

적 조직에서 발전해왔다(오단이 2020). 더불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에서 비롯된다(채종현 2015).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지역주민의 공통 의식, 사회적 성격, 전통 문화 등인 지역토착성(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으로 보고, 이에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사회적 자본(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경험적 분석도 존재한다(남춘모·김세연 2021). 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지역공동체가 조직화되는 하나의 방식이며(한상일 2019), 지역의 맥락에서 사회적 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공동체적 지역화(community-oriented localization)’의 과정임을 보여준다(공석기 외 2015). 그렇기에 지역의 각종 자산들을 활용해 공동체 발전 전략(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전략;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을 활용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한상일·김경희 2013).

[그림 2-1]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출처: 국토연구원(201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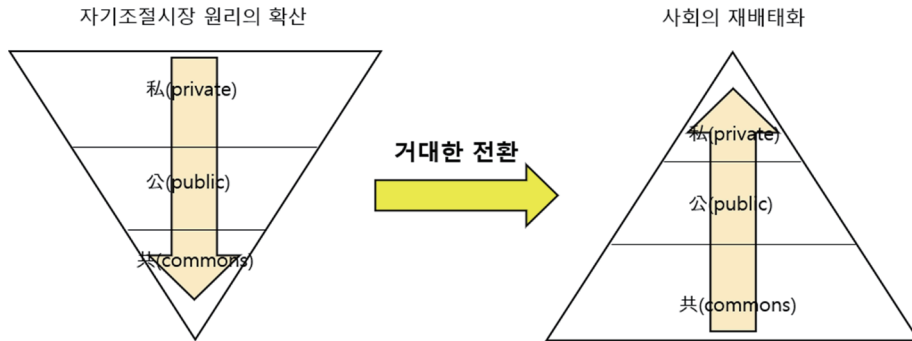
한편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정책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를 맺고 도시활력의 증진을 기대하기도 한다(국토연구원 2016). 즉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서비스의 확대, 공동체 활동 강화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음을 나

타낸다(국토교통부 2014, 14-15).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와 함께 지역중심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해진 것을 배경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역적 역할이 요구되기도 한다(오단이 2021; 오단이 외 2017; 김종범 2016).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 및 낙후지역에서도 경제성(지역사회 기업가주의), 공동체성(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호혜성(호혜적 분배)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이해진 2015).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다른 공동체 활동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며, 그 경제활동이 기본적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생산과 판매, 고용이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이뤄지기에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의 조직화 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의 결과물이 지역을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김정원 2011, 11). 달리 표현해 일종의 풀뿌리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김제선 외 2013). 지역소비를 통해 지역 외부로 재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지역승수효과), 지역에서 원자재를 구입 및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부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킨다. 더불어 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기준 개선을 단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경제로서의 특징을 지역화폐 시스템이 추구하는 바와 연결시켜 사회적경제의 유통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유용성이 설명되는 경우도 존재한다(조복현 2020).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가 지역에 형성되면 일반 기업 역시 그곳을 사업하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채종한·최준규 2012).

한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기존 공급주체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도권에서 배제된 계층 혹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오단이 2021). 이처럼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을 지향한다(장원봉 2017; 오단이 2021 재인용). 이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한 지역자원조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어반스테이션 2019), 지역 기반 혹은 지역과 협력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비프로젝트 202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투자지원재단 2014)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전환



출처: 김영철(2011, 30)

2) 사회적경제의 역사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기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생겨났다(김경희 2013). 특히 박승옥(2016)은 한국 사회적경제 ‘운동’의 조건과 특징으로 마을공동체 재생, 원주 지역운동 등 공동체 기반, 지역 기반의 운동을 꼽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도시 빈민의 극심한 빈곤과 주택문제 등과 관련한 신용협동조합(신협), 건축협동조합, 봉제협동조합운동 등 도시 빈민들의 주민공동체운동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즉 한국 사회적경제 운동의 출발을 도시주민운동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박승옥 2016, 219-220). 1980년대 이후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역시 지역화 전략으로부터 발전하여 1999년 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등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자활사업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마련을 요구했다. 이로써 자활사업은 지역 내 사회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이러한 지역 자활거버넌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에서 빈곤층을 조직해 경제활동을 하며 빈곤층을 생산의 주체이자 지역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정원 2011, 13). 사회적기업 역시 사회서비스, 환경문제 등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사업과 빈곤층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오며 1960년대 이후 지역사회의 협동조합운동, 빈민운동, 자활공동체 활동 등을 그 원형으로 삼을 수 있다(임혁백 외 2007, 60).

한편 1995년 지방자치 재개 이후 지방분권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주민참여 측면에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는데, 마을기업 혹은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는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의 참여동기를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기제가 되어왔다(기영화 외 2018, 15-23). 기영화 외(2018, 119-125)는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마을기업의 사업 영역을 크게 8가지로 나누었다. 지역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 지역 환경보호, 사회복지 및 인력개발(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일자리), 예술 및 문화보존, 보건 및 건강, 농업 관련 특산물 생산 및 판매, 교육, 청소년이나 노인 등 특정 대상 등으로 정리하였다. 주민공동체 복원,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체, 지역자원 활용 등과 같은 여러 사업 형태들이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3)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및 정책 양상

1. 제도화

제도는 “규칙이나 법률 등 공식적인 제약요인”이나 “규범이나 가치체계 등 비공식적인 제약요인”,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극히 당연시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 등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다(하연섭 2016, 7).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양상을 확인하고 ‘지역’이 강조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 역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지역이 연결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 2-1>은 각 조직유형의 제도적 정의와 제도화된 내용에서 ‘지역’이 구현 내지 강조된 방식을 추려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이라는 개념이 각 조직의 정체성이나 활동을 규정하는 데 핵심 단위이자 가치, 목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1> 사회적경제 제도화 방식과 지역의 개념

조직유형	유형별 정의	유형별 ‘지역’ 구현 방식
자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구성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수급자 1/5 이상) (2) 모든 참여자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3) 근로일수가 주당 3일, 22시간 이상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광역, 전국 단위의 전달체계 (1) 자활사업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지역자활센터’ 평가 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연계·협력’ 포함 (2) 자활사업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광역자활센터’ 평가 시 평가항목 중 ‘지역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포함

조직유형	유형별 정의	유형별 '지역' 구현 방식
	(5)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마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주요 용어 (지역자원)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문화·역사적 자산 (지역문제)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 · '지역성'은 지역 내 소재 사업장 기반의 설립 및 운영,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지역사회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 계획 및 추진, 지역주민 회원 및 출자자 구성 등을 포함함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지역사회 활성화(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지역사회공헌형 (가)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 추진 (나)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 설정 (다)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 수행 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중 지역사업형은 지역특산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그 외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의미함 · 협동조합 7원칙 중 '지역사회에의 기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활기업은 지역 단위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지역 사회경제 네트워크의 구성과 같은 과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마을기업의 경우 주체(지역주민), 수단(지역자원), 활동의 목표(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이익 실현) 등 조직을 정의하는 전반에서 지역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특히 '마을'을 일정 경계의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나 정서 형성의 측면도 포함하면서 물리적, 인지적 측면을 포괄하는 지역성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업

이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지역사업을 설정함으로써 사업 내용을 구분하도록 하여 지역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 양상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관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정책 기조를 사업체 직접지원에서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생태계 조성사업단’을 추진하였다. 생태계 조성사업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지역화로, 자치구의 다양성과 자치구 내 협력주체의 형성, 지역자산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과제는 다음 표와 같은데, 1)지역 내 주체 형성, 2)생태계 요소 구축, 3)사회변화 창출력 확보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표 2-2〉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과제

구분	과제	내용
지역 내 주체 형성	민민 네트워크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 간 연대를 통한 민간 중심점 형성 · 사회책임의식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민민 네트워크 구축
	민관 파트너십	· 민관 소통 채널의 형성과 가동, 안정적 협력을 위한 구조와 틀 마련 · 행정 자원의 활용과 견인
생태계 요소 구축	인재 육성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단계별/역할별 요구 역량이 고려된 체계적 인재 육성 ·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 협력의 가치가 내면화된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풀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 판로 확대, 공동홍보 / 제품 및 용역 품질 향상 지원, 상품 기획 · 사회적경제 주체 간 경제적 교류와 협력 활동 강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사회적경제 자본 조성	· 지역의 사회적경제 재생산을 위한 공동 기금의 필요성 논의, 협력의 틀 구성
	지역 주도성 강화	·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형 발전 모델 도출 · 지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재구성 계획 수립
	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의 제도 및 정책 환경에 대한 파악과 분석,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설정 · 지식 공급, 의제 생산 등 지역 내 중간지원 기능 수행 주체의 발굴
사회변화 창출력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	·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기반 확대 및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 융합	· 지역의 자생적인 주민 활동 및 조직과의 융합 ·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교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협력, 자매결연
	협력 자원 개발	· 사회적경제 경제의 확장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파트너의 발굴 및 개발

출처: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성과보고회 자료집(2014, 13)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사업은 지난 10년 간 지역 내 지원기반을 안착시켜 지역 별로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홍진주 2021). 가령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공간이 15개소 이상 조성 되었으며 지역기금 및 자산화의 기반을 형성한 곳도 존재한다. 한편 지역별 사회적경

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의 조직화가 활발해지며 민간역량이 강화되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더 맞닿은 호혜적, 관계기반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지역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일몰제 정책의 한계, 광역 중심의 공모중심 사업 추진 방식, 자치구 생태계에 통합적 관리 및 광역과의 연계구조 논의 심화 등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공유공간 조성, 특구 등 자치구별 특화 사업, 공동체나 지역을 위한 자산화, 혁신타운 조성 등과 같은 지역 기반 정책이 다양하게 존재한다(〈표 2-3〉). 서울 본청 및 자치구 25개 중 22개 자치구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유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²⁾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 중 하나로 ‘지역(local)의 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자산의 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1).

〈표 2-3〉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정책사업명 (관할)	사업내용	적용대상	비고
자치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서울시)	· 지역거점을 만들어 사회적경제 기업 및 기업 간 협동 자원하고자 클러스터 조성 · 2013 은평상상허브(유희공간이 된 소방서 터 개조)를 시작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소규모 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등 조성 ·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 제공, 지역주민들의 사회적경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행사 진행, 사회적경제 기업 인큐베이팅 및 공동모델 촉진 등을 수행	조직	입주공간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유공간 (서울시) (※가락 먹거리 융합클러스터 경우,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임대)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대관 및 전락 업종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협동허브(서울혁신파크):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 기반의 허브 기능, 방문 시민에게 사회적경제 정보·상품서비스 및 체험 제공 · 개봉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멀티미디어룸과 전자칠판을 구비한 화상회의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대면 비즈니스 혁신 지원의 협업공간 · 상암 소셜박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화 기반의 실험적 활동 추진을 위한 공간으로, 마포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 도모 및 문화비축기지 방문 시민 대상으로 공개된 시민참여형 공간 · 가락 먹거리융합 클러스터: 먹거리, 친환경, 보건, 위생 분야의 사회문제를 혁신적 방식으로 해결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소셜 클러스터 공간으로, 다양한 크기의	조직	입주공간 조성

2)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경감) 내용의 조례 반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정책연구팀) 2021, 지자체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현황DB(21. 5월 말 기준))

정책사업명 (관할)	사업내용	적용대상	비고
	강의실 및 화상회의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보유한 협업 공간		
사회적경제 특구 (서울시)	· 2012년 초 사회적기업협약체에서 제안한 자치구 기반의 사회적경제 지역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사업'으로 발전 · 기존 산업 요소를 통한 지역재생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경제 수요 혹은 추진 역량이 우수한 기초 지자체를 우선투자자구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 ·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강동구, 강북구, 동작구, 금천구, 은평구, 서대문구(총 12개) 참여	자치구 또는 권역 협의체 (조직 포함)	서울 자치구 12개 해당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 (서울시)	·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판로개척,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위탁)사업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 ·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을 조사·발굴 지원(T/F 구성 운영, 연구 용역 추진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물 판매 지원 및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 등 우수사례 전파 및 홍보 등의 사업 추진	자치구	국바-시비 매칭 (고용노동부)
공동체공간 자산화 (서울시)	·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안정적 활동을 위한 마을공동체 주민조직의 공동체공간 자산화 지원을 위한 사업(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수행) · 모색-계획-실행-성공과 같은 자산화 단계를 설정해 맞춤형으로 지원	조직	전담활동가 인건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지원
사회투자자금 (서울시)	· 민간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 및 협업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시 장기 및 저리 용자	조직	금융지원
지역자산화 (행정안전부)	·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도록 매입·운영 자금을 보증 및 저리대출의 금융지원 ·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만 해당) · 2019년 행정안전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으로 시작	조직	금융지원
혁신타운 (산업통상 자원부)	·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 · 혁신타운 건축(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 입주, 연구, 교육, 기업지원 공간), 연구시설·장비 구축(소재품 공동제작실, 창업공작소 등), 운영 프로그램 개발(클러스터형 지원 프로세스 운영) · 산업·고용위기 지역,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지역, 유희공간(폐교, 폐공장 등) 리모델링 지역 등 우대	건물	건축, 공간구축, 운영개발

출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서울정보소통광장, 해당 중앙부처 정책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2절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연구 경향

‘지역연구’의 정체성은 현장 문제 중심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립해나갈 수 있다(김영정 2015, 178-179). 사회적경제 역시 구체적인 지역 사례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사회적경제의 개념화, 제도화, 역사 등이 사회적경제와 지역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지역을 단위로 한 사회적경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왜 위치하는지, 지역적 요소의 활용이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표 2-4〉참고).

〈표 2-4〉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연구 현황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지역 거버넌스, 네트워크, 유형화	김의영 외(2016)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특징을 다층성, 통합성, 전략성으로 정리하고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사례연구 수행
	이경미·정원오(2017)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성 주체(민간, 관료)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형성을 위한 결정요인으로 민간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
	이유라·이명환(2017)	성수동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소셜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의 영향을 분석해 성수동 사회적경제 조직의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양상을 밝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및 주민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함
지역 분포 양상	김금환·강영숙(2014)	입지계수 및 비영리 사회서비스 분야의 입지 특성 및 결정요인을 참고해 전국 인증사회적기업의 입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별 수요와 공급 측면의 특징을 반영해 입지를 결정하고 있음을 밝힘
	최유진(2016)	사회적기업의 지역 내 확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확산 동기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 및 그에 따른 지표를 선정해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역주민구성 등과의 관계와 연결해 제시함
	관성문 외(2016)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설립되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해 협동조합의 설립이 지역의 수요와 공급 특성을 반영함을 밝힘
	구양비(2018)	입지계수를 통해 전국 사·군·구 단위의 인증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지리적 분포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사회적경제 평가를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한 분석의 필요성 제기
	주성재·노경란(2018)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능한 지리학적 연구주제로 '사회적 공간의 특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간적 집적, 지역사회의 밀착도(착근성) 등을 제시하며 사회적경제의 가치 지향이 공간점유를 통해 드러나는 양상에 대한 연구 필요성 제기
조직 성과	한상일·김경희(2013)	'자산가반지역공동체발전전략'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자산 활용도와 기업의 성과 간 인과모형 검증을 시도해 지역자산을 많이 활용할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남을 밝힘

먼저 지역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혹은 지역의 유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설명한 경우를 살펴본다. 김의영 외(2016)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시·군·구, 읍·면·동, 마을 수준)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특징에 주목한다.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역이 형성하는 거버넌스의 특성인 '다층성',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포괄하는 과정에 필요한 '통합성',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른 고유의 전략적 거버넌스인 '전략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일부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해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정치사회적 역동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경미·정원오(2017)³⁾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 주체를 민간(민민네트워크

3) 민민네트워크 역량은 결집력(단일 사회적경제협의체 구성, 마을·사회적경제 통합 네트워크 설립, 네트워크 자립사업), 주도성(민민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수탁, 의제사업 정책화, 네트워크 내 경제적 협력사업), 정치력(핵심 인물, 정책 관철 의지)으로 구성된다. 자치구의 정책추진 역량은 사회적경제 행정 의지(담당 행정 인원, 예산 비중,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민관네트워크 형성(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역량) 및 관료(지방정부 역량)로 구분하여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형’, ‘자치구주도형’, ‘주체빈약형’ 총 네 가지로 유형화를 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서울시 전 자치구를 각 유형에 맞춰 구분하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형성 정도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형성을 위한 결정요인으로서 민간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는데, 특히 네트워크 내 경제적 협력사업이 결성, 확대, 발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유라·이명훈(2017)은 동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성수동 단위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소셜네트워크 분석 및 지역사회 영향 분석하였다.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과 중심성을 파악해 중추조직을 도출하였다. 지역사회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크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 정도’와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지역사회 및 주민인식 변화’를 물었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주요 활동 및 공간에 대한 인지여부와 참여이용경험, 만족도, 지역환경과 이웃 네트워크,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을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성수동 사회적경제 조직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조직형태, 활동특성과 무관하게 조직 간 및 외부 커뮤니티, 지역 사회범위까지 구축되어있음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로 유입되어 활동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웃주민과의 관계개선, 마을행사에 대한 참여 및 관심도의 증가, 삶의 질 개선,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소통 및 교류 증가 등이 있다. 이들은 특히 도시재생시에 필요한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함으로써 비영리 영역의 활동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동 단위와 같은 작은 스케일에서 사회적경제의 공간적 전개와 적응과정을 전달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리학적 사고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주성재·노경란, 2018).

다음으로 어떤 지역에 왜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치, 분포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김금환·강영숙(2014)은 입지계수를 활용해 지역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국 인증사회적기업의 입지를 분석하였다. 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바탕으로 입지계수를 활용하되, 특히 비영리 사회서비스 분야의 입지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련한 이론 및 그

의결기능 보유 민관협의체 운영, 유관부서 의제별 회의 결합),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사회적경제 기본/활성화 조례,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공유자산 형성)으로 측정하였다.

에 따른 지표를 참고하였다. 지역의 저소득층 비율, 실업자 비율, 영유아사망률(이상 '이질성 이론'),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협력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이상 '상호의존 이론'), 산업 종사자 수와 같은 지역 산업구조와 지자체장 소속 정당,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 설치 여부 등 지역의 제도적 특징(이상 '사회적 기원론'), 시민사회의 다양성('다원화 이론')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은 약한 산업기반, 인구 감소, 노령화,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기업활동자원의 공급 측면 모두를 반영해 입지를 결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유진(2016)은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왜 확산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사회적기업의 확산 동기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과 그에 따른 지표로 '이질성 이론', '상호의존 이론'과 더불어 '공급 측면 이론'과 '복지국가 이론'을 선정하였다. 먼저 이질성 이론을 바탕으로는 주민 수요의 이질적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젊은이 인구 비율을 선택하였고, 상호의존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을 보았다. 또한 공급 측면 이론은 지역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급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1인당 민간단체의 수로 적용하였고, 복지국가 이론에 따라서는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인구증가율을 지표로 채택하였다. 공간적 상관성 추정 결과 시·군·구 수준의 사회적기업 분포는 양의 공간적 상관성을 보였으나 그 크기가 매우 크지는 않았다. 또한 상호의존 이론과 공급 측면 이론은 강한 지지를 나타낸 반면 이질성 이론과 복지국가 이론은 유의한 정도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입지가 지역 내 사회적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창업 유도 정책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지역주민 구성의 이질성이 높은 지역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곳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공공재의 공급과 지역 재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권성문 외(2016)는 지역 특성이 협동조합의 설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자원이 적은 조직일수록, 즉 지역경제가 비활성화되어있고 조직내부자원이 부족할수록 상호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결속을 강화한다는 '자원의존 이론'과 개인의 경제적,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계를 지속한다는 '사회교환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되 협동조합 설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크게 두 가지

로 나눠 살펴보았다. 하나는 ‘지역자산’으로 복지지출 비율 및 재정자립도를, 다른 하나는 ‘인적자산’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 및 석·박사 비율로 두고 협동조합 설립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 설립은 지역의 수요 및 공급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이 낮을수록, 인적자산이 높을수록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지출 및 재정자립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지역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부족한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유추하였다.

구양미(2018)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인증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2015 기준) 자료를 구축해 지리적 분포를 분석했는데, 입지계수를 활용해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국 사업체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일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사회적경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한다. 이로써 여러 사회-공간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경제의 수요와 공급, 발전양상에 따른 공간과 지역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성재·노경란(2018)은 사회적경제의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지리학적 연구주제를 정리해 제시하였다.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주제로, 첫째는 ‘사회적(the social)’ 공간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기업가의 낙후 공동체 내 사회적 가치의 발현 동기,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차별화 지점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수요 측면 및 지역인력·사회자본·중산층과 중하위층이 밀집한 교외지역이라는 공급 측면에서 그 사회적 특성을 발견한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와 사회혁신클러스터와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간적 집적에 주목하였다. 이는 일반 산업클러스터와의 비교나 혁신적 관점에서 구별점을 가질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가 양성, 유연한 중간조직, 구성원 간 사회적 가치의 공유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 수요와 공급의 일치, 공동체 정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와의 밀착도를 보기 위해 ‘착근성(embeddedness)’과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 가령 조직유형,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구조, 행위자의 참여 정도, 지역별 경로의존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지역 간 양방향 작용 및 공존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의 가치 지향은 공간 점유와 동시에 이뤄지기에 공간적 연대, 네트워크 구성 등이 지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공간 전개 특성을 정리해 정책에 활용하도록 관

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과 유의미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점에서 지역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조직의 성과에 중요할 수 있다. 한상일·김경희(2013)는 ‘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전략(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자산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는 인과모형 검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지역자산’이란 여성, 저소득층,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공무원, 일반 지역주민 등의 ‘개인’과, 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지역단체, 주민조직, 지역소재기업, 종교기관 등과 같은 ‘기관’, 그리고 공원, 폐교, 공공기관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종교시설, 지역기업시설 등의 ‘물리적 자산’을 포괄한다. 각 지역자산의 활용도가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매출액 증가율, 총수입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인건비 비율, 지방재정 기여)와 사회적 성과(지역소득증가 기여, 지역고용창출 기여, 빈곤율감소 기여, 범죄율감소 기여, 공동체의식확산 기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⁴⁾ 그 결과 지역자산을 많이 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일수록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나 다양한 지역자산을 발굴,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혔다. 지역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장기적 성과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기업 차원의 비용절감과 수익극대화와의 같은 재정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례발굴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제3절 소결

‘지역’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토지, 특정 공간과 장소로의 인지, 정치 및 경제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분석단위 등과 같은 다차원적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개념화, 역사, 제도화 및 정책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발견, 실현되는 일차적 단위의 장(場)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감과 민주주의의 촉진, 순환경제의 실현,

4) 매출액 증가율, 총수입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을 제외하고는 6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발전과 생태계 조성, 제도화와 정책 구성이 논의되고 시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을 단위로 한 사회적경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경제가 어떤 지역에 왜 위치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달리 말해 지역적 환경 내지 조건과 사회적경제 조직화의 관계에서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가령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발한 곳,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치할 것이라는 이론적 전제에서 사회적경제의 장소적 입지를 분석한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지역 내 역할을 인구사회학적, 정치경제적, 행·재정적 환경 등과 같은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연구결과는 정책적, 실용적 함의를 가짐과 동시에 '지역'을 행정단위로 한정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화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위치하면서 발현하는 영향력, 혹은 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밀착성이 소속 지역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한다. 어떤 조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등장, 활동, 유지하는지와 같은 접근방식이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화의 필요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떻게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 충분조건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와 지역 간 관계를 확인하는 일환으로 '장소성'이라는 분석 틀을 채택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제3장

연구 방법론

제1절 지역성의 정의

제2절 연구분석 프레임: 장소성을 중심으로

제3절 사례선정 방법

제4절 분석방법: 사례연구

제1절 지역성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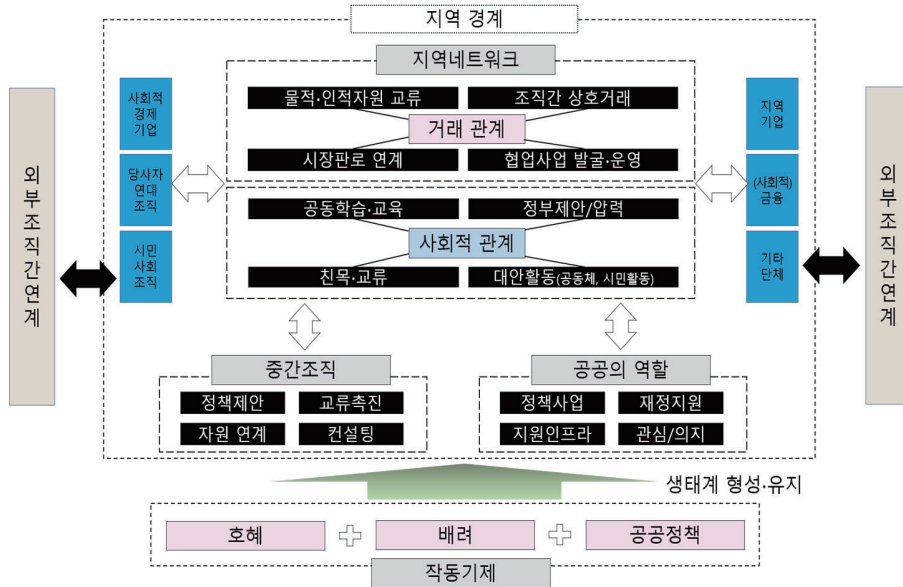
1. 생태계 관점의 지역성

사회적경제는 민주성, 사회성, 경제성을 띤 혼종조직(김의영 2016, 20-21)이자 조직과 더불어 개인의 역할과 활동의 특성을 강조한다(구양미 2016). 이는 사회적경제가 조직의 특성과 더불어 조직 차원 이외의 개인과 활동에도 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김기태 외(2019, 57)는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사회적경제조직과 이를 둘러싼 환경 요인들의 총합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별 및 연대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시장 환경, 제도·정책적 환경 및 그 상호관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장점 중 하나로 분석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주체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 역시 달라지며 여건들의 변화도 검토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을 언급한다. 특히 ‘사회적 여건’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소재 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당면 문제와 지역 범위의 여러 공동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를 파악하도록 이끄는 것을 포함한다(김기태 외 2019, 60).

한편 이흥택(2018, 256)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서 핵심은 ‘지역생태계’로, “일정 지역(공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 및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지역경제, 지역문화, 공공정책 등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역생태계는 해당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형성된 지역성(locality)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 간 관계 및 관계망의 구조, 가치사슬의 구조, 제도적 환경을 포괄한다. 그 작동기제로 호혜(reciprocity), 배려(regard) 및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꼽았는데, [그림 3-1]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1]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 구조



출처: 이흥택(2018, 257)

이러한 생태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지역’은 주어진(given) 상황이나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주체와 상호작용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조건이 된다. 이 지점에서 지역성 혹은 로컬리티(locality)와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성 혹은 로컬리티는 물리적인 공간 또는 장소와 더불어 그와 얽혀있는 경험과 정체성, 소속감과 같은 상징적 가치체계를 포함하는 다층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다(한선·이오현 2012; 이창남 2009). 가령 강식·심효섭(2011, 11)은 지역성을 “개인 또는 공동체가 특정 공간 또는 장소와 연계해 가지는 일종의 사회적, 집단적 정체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조항제(2006)는 “주어진 지리적 공간 내에서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경험, 유산, 이해 또는 기대에 의해 형성되는 소속감”으로 표현했다. 장우진(2011, 1313)은 지역사회(community), “특정 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공생을 통해 스스로의 존속을 꾀하는 사회집단”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고유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정체성(identity)이라고 보았다. 차철욱 외(2017)는 로컬리티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는 가치와 속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로컬은 물리적 공간과 인식적 공간이 결합된 삶의 현장이며,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시간, 공간 그리고 문화가 있다.

사실 지역성이 발현되는 스케일(scale)⁵⁾은 공동체 생활의 기본 단위이자 행정 단위, 정주 장소인 ‘마을’(박해광 2017, 144)부터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과 같이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차원의 스케일도 존재한다. 사회적경제에도 상이한 사회-공간적 스케일 및 작동 방식이 존재하는데, 가령 구양미(2016, 246-247)는 ‘공정무역 네트워크’는 글로벌 차원에서 작동하는 반면 ‘몬드라곤’은 14개국에 걸쳐 분포하는 협동조합 복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차이를 설명하였다.

다만 어느 지역 차원의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공간적 구체성과 개별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과정’을 거치는 만큼 해당 지역에 국한된 유일한 구체적 실제 현상(concrete reality)으로 나타나기에(조명래 2013, 115-116) 각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지역성이 지역개발과 연결해 삶의 공간과 생활과의 관계를 고려해 환경, 복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차원의 ‘도시경쟁력’으로 접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성에 기반해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등의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장우진 2011).

제2절 연구 분석 프레임: 장소성을 중심으로

지역성은 물리적인 요소와 함께 인지적, 사회문화적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적경제가 혼종조직일지라도 영리 혹은 비영리성의 법인격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조직과 가장 다른 지점일 것이다. 경제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문제화하려고 한다(Coe et al. 2013/2021). 이에 착안해 ‘장소’라는 개념⁶⁾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성을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5) 지표상의 공간과 장소가 제각기 형성하는 관계망의 구조로 서로 다른 크기의 단위들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조직적 틀을 제공한다(Coe et al. 2013/2021).

6) 1980년대 말 이후 학문적 개념으로서 공간(space)과 장소(place)에 대한 관심이 사회과학계 전반에서 새로이 주목(정현목 2013, 108).

먼저 ‘장소’란 무차별적으로 존재하던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한다. 공간에 경험이 쌓일 때 장소가 되는 것이다(조명래 2013, 155). 따라서 ‘장소성(placeness)’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특정 시점에서 특정 행위자가 장소적으로 만남과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현상적으로 표현된 것이다(조명래 2013, 67)이다.

한편 장소성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는 특수적인 것이라면 이를 ‘장소감(sense of place)’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장소의 지역적 구별성(local distinctiveness of a specific place)⁷⁾과 장소에 대한 경험, 사용, 이해(experience, use, understand the place)⁸⁾의 요소를 합친 것을 뜻한다(Convery et al. 2012). 또 특정 도시나 지역을 경험하면서 그 공간에 대해 갖게 되는 축적된 느낌(Oldenburg 1999/2019), 장소에 관한 체험이나 기억과 관련한 의미화(signification)의 공간(조명래 2013, 159-160)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적 정체성 공유는 공동체의 결속, 주체의식, 자율적 통치 의식 형성에도 중요한 조건이 되어 도시에서 ‘장소적 공동체(place-based community)’를 만들어내기도 한다(조명래 2013, 310-311).

〈표 3-1〉 장소의 차원(요소)와 그 내용

차원 또는 요소	내용
위치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크기와 규모	장소가 어느 정도 넓고, 크고, 어떤 규모(scale)로 존재하느냐?
물적 외부 환경	장소가 어떤 자연적 요소나 인공 시설로 구성되어 있느냐?
외부와 관계 및 맥락	장소를 에워싼 주변이 어떠한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부 구성과 배열	장소를 구성하는 시설, 활동, 사람 등이 어떻게 배열되고 배치되어 있는가?
법·제도	장소는 어떤 법과 제도로 지위, 용도, 활용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사회성 및 계급 역학 관계	장소는 어떤 사회계층적 성향과 관계를 담고 있는가?
이념, 상징, 정체성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념, 상징, 정체성은 무엇인가?
체험과 기억	장소를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장소에 대해 어떤 체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7) 지형학적(topographical), 우주적(cosmological), 영적(spiritual),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과 심리적 관여(people'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ngagement with place), 장소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place), 시간에 따른 장소 의미의 발전과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 과정(how place meanings develop over time and how people become attached to places) 등을 포함한다(Convery et al. 2012, 2).

8)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장소의존(place dependency), 내부화(insiderness/insidedness) 등을 포함한다(Convery et al. 2012, 2).

차원 또는 요소	내용
변화와 역사	장소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거나 변할 것인가? 그 장소의 역사(성)는 어떤 것인가?

출처: 조명래(2013, 156)

본 연구에서는 조명래(2013)가 정리한 ‘장소⁹⁾’를 구성하는 차원 또는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수립한다(〈표 3-1〉). 이 틀은 지역에서 특정 장소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흐름을 잘 나타낸다. 가령 골목이라는 지역 단위의 공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특징을 정리한 모종린(2017)은 골목길 자체가 도시경제의 공공재를 창출한다고 보았다(모종린 2017, 48). 골목길을 차별화하는 것은 장인정신, 기업가 정신, 골목문화를 유지 및 강화하는 정체성, 공동체 정신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부의 역량으로 자율적으로 축적해야 하는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 역시 장소성이라는 구체적인 틀을 바탕으로 심화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개념인 입지조건의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시장관계 뿐만 아니라 비시장관계를 포함하는데(〈표 3-2〉), 장소의 구성원이나 내외부 활동의 흐름을 포괄하는 장소성의 틀을 활용해 포착할 수 있다.

〈표 3-2〉 입지 조건의 제도적 유형화

입지조건: 시장관계	가시적·비가시적 특성에 대한 언급
고객	배송비, 개인적 접촉,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호와 요구사항의 다양성, 경쟁자 위협
노동	임금 및 비임금 이익, 고용 및 훈련비용, 기술, 활용가능성, 노조, 태도, 가치
공급업자: 원료 투입	운송비, 공급업자와의 개인적 접촉, 품질, 신뢰성, 적기 투입 가능성
공급업자: 장비	배송(고정)비용, 유지 및 문제해결 서비스, 품질, 신뢰성
공급업자: 서비스	비용, 공급업자와의 개인적 접촉, 품질, 신뢰성
운송	운임률, 신뢰성, 빈도, 다양성, 손상, 활용가능성
토지	비용(고정/임대), 서비스 여부, 규모와 형태, 수준, 토양과 지표 조건
건물	비용(고정/임대), 새건물/옛건물, 재산세, 활용가능성, 규모와 모양, 접근성
주택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 주택 공급비용, 품질과 활용가능성
에너지, 유틸리티	전력, 물, 폐기물처리 등에 드는 비용(세금 포함), 다양성, 신뢰성, 활용가능성

9) 추상적 실재인 공간과 달리 장소는 특정 사건이 특정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주체에 의해 체험되면서 의미가 부여되는 장.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 구체적인 공간이라는 의미. 이러한 성질을 장소성이라고 한다.(조명래 2013, 156)

입지조건: 시장관계	가시적·비가시적 특성에 대한 언급
정부 서비스	법인세, 소득세, 공공재(안전, 건강, 교육), 신뢰성, 품질
집적: 국지화 경제	관련 활동의 집적에서 오는 비용 이점(예: 공동 숙련 노동에의 접근), 불경제와 불리점
집적: 도시화 경제	대도시 입지에서 오는 비용 이점(예: 다양한 노동 풀), 불경제와 불리점
입지조건: 비시장관계	가시적·비가시적 특성에 대한 언급
비교역 상호 의존	협력(비협력)과 정보교환의 이점(불리점), 신뢰와 부정행위
산업 결합	공동의 서비스(예: 마케팅)를 제공하는 협회(보통 정부 보조)
어메니티: 사회적	엔터테인먼트, 문화, 스포츠 기능 및 시설
어메니티: 환경적	심미적·위락적 고려, 대기 질
국내 정부정책과 태도	투자 보조, 세금 감면, 훈련 보조, 용도지구제, 건물 허가, 적극적/수동적 개발 태도
국제 정부정책	무역정책(관세와 쿼터), 외국인 투자정책, 정치 안정성, 법률 시스템의 신뢰성
환경과 사회정책	대기, 수질, 토지이용 규제, 노동법, 보건, 노동자 보상, 기업 채무, 환경 NGO 활동

출처: Hayter & Patchell(2016/2020)

한편 Oldenburg(1999/2019)¹⁰⁾는 ‘제3의 장소(third places)’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집과 일터가 아닌 또 다른 장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제3의 장소의 특징을 ‘중립지대’, ‘레벨러(leveler)’, ‘대화’, ‘접근성과 편의’, ‘단골’, ‘소박한 외관’, ‘장난스러운 분위기’, ‘또 하나의 집’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제3의 장소가 사회적으로 동등한 조건이 형성된 중립지대이면서도 일상적인 장소로 편안하게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자 결국에는 ‘비공식적 공공생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되는 장소임을 나타낸다. 이는 제3의 장소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점을 넘는 기능을 함을 나타낸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고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는, 또 원기회복을 하며 무리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이를 넘어 정치적 역할, 결사의 습관 형성을 비롯해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선의의 강제력이 있는 곳, 절제된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자 공공영역의 경제초소가 될 수 있는 확장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3의 장소가 일상의 일부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해당 장소에 존재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이 가능함을 느끼게 하는데, 사업장으로서 손님과 고객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이웃을 위해 꾸며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로써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는 공

10) Oldenburg(1999/2019)는 미국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간적 구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각자의 집으로 돌렸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소’라는 개념을 둘러싼 기존의 이론적 작업들은 장소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것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역시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특성, 특히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장소성 혹은 장소감이 우리 사회 혹은 지역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 가치를 지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적경제 지역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분석의 틀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조명래(2013)가 제시한 장소를 구성하는 차원을 재구성 하였다. 조명래(2013)가 제시했던 장소를 구성하는 모든 차원 혹은 요소를 다루기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되 6개의 요소를 중점으로 구체화하였다.

〈표 3-3〉 최종 연구 분석틀(framework)

장소의 차원 또는 요소	질문내용의 구체화
외부와의 관계 및 맥락	· 장소를 에워싼 주변이 어떠한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조직 활동 기반의 지역에 대한 설명방식 -조직 및 주민의 지역과의 관계설정방식 및 상호영향의 내용
내부 구성과 배열	· 장소를 구성하는 시설, 활동, 사람 등이 어떻게 배열되고 배치되어 있는가? -기본적인 장소 구성과 구성원 및 이용자가 느끼는 장소의 특징 -구성원 및 이용자의 특징
법·제도	· 장소는 어떤 법과 제도로 지위, 용도, 활용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장소 기반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한 과정, 변화 등의 내용(조직 중심)
이념, 상징, 정체성	·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념, 상징,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역 내 창출하고 있는 문화의 내용
체험과 기억	· 장소를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장소에 대해 어떤 체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장소와 결부된(해당 장소에 한정된) 특정 경험 내용
변화와 역사	· 장소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거나 변할 것인가? 그 장소의 역사(성)는 어떤 것인가? -지역의 변화 인식 및 대응을 통한 지역 정착의 방식

출처: 조명래(2013)을 바탕으로 재구성

제3절 사례선정 방법

도시공간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조명래(2013, 294)에 따르면, 공간 생태적 구성(중심지와 주변지로 분화), 경제적 구성(생산지역과 소비지역), 사회계층적 구성(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제도적(도시계획적 등) 구성(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 공업지역), 발전 단계별 구성(기개발지·재개발지·신개발지), 지가별·지대별 구성(부동산 가격 높고 낮은 곳), 점유형태별 구성(공공 공간과 사유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지역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서울 사회적경제가 성장해 온 지난 10년간의 전체적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4대부문 조직-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해 시각화한다. 지역별 분포의 시각화는 사회적경제의 지역성과 해당 지역의 제반 시설(amenity)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직의 세부 주소를 수집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의 소재 현황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군집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지리정보분석방법이 있지만 본 절에서는 점¹¹⁾의 위치속성만 가지고 지도화할 수 있는 Getis-Ord Statistics 기법, 그중에서도 국지적 군집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Getis-Ord Gi*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2013년, 2015년, 2021년 각 시점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였다. 도로명 혹은 지번 주소에 대해 확인(추정)¹²⁾이 가능해 GIS에 포함된 정보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4〉 시점별 사회적경제 조직 개수(GIS 포함 기준)

	2013 기준	2015 기준	2021 기준
자활기업	151개(6월)	141개(12월)	132개(8월)
마을기업	95개(6월)	110개(12월)	96개(7월)
사회적기업(인증)	212개(12월)	260개(12월)	545개(7월)
협동조합	828개(일반협동조합, 10월)	2,225개(연합회미포함, 12월)	4,623개(연합회포함, 7월)
총계	1,286개	2,736개	5,396개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울시 마을기업 백서,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내부자료.
주. 각 정보의 기준 시점은 가용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괄호 내 표기해두었다.

11) 점이 아닌 면적 단위(구 행정경계, 법정동 행정경계 등)로 분석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 개수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즉 절대값으로 제시할 것인지 혹은 인구수나 사업체 수 등으로 표준화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12) 과거시점 주소를 파악의 한계로 지오코딩 시 좌표가 나타나지 않는 주소는 인근 주소를 사용하였다.

〈표 3-5〉 연차별 사회적경제 조직 개수(GIS 포함 기준)

	3년차(2019)	5년차(2017)	10년차 및 그 이상 (2007~2012)
자활기업	11개	14개	33개
마을기업	3개	8개	19개
사회적기업(인증)	78개	39개	129개
협동조합	463개	402개	18개
총계	555개	463개	19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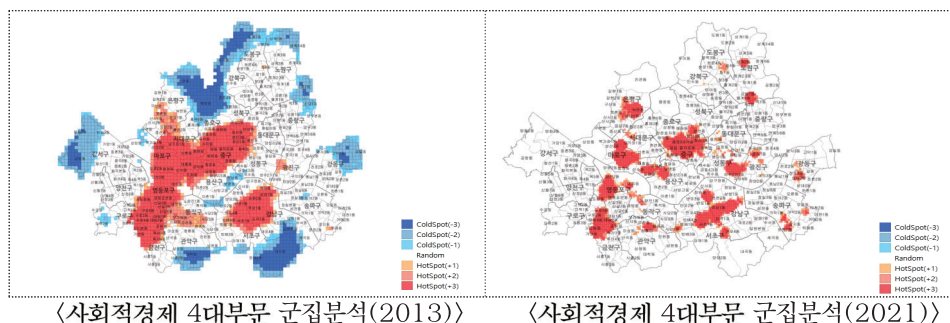
주1. 자활기업 인정일, 마을기업 지정일, 사회적기업 인정일, 협동조합 수리일 기준 연차

주2. 자활기업 인정일의 경우 센터 내부자료, 서울시자활기업활성화방안연구(서울시복지재단), 웹검색 등을 종합하여 확인하였으나 일부 확인이 어려운 것은 제외하고 계수되었음.

지면의 제약으로 본문에서는 2013년과 2021년의 주요 군집분석 결과만을 제시하며,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은 부록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집분석의 결과는 빨간색(Hot Spot)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높은 수준의 입지가 인근 지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파란색(Cold Spot)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낮은 수준의 입지가 인근 지역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¹³⁾

먼저 [그림 3-2]는 2013년과 2021년 사회적경제 4대부문 조직 전체의 군집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 약 10년간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의 군집 경향을 전반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2013년에는 일부 지역에만 유의미하게 군집이 형성되었다면, 2021년에는 군집이 점차 밀도 있게 지역별 중심지역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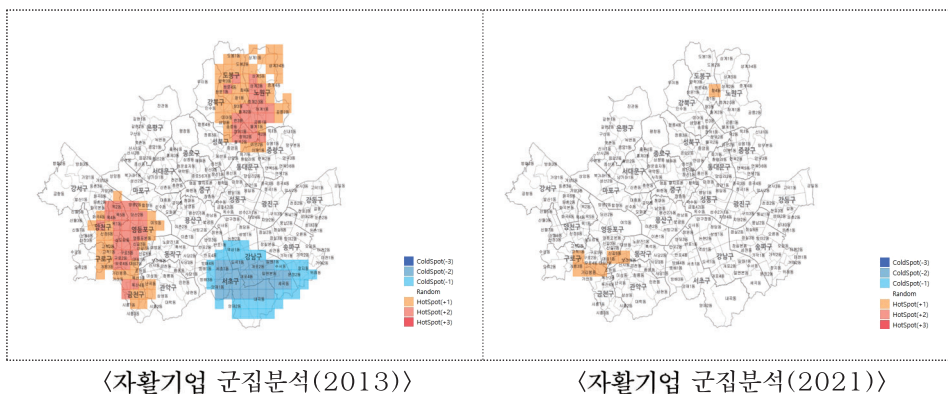
[그림 3-2] 사회적경제 조직 4대부문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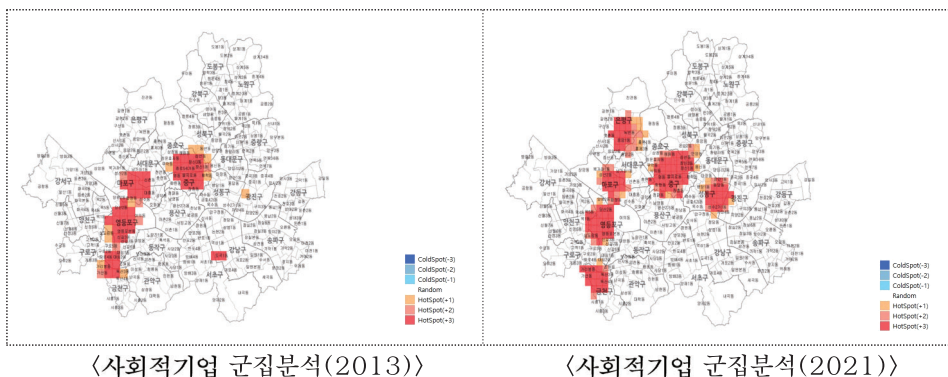
13)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 통계적 의미가 있다기보다 지역 여건, 정책 변수 등에 의해 해석을 덧붙일 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집 내 혹은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활용과 역할을 고려해 후속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대, 임대료, 창업지원 및 육성공간 등의 입지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밀집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는 차례대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2013년과 2021년 시점의 군집화 양상을 표현한 것이다.¹⁴⁾ 먼저 자활기업([그림 3-3])의 경우 2013년에는 강북 3구(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및 서남권(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지역에 핫스팟이 형성된 반면 서초구와 강남구에는 낮은 수준의 입지를 보인다. 다만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군집화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자활기업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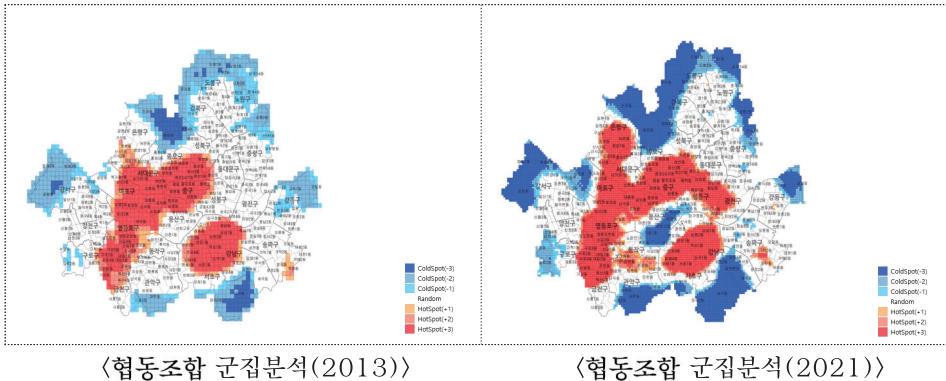


[그림 3-4] 사회적기업 군집분석



14) 마을기업의 경우 사례 수가 적어 군집분석 결과 해석 오류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지 않았다.

[그림 3-5] 협동조합 군집분석



사회적기업([그림 3-4])은 2013년과 2021년의 군집분석 결과에서 금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중구 등에 형성된 핫스팟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21년에는 은평구와 성동구에 새롭게 핫스팟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그림 3-5])의 군집화 양상은 다른 조직유형보다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협동조합 조직 개수 자체가 다른 조직유형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고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에 그 양상 역시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핫스팟 지역 자체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으며, 은평구와 성동구에도 핫스팟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3년 및 2021년에 핫스팟으로 유지되거나 2021년에 새롭게 핫스팟으로 형성된 지역들, 또 서울 5대 생활권역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을 추려 구체적인 사례지로 선택하였다. 총 6곳으로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금천구, 강동구, 용산구이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중 조직유형, 연차(설립 기준), 업종, 지역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관될 수 있는 특징 혹은 키워드(ex. 사회적경제 특구와 같은 지역 단위 정책 참여 경험) 등을 기준으로 사례연구대상 조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경제 이용자(주민)의 경우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해당 지역에 대한 친밀도 및 인지도가 있으면서 사회적경제를 알고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연구대상이 된 조직 등의 추천을 받아 선택적 눈덩이표집으로 모집하였다.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8~25년정도 거주한 경험을 거지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하며 자원활동가로서 고관여 활동을 하고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례지역과 사례 조직 및 지역주민을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6개와 주민 8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 3-1>은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3-6> 인터뷰 사례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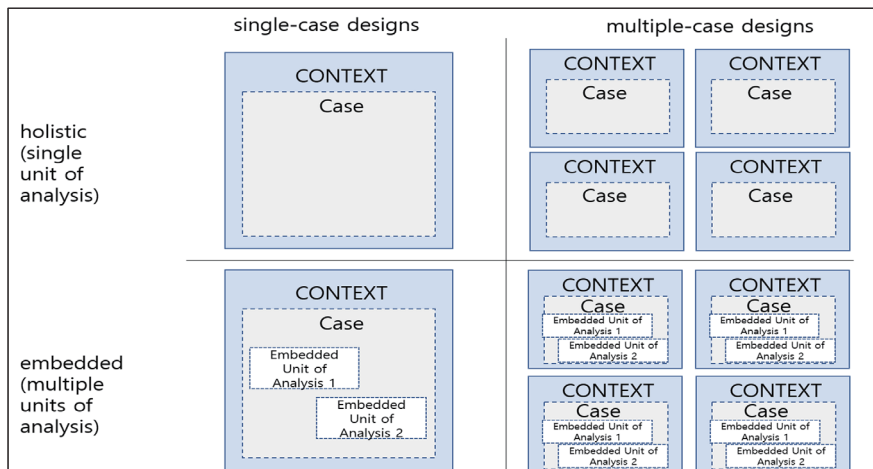
구분	명칭	소재지(권역)	조직유형	직책	설립 연도	업종	특징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자 A	서대문구(서북권)	협동조합	이사장	2020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주민기술학교
	참여자 B	은평구(서북권)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사장	2015	숙박 및 음식점업	친환경, 채식, 돌봄카페
	참여자 C	노원구(동북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사장	2015	도매 및 소매업	자원순환, 특구
	참여자 D	금천구(서남권)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사장	2013	농업, 어업 및 임업	로컬푸드, 동네부엌
	참여자 E	강동구(동남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대표	2009	제조업	가족제조, 특구
	참여자 F	용산구(도심권)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08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지역사회돌봄
사회적 경제 이용 주민 /조합원	명칭	소재지	이용 유형			거주기간	
	참여자 G	금천구	활동가, 조합원			20년	
	참여자 H	금천구	이용자(구매자)			15년	
	참여자 I	노원구	이용자(구매자/기증자)			8년	
	참여자 J	노원구	활동 이사			17년	
	참여자 K	노원구	자원활동가			20년	
	참여자 L	강서구	기획위원, 조합원			25년	
	참여자 M	강서구	나눔위원, 조합원			17년	
	참여자 N	강서구	활동위원, 조합원			20년	

제4절 분석방법: 사례연구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성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사회적경제의 지역성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즉 주요 연구질문이 “어떻게(how)” 혹은 “왜(why)”와 관련된 것으로 사례연구 방법에 적합한 연구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례연구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과정(underlying processes)을 분석할 때, 연구대상에 대한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변수들을 다루며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Yin 2017). 사례연구는 분석단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총체적 사례연구(holistic case

study)와 내재적 사례연구(embedded case study)로 나눌 수 있으며 크게 2x2 행렬 ([그림 3-6])로 정리될 수 있다(Yin 2017, 43, 68). 본 연구는 여러 조직의 사례들을 분석하는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강력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사례 교차를 바탕으로 지역성(장소성)이라는 하나의 결론(a single set of “cross-case” conclusions, Yin 2017, 33)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성(장소성)을 구성하는 속성과 차원을 밝히기 위해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사회적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위해 내재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6] 사례연구설계의 기본 유형



출처: Yin (2017, 69)

사례연구를 위해 2021년 10월~12월까지 총 6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8명의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轉寫)하였고, 내용 분석 및 사례 간 교차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정리하되 ‘속성(properties)’과 ‘차원(dimensions)’¹⁵⁾이라는 개념적 위계(conceptual ordering, Strauss & Corbin 1998)를 바탕으로 분석틀의 범주와 부합하도록 분석하였다.

15) 개방코딩(open coding)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속성’은 ‘한 범주의 특징들’로 ‘해당 범주를 정의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차원’은 ‘해당 범주를 구체화하고 이론에 변화(variation)’를 제공하면서 ‘한 범주의 일반적 속성들의 범위가 다양’함을 보여준다(Strauss & Corbin 1998, 101).



제4장

사례 분석 결과

제1절 사례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조직 관점의 지역성 사례분석 결과

제3절 주민 관점의 지역성 사례분석 결과

제4절 소결

4

사례 분석 결과 <<

제1절 사례의 일반적 특성

사례연구대상 사회적경제 조직은 서울 5개 권역의 6개 지역에 해당하며, 2021년 10월~12월에 걸쳐 각 조직의 대표 또는 이사장을 대상으로 반구조화의 대면 심층 인터뷰(부록 1 참고)를 2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 이용자 대상으로는 동일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되 사회적경제 이용자의 관점에 맞춰 수정(부록 1 참고)하였으며, 이용자 대상으로는 이용자 간 대화 등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을 수집(김영천 2006)하기 위해 2시간 내외의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먼저 사례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례연구대상인 사회적경제 조직에 6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조직) A

서북권(서대문구)에 위치한 조직A는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집수리,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 기반 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 복지 향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녹색건축,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목표로 한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서비스 중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식사지원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기도 하다. 또한 주민기술학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수요 기반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사업)를 통해 집수리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조합원을 발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을 통해 양성된 재원들과 함께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설, 강의장 대관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참여자(조직) B

서북권(은평구)에 위치한 조직B는 2015년에 지역 내 로컬푸드 식당이자 친환경식당으로 자리잡고자 운영을 시작하였다. 파머컬처 운동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 지역 생태운동에 참여해왔던 주민들이 모여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기후위기가 급속화되고 채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이 조성되면서 채식을 하는 시민들이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차별된 전략을 세우고자 하였다. 채식과 식재료 선정(논지엠오, 제철 친환경), 도시농부 공급망 이용, 지역생협 및 사회적기업 식재료 활용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협동조합으로, 2020년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서울시 돌봄 SOS센터의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락사업에 참여 중이다. 또한 식당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치매어르신을 위한 돌봄카페로 제공하는 등 건강마을, 돌봄마을의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3. 참여자(조직) C

동북권(노원구)에 위치한 조직C는 지역의 재이용 자원순환 인프라 확보 및 확대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에 설립된 지역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이며 2017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2016년에 서울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에 참여하여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를 설립해 공동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에서 구축한 자원순환 시스템(공동수거, 물류, 판매)을 주변 지역으로 확장하고, 조합원매장, 지역 장터, 주민참여 교육 등을 통해 자원순환의 거점 마련과 가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체를 구성하는 각 사업체들은 공동브랜드, 공동행사개최, 공동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자원순환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돌봄과 같은 새로운 지역의제로 관심사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마을프로젝트 등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 협약을 통해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4. 참여자(조직) D

서남권(금천구)에 위치한 조직D는 지역에 필요한 의제로 도시농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2013년에 창립한 곳으로 2014년 서울시 마을기업 선정, 2017년 사회적협동

조합 인가,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역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역사 속에 함께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지역 내 도시농업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공공 공간 운영을 기획 및 실행하고 로컬푸드를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음식을 제조하고 이를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동네부엌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어린이식당과 먹거리취약계층을 위한 반찬나눔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이 지역에 구조화되어 정착되길 기대하며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지역의 먹거리 공급체계에 대한 대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5. 참여자(조직) E

동남권(강동구)에 위치한 조직E는 2009년 작은 가죽공방으로 출발해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청년 중심의 가죽패션 산업을 지역에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4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에 사회적기업이 되며 가죽패션 제조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 사회적경제 조직화 지원과 더불어 가죽패션 제조산업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를 희망하는 지역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돕기도 하였다. 지역 사회적기업 간 협의체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함과 동시에 여러 지역단체와의 교류를 꾀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청년 중심의 가죽패션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참여를 통해 유명 해외쇼에 참가해 해외 수주를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가죽패션 제조산업이라는 지역의 산업적 특징을 바탕으로 그 활동기반을 확장하되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영투명성 확보 등 필요한 산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가죽패션에 특화된 지역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6. 참여자(조직) F

중심권(용산구)에 위치한 조직F는 2008년에 지역 나눔돌봄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후 자활기업으로 출발하였다. 비영리성을 추구하며 돌봄종사자와의 조합원 체계를 지향함에 따라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거쳐 2018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였다. 지역 내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

로서는 유일하다. 지역 돌봄 영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청구 그린기관 등으로 선정되어 요양보호사, 서비스수혜자, 지역돌봄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돌봄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 지원 등 사회환원을 위한 지역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서울 돌봄SOS센터의 이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맡고 있다.

2절 조직 관점의 지역성 사례분석 결과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성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앞서 연구방법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명래(2013)가 제시한 장소성의 속성 중 사회적경제 조직에 맞춰 6개의 속성에 대해 지역성(장소성)을 탐색하였다.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한 대표 및 이사장을 인터뷰 한 결과 <표 4-1>와 같이 6가지 장소성의 속성, 12개의 장소성의 차원으로 요약되었다.

<표 4-1> 조직 사례 분석 내용 요약

장소성의 속성 (properties)	장소성의 차원 (dimensions)	차원의 구체적 내용
조직 외부와의 관계 맺음 :시장관계와 비시장관계를 넘나들며	위치하는 지역에 서의 활동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혹은 수혜자가 위치하는 지역 - 조직 구성원의 거주지 - 임대료 수준 - 사업 확장 혹은 발전 가능성(주변과의 협업 전망) -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자 역할 - 자치구 및 유관 조직(단체)의 지원 - 지역 및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대안적 활동)
	지역과의 관계 맺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네트워킹 -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활동 -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을 위한 사업 구성 -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 사회적경제 영역 외 지역 조직(단체)과의 협력
조직 내부 구성 :장소 기반 일과 사람	장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사업장 등 기본 조직 운영을 위한 시설 - 구성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 조직 협의체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 물류센터 - 임대 혹은 공공 시설 사용

장소성의 속성 (properties)	장소성의 차원 (dimensions)	차원의 구체적 내용
	활동 및 (활동)참여자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간 협력 관계 - 조직 외부자의 참여를 위한 개방성 확보 고려 - 주사업을 포함한 조직 활동 내용 및 활동참여자의 다양화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통 멤버십을 바탕으로 공동활동 추진 -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
	공간 운영 과정에서 활용한 법·제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내용으로 운영하는 공간 견학 - 지역의제 중심의 특구 정책 참여 - 시민자산화 정책수행을 위한 운영 단체
법·제도·정책 :장소에 정말 필요한 것	법·제도·정책 활용의 이유·결과·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및 시설수리비 지원 - 지역의 생활의제 중심으로 조직들이 공동으로 정책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인식 확대 - 지역 내 거점형으로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유휴 공공공간 활용 촉구 - 제도 활용을 통해 물리적 기반을 조성, 확장해나갈 수 있는 공신력 확보 - 수익사업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민 개방성이 보다 높은 공공공간의 입지를 활용해 다양한 주민과 접촉하고 여러 사업을 시도 혹은 실험해보는 기회 확보
이념, 상징, 정체성 :장소를 만들어주는 분위기와 문화	지역사회에 조성하고 싶은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회의 제공,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 - 지역 외부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경제를 통해 삶의 영역(소비, 공동체활동, 일자리 등)에서 자연스러운 변화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유지 및 조직 지속가능성 확보 - 단순 사업장을 넘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 - 생활과 밀접한 단위인 동(洞) 단위 수준의 문제에 접근 - 지역 내 연결면의 확장(지역에 흩어져있는 '점'들을 '선'과 '면'으로 연결 및 확장)
	창출하고 있는 문화 혹은 생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 관계보다 가시적 관계를 통해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필요를 발견·해결해나갈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 - 외부조건이 어려워도 조직의 미션을 고수하며 직접 실천함으로써 미션의 가치 강조
체험과 기억 :지역이 어떤 장소가 되다	장소에서의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체의 등장 및 활동의 체형 - 지역에서 사업을 하며 봉사 정신, 관계 중시, 자기자본 투입 등을 통해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냄 - 지역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자원을 조달함으로써 공동의 가치 추구를 경험
	경험(체험과 기억)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적(counterfactual) 경험 세계 제공 - 공적, 사회적 역할(특히 돌봄, 환경, 취약계층 지원 등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지점) - 사회적경제 조직유형을 기반으로 협업 수행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음
역사와 변화 :지역 기반의 장소로 뿌리내리기	조직의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히 지향점을 잃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류해왔던 주민들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지 않거나 같은 지향점을 가진 주민(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가치를 깨달음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판로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숙련도 향상 가능 - 지역에서 장기간 활동하면서 조직의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분야 및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사회 내 지역 인사들을 포함한 거버넌스 구성 -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 시민사회 환경, 지역에서 활동한 이력 등을 통해

장소성의 속성 (properties)	장소성의 차원 (dimensions)	차원의 구체적 내용
		지역성 구현 - 사회적경제를 공통분모로 하여 지역적 상황에 맞춰 지역 내 협력 구조 형성
	지역의 변화에 대응	- 사회적경제 조직유형을 선택할 때 추구했던 지향이나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수행방식을 지속 - 지역 의제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자 해결책을 모색하는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조직의 노력이 지역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론장 조성 - 지역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중시하는 장소애착 및 장소의존성 형성을 통해 지역에 존속 - 특정 장소를 넘어 사업을 확장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범위까지로 지역성을 확대

1. 조직 외부와의 관계 맺음: 시장관계와 비시장관계를 넘나들며

앞서 언급했듯 입지 조건은 시장관계와 비시장관계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시장관계는 고객, 노동, 공급과 운송, 토지와 건물, 정부 서비스, 집적경제 등과 같은 입지조건을 뜻한다. 한편 비시장관계는 협력(비협력)과 신뢰(부정행위)와 같은 비교역(non-trade) 상호 의존, 공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의 결합, 국내외 정책, 환경과 사회정책적 조건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장 및 비시장관계를 모두 아우르되 상호결합해 이점을 확대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개, 지역에 위치하게 된 계기 및 지역 내 활동 기간, 조직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관계 맺음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 조직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 속의 ‘경제’에 주목하는 사회적경제의 특징이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은 위치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 그리고 조직 외부, 특히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고려하는 지점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1) 위치하는 지역에서의 활동 계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있는 곳,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다. 수혜자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할지를 가늠해본다. 이와 더불어 조직 구성원의 거주지 혹은 근무자를 고려해 조직의 기본적 운영과 노동, 공급의 원활함을 꾀한다.

“여기가 지금 저희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돌봄 sos의 수혜자분들이 많으세요. ... 그 서비스를 많이 하니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고 월세도 좀 싸면 좋겠고 조합이 좀 커지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볼 생각에, 시장 옆에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입지를 다 따졌을 때 ... 또 이제 저희 조합원도 살고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여기가 제일 적격이어서 이제 이쪽으로 왔고요. (참여자 A)

“어린이 식당 oo이 필요한 곳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약간 주택가로 와야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겠나 ... 아무튼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특히 여기서 일할 조합원들이 이 근방에서 하는 분들 이어가지고. 어찌저찌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고 여기가 약간 가운데 지점이에요. 이 금천구에.” (참여자 D)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옛날에 자활에서부터 있었고 사례 관리를 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 김포까지 가고 강릉을 가냐, 최대한 그래도 차로 20-30분 내에 갈 수 있는 도착하고 해야지 그나마 사례 관리가 되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여자 F)

한편 지역 내 필요와 협업을 바탕으로 조직화를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소속된 자치구, 지역 내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던 경우, 자활과 같이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로 출발한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도 조합을 안 만들어졌을 거고, ... 주민기술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있는데 서대문구에 강사분이 없는 거죠. ...우리 집 앞에서 강의하고 하나까 한번 가본 거죠. ... 강의를 제안을 거꾸로 해 주셔서 지역 주민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여자 A)

“사회투자지원재단이나 사경센터가 좀 역할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노원 지역 안에서 사실 oo를 빼고는 나머지 이렇게 개별 단체가 운영하는 온 것들이 너무 다 열악하다 보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모아주셨어요. ... 그래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봅시다 해서 만들어진 게 oo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 지금도 계속. 그래서 지금 oo 장터도 같이 해요.” (참여자 C)

“저희 oo는 처음에 용산 지역 자활센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참여자 F)

반면 지역 내외의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안을 직접 찾는 과정에서 조직이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환경과 같은 전 세계적 문제를 지역에서 풀어내려는 대안적 활동, 지역주민으로서 지역필요를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 지역산업의 문제 및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움직임 등이 있다.

“그러면은 환경 문제 이것들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중략) 6년 전에 이 공간 만들 때 제가 개인 사업자였지만 여러 명의 동업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다 녹색당 당원들이었어요. 녹색당 당원들이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친환경 식당 같이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참여자 B)

“사실 여기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 도시농업을 했을 뿐이지, ...(중략)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 출발은 그냥 금천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 농업에 쫓힌 사람, 또 어디 생태에 쫓힌 사람, 어디에 소비자 운동에 쫓힌 사람, 여성 운동에 쫓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늘 만나요. 늘 만나서 어떤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 D)

“지역에 있는, 가족 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걸 분명히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해서 뭘 하면 공동으로 쉬운 공동브랜드라든지 뭐가 산업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쉽게 생각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죠. ... 지금 사업하고 똑같아요.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역분들과 ... 청년하고 청년 디자이너들을 갖다가 소상공인들과 결합을 해서 같이 뭘 해보자를 그걸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E)

(2) 지역과의 관계 맺음 방식

외부 고객이나 주민을 넘어 ‘사회적 약자’ 내지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면서 지역과의 관계를 맺고자 활동한다. 특히 주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조직 운영 방식 자체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사업의 확장 방식, 새로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주경로가 된다.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중의 일환인 이웃 만들기도 하고 있고... (중략) 이제 좀 다양하게. 어떤 한 쪽을 먼저 하면 좋지만 사례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연령층을 접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 이제 지역 상인들 분들과 한 번 더 할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단 소통을 먼저 좀 하고 있죠 저희는... (중략) 그러니까 이분들 조합을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자꾸 활동을 하고 하면은 이제 저희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이제 소통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지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참여자 A)

“저는 좀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제 어쨌든 자기 가치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 소수자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식당도 필요하다 단순히 이제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소수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올 수 있는 공간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 사람도 올 수 있는 식당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있고요.” (참여자 B)

“사회적기업이고 지역사회 공헌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저희는 이 지역 안에서 조금 이제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 돕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세 개 단체가 좀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던 나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 ...(중략) 그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 한 지역에. 이제 한 지역만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한테 저희가 이제 그 수레를 나눠드렸어요.” (참여자 C)

“우리가 좀 약간 지역이랑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하는 협동조합이어서, 약간 그냥 뭐 도시농업 먹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이제 뭐 복지나 청소년 문제나 이런 걸 되게 협업을 많이 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나 부족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인턴십을 한다든지....(중략) 약간 다른 어떤 단체나 조직들과 협업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론회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진행...” (참여자 D)

한편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를 우선적 목표로 사업 확장을 구상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발적 동기가 내재화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민’, ‘행정’, ‘정치’가 함께 작동하며 지역을 구성해나감을 시사한다.

“돌봄의 주거 편의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다 했으면 하는 거죠. ... 약간 원스톱 그래서 통합센터를 구성하는 건 맞는데 ... 실제로 가면, 근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간 김에 도시락도 빨리 신청해 주고 싶고 빨리 청소도 해주고 싶고 한데 업체가 다 다르니... 그걸 이제 근데 그걸 일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A)

“저는 이제 강의하고, 재료 구매만 도와줬고 올해는 저희가 아예 자체적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강의를 했고,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요즘에는 교육지원과랑도 해서 또 중년들 대상으로 하는...” (참여자 A)

“민이 제일 센데...(중략)행정과 정치 이 세 가지가 지역권이라 지역의 힘이라고 한다면...(중략)” (참여자 E)

“주민센터하고 같이 사례 관리하는 영역에도 들어간 거죠.” (참여자 F)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와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회조직, 지역단체 등과 구분 없이 협업하거나 그들을 존중, 배려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경제 조직 영역만 고수하는 폐쇄적, 배타적 태도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정책)사업에서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늘 이제 약간의 지역사회의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영향력 있게 일해볼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 그래서 지역에 이제 사단법인도 같이 다른 단체들하고 해서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주민자치 사업이나 마을 공조 사업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되게 정통 시민단체가 별로 없어요. ... 그냥 구로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풀뿌리밖에 없어요.” (참여자 D)

“지역에서 사경이 이걸 다 끌어안지 않거든요. 지역에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고 ... 그분들의 영역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중략)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사경 조직에서 뭔가 지역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 몇 백배는 넓거든요. ... 근데 이분들은 정말로 봉사를 하시거든요. ...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사경은 첫 번째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

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은 돌아가기 시작해요.” (참여자 E)

2. 조직 내부 구성: 장소 기반 일과 사람

무차별적인 ‘공간’이 특정 가치가 부여된 ‘장소’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소를 구성하는 시설, 활동, 이용자 등에 대한 정보와 그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즉 조직이 운영하는 시설의 구성, 해당 장소에서 이뤄지는 활동, 활동 참여자의 구성 및 특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질문하였으며, 응답 내용은 장소의 구성과 활동 및 (활동)참여자의 구성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1)장소의 구성

업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직이 운영하는 시설은 다양하다. 기본 사무실, 사업장 외에도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사업장 자체를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용자 간 관계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확장이 일어나며 활동 범위도 확대된다. 이러한 시설 마련은 조직 입장에서 일종의 ‘희생’이기도 하다. 한편 개별 사업장을 넘어 지역 단위로 조직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물류 체계를 구성하여 조직 운영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주민기술학교에서 배운 것)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 그래서 강의실을 따로 얻어서 교육을 이제 거기서 계속하고 있고요. ...(중략)그래서 차리기도 전에 먼저 두 개를 넣어놓은 게 사무실하고 강의실도 분리하고 싶었고 제대로 된 집수리를 하려면 진짜 여기다 벽도 뚫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 그런 임대인은 제공받은 데 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다. 이런 건데 저희 댁에는 일부러 희생을 한 건데 ...” (참여자 A)

“저희가 여기 너무 좁아서 일단은 도시락 사업은 다른 쪽으로 빼려고 지금 다른 공간을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는 식당만 거기는 이제 지하 공간에 도시락만 해서 청년주택 지하인데 지하 공간에 좀 저희가 거기서 커뮤니티 공간하고 합쳐 공유 주방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그거 사업에 청년주택 공유 주방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오전 시간에는 도시락으로 하고. ...(중략)여기가 제1사업소고 거기가 제2 사업소가 되는 거죠.” (참여자 B)

“저희가 다 모두 다 원했던 게 물류센터... (중략)물류 창고 자리도 그러니까 공간은 이제 구청의 공간인데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제 너무 작아서 버려뒀던 공간들 있잖아요.” (참여자 C)

“너무 좁고, 뭔가 교육을 하거나 뭘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거의 이제 사랑방처럼, 약간 이제 낮에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고, 저녁 식사 시간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보통 대관 같은 건 아니고 약간 식사 예약을 받아서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 밥

도 먹고 하는 저녁 식사 예약을. 송년회도 하고 신년회도 하고 자기네 회식도 하고 한 곳이 이용하기 좋잖아요. 그때는 이쪽까지 다 테이블 의자랑 다 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 주로 그렇게 썼어요. ... 협동조합 같은 데서도 했고 비영리 단체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죠.” (참여자 D)

하지만 수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부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간 마련 방식으로는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공공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공공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출자금, 자기자본 등을 통해 임대료를 마련한다. 한편 공공 공간에 입주함으로써 집적하게 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장은 지역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다만 해당 공간을 ‘우리’의 공간이라고 의미화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여기가 굉장히 지하라서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그니까 백화점 지하가 식품 매장이잖아요. 식품 매장이, 백화점도 식품 매장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아요. ...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이 주는 매력은 진짜 여기를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옆에 이제 스토어 365도 있고 앞에 앞에도 스토어 365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 여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공간이야... 노원 사회적경제 안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C)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숙대 쪽에 남영동이라고 그쪽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 식사를 그래서 햇반도 좀 구비해놓고 들어와서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소통이 더 좋았어요. ... 그리고 다른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라고 딱 느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여자 F)

(2)활동 및 (활동)참여자의 구성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장소를 점유, 이용해나가는가는 장소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정보이다.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리로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이 주로 강조되었지만 실제로 구성원이나 이용자들이 조직에 참여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조직 구성원 간 관계를 가장 중시함에 따라, 혹은 지역이나 업종의 특성 상 조직을 완전히 개방하기보다는 함께 뜻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직 내외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조직 참여자는 한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외의 이용자가 어떻게 조직에 유동적으로 참여해 ‘활력’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역시 계속 된다.

“(협동조합)한 번 했다가 탈퇴했으니까 다시 차릴 마음이 진짜 더 없어졌었는데 그때 다 같이 (교육)듣고서 다시 이제 차린 거죠. ... 저희는 다 같이 각자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급여 받는 거 아니지만 도와주고

하나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이 덜 들어가니까...” (참여자 A)

“저희는 현재 지금 개인 조합원은 없어요... 하나의 개인 기업이 아니고 노원 안에서 여러 단체가 함께 만들어진 사업 연합... 가게는 전부 통일성 있게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고도 공동 로고를 쓰는 거고 가게 명도 그렇게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원칙이에요.” (참여자 C)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유급 근로자가 없어요. 다 지금도 저희, 든든한 이웃 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참여자 C)

“사실 되게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은 편이잖아요. 근데 늘 한 번도 내부 분열은 없었어. 다통도 없고, 약간의 무한 신뢰?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우리가 가게 오픈했으면 좋겠어, 도저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그래 해보자라고 해서 출자 조금 더 해보자 그리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늘 이렇게 믿고 함께해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중이고요. ... 사실 생산자 일반 협동조합으로 시작했어요. ... 지금은 그렇게 가지만 점차로는 약간 이용하는 소비자가 조합원이 돼서 뭔가 좀 활력을 얻는 그런 체계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D)

“주식회사 만들 때도 주주로 참여했던 분들이 대다수가 돌봄 종사자들 돌봄 노동자들이었어요. 자활센터에서부터, 참여 주민들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는 15~6년 이상을 같이 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죠.” (참여자 F)

구성원 간 관계의 친밀성, 신뢰성, 소통, 희생정신 등은 현재의 공간을 마련, 장소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핵심적 부분이다. 주 사업을 바탕으로 활동의 종류를 다양화해 나가지만 조직 외부의 이용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고민이 장소 활용성을 높이기도 한다. 특히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가 활발하다면 중복 멤버십을 통해 서로의 공간, 서로의 프로그램 등을 교류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주민기술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강의실에 어차피 월세를 내니 지금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준비 중이고 여기 수제화 만드는 분도 가입하셨거든요. ... 그러니까 강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꼭 집수리에 관련된 것도 하지만, 강의실이 있으니 조합원들이 강의하고 싶은 분도 저희한테 가입을 하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자 A)

“이 공간을 통해서 된 거는 어쨌든 채식이 제일 중요한 그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학교에 친구들도 와서 비건 요리 수업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이제 비누 만들기라든지 또 친환경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오디세이 학교 친구들도 와서 부침개 모임인가 해가지고 그저께도 와서 한 12명 와가지고 부침개 부쳐 먹고 가고 그랬어요.” (참여자 B)

“청년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 동네에 ... 사회적경제 쪽이나 이렇게 저희 분들과 다 멤버십이 겹쳐요. ...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희가 토요일에 장사를 안 해요. ... 토요일에는 서로 돌봄 카페를 운영해요. ... 가족과 함께 나와서 차 마시고 이웃들이 와서 저희 조합원들이나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노래도 불러드리고...(중략)저희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올해 영화제도 했구요 ... 인문학 모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독

“독한 플렉시테리언이라는 팀이 하나 있어요.” (참여자 B)

“이제 1년에 두 번씩 그냥 저희 oo마을학교라고 해서 그분들(매장에 오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 모시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익금으로 그분들한테 수업을 하는 게 저희가 맞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마을 학교는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이렇게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어쨌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공간에서 주민기술학교를 했었는데요. ... 그분들 중에 지금 이 동호회처럼 이제 협동조합을 띄우려고 준비하면서 ... 그래서 그분들 같이 지금 저희 사경하고 해서 그분들을 중간에 연계해가지고 ... 지금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교육받고 여기서 어쩐가, 일자리도 좀 만들어가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굉장히 그게 좋은 케이스였어요.” (참여자 F)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 고정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고정 지출이 필요한 만큼 큰 투자일 수 있다. 또 당장의 고용을 하더라도 장기고용이 가능한, 즉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단순히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대 결합형 일자리라는 걸 지원받았어요. 올해는 그래서 시니어 한 분, 좀 전에 퇴근하셨는데 너무 잘하세요. 시니어 한 분하고 청년 한 분 ... 저도 일하고 저희 이사님 한 분 일하고 ... 또 이제 배송하시는 분도 ... 7명, 8명 ... 그 정도는 이제 일을 하시죠. 조합원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파트 타임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잠깐 와서 거들면 ...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안정된 일자리라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참여자 B)

“사실은 사무실 실무자를 두는 건 굉장히 큰 투자거든요.” (참여자 D)

“일단은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 자체가 워낙에 불안정한 일자리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향상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는 타 센터들에서는 안 하는 ...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센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드리기도 있고 한데 일단은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보다는 좀 처우도 좀 나아야 되고 서비스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부담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이제 개인 센터하고 너네가 뭐가 다른데 ... 좀 처우나 이분들 입장에서 뭔가를 대변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죠...(중략)근데 이제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참여자 F)

“요양보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그래도 사회적기업이니까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참여자 F)

3. 법/제도/정책: 장소에 정말 필요한 것

공간의 지위와 용도, 활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과 제도, 정책은 공간의 마련, 운영, 기대효과까지 장소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조건이다. 따라서 공간 운영 과정에서 활용한 법·제도·정책, 법·제도·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법·제도·정책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확장 경험, 법·제도·정책에 따라 적용된 규칙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장소 형성에 활용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자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활용한 이유, 기대효과와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로 나눠 파악하였다.

(1)공간 운영 과정에서 활용한 법·제도·정책

공간은 사업을 구상하고 유지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사업의 방향성, 조직의 지향점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인터뷰 대상 조직들이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 중인 다른 공간을 견학해보는 경우, 지역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특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사회에 공간’을 지원하는 자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모습이 이를 보여준다. 한편 공간의 안정성이 없다면 겪어야 할 ‘문제’가 많아지는 만큼 공간 관련 정책의 목표와 실행내용, 일관성이 더욱 필요하다.

“저희가 ... 소셜 밥터디 지원을 받아서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데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경제,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이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본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 마을 공동체라는 거, 먹거리 이걸로 이제 이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참여자 B)

“서울시에서 특구 사업이 있었어요. 특구 사업 얘기가 나오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내보자 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의제로. 그래서 거기에 그 사회투자지원재단하고 노원사경센터가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추진단이었죠. 사경센터 만들어지기 전에, 추진단이 엄청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이제 그걸로 자원순환 의제로 서울시에 냈는데 그게 됐어요. 되면서 이제 oo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참여자 C)

“저는 사실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간으로 인해서 겪은 문제들도 많고...” (참여자 D)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서 막 계속 시민 자산화 얘기가 되고 우리가 종잣돈이라도 만들어서 건물 하나 사자 이 논의를 계속 하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모두의 공간 마을 활력소라고 사업을 신규 매입 형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운영 단체를 사전에 뽑는다 ... 이게 목표가 시민 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후 정도면은 이미 능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를 1순위로 해서 시민사회에게 이 공간을 되팔겠다. ... 그랬었는데 지금 시민자산으로 거의 말 쏙 들어갔고...” (참여자 D)

(2)법·제도·정책 활용 이유·결과·기대효과

‘좋은 공간’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자격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공간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 단위 정책을 통해 개별 사업장을 넘는 지역의 인프라(물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게 해주는 근본을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공동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마을기업지원)많이 보탬이 됐죠. 월세를... 내년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저희는 이제 노후된 저기 주방 쪽에 좀 시설을 고쳤어요. ... 그래서 적자를 내지 않고 유지가 된 거죠.” (참여자 B)

“특구 사업에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원순환 분야가, 그래서 저희 노원 사회적경제 연대 안에서도 저희 oo은 항상 얘기할 때 oo 개인 기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 의제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자원순환 의제로서의 이렇게 얘기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제 약간, 좀 사람들한테 생활 의제로 좀 다가가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특구 사업은 굉장히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여자 C)

“특구 사업을 통해서 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이전에 다들 그냥 포기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물류센터가 안정적으로 계속 물품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어떤 약간의 그 운영상의 체계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

“이런 노력을 하는 사회적경제가, 좋은 공간만 만나면, 임대료만 좀 덜 나간다고 해도 조금 좋은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는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 예비 받아서 한 거예요.” (참여자 D)

“사회적경제 특구에서 이 가족 패션 사업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뭔가를 해보자라는 의지도 지역에 있으셨고...(중략)제조업은 협동조합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반드시 있다. 협동조합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동일 수주를 하고 동일 인프라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특구 사업을 했을 때, 적어도 10년 정도 뒤에는 자발적으로 뭔가 하자는 것들이 생길 것 같더라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조금 더 팬찮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 E)

공공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공공간의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거점형 공간 체계의 구축, 혹은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

주 기본적인 조건과 상황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조직에게 물리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확장해나가는 데 ‘공신력’과 같은 힘(power)을 제공할 수 있다.

“그냥 손쉽게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좀 곳곳에 좀 더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좀 거점으로. 거점형 이런 매 장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공공의 공간은 어디나 다 생기잖아요. 꼭 공간이 크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이제 공공 건물이 생길 때 정말 1층 한귀통이에라도 이렇게, ...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다 조금 공간을 할애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참여자 C)

“공신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 공간 공유 사업으로 해서 우리처럼 공간이 있는 곳이, 어린이 식당이나 청소년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형태를 해서 사업이 돼가지고...” (참여자 D)

“(용산구청은)제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자활센터나 지금 용산구에 있는 마을 지원센터 마을 자치 센터, 교육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허름한 옛날 연립 건물에 들어있어요. 다 옛날 파출소 건물, 옛날 연립 건물. 그래서 교육복지센터가, 이태원 그것도 어디 있냐면 이태원 유흥가 근처예요.” (참여자 F)

또한 구청과 같은 행정 공간은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일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구청 앞 공간이라는 ‘오픈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비록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고 비예산 위탁에 과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공간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경험의 가치가 그들에게는 훨씬 중요하다. 열린 공간에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 고민해왔던 다양한 사업 유형을 실험해볼 수 있는 장(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만 주면 뭐든 한번 해보겠다. 수익 사업을 못 해도 좋으니 좀 주민들을 뭔가 오픈된 공간에 주민을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직거래 장터라든지, 마을 부역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고민하고 있었던 거라서, 해볼 수 있겠다. 시설이 있으니까 돈은 안 되겠지만 많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비예산으로, 비예산으로 위탁한 사례가 거의 없대요. ... 비예산으로 이 공장의 넓은 공간을 청소부터 운영, 대관 업무, 모든 운영 업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은 그냥 수도세, 전기세만 내주고. 그렇게 운영을 3년을 했어요...” (참여자 D)

4. 이념, 상징, 정체성: 장소를 만들어주는 분위기와 문화

이념, 상징, 정체성은 장소에 형성된 고유의 분위기와 관련된다. 이는 장소를 구성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의해 다시금 그 삶의 방식이 확산되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코드(new cultural codes; Melucci 1994)’를 의미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가 위치한 장소의 ‘문화적 코드’를 살펴보기 위

해 사회적경제가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형성하고자 하는 분위기, 그리고 지역에서 이미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혹은 생활방식을 질문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1)지역사회에 조성하고 싶은 분위기

고용기회의 제공 및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또 조직이 운영하는 장소를 통해 외부지역민의 유입을 촉진하면서 전반적인 ‘동네 분위기’, ‘거리 컨셉’을 활성화하는 목표를 가짐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경제를 다른 영역에 비해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일자리를 통해 먹고 살아가는 구조가 계속 확대되어 생활 및 지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영역에서 느끼는 변화가 있기에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할 수 있다.

“조합원들을, 일단 동네분들을 주민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싶어서 저런 게 잘 돼야 되는데 광고비나 이런 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참여자 A)

“강의실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도 꽤 와요. 다른 구에서도 그 온 김에 그냥 가지 않아요.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가시고 뭘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순환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조합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략)어쨌든 여기 동네가 활성화가 돼야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될 거고 그래야 이제 다들 동네 분위기도 좋고, 사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은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 인테리어나 이런 분들도 이런 거를 이제 주 업종이었던 분들도 조합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리를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저희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참여자 A)

“사회적경제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 이게 뭐냐 하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은. ...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 구조가 계속 넓어져야지 이게 생활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 이제 협동조합 기업이 실제로 운영하는 게 힘들고 좀 힘들지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지속 가능한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의 변화가 가능한 거죠. 생활의 변화가...(중략)사회적경제는 그냥 내가 소비하고 내가 쓰고 하는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교류도 되고 공동체에서도 만들어지고, 때로는 또 내가 일자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참여자 B)

“사회적기업들은 그 당시에 제가 자랑했던 게 그거죠. 우리 고용 유지 그대로다.” (참여자 E)

흥미로운 것은 사업장 혹은 판매장이라는 단일한 생산 혹은 소비공간의 기능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편안한 공간’, ‘더 좋은 공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사랑방과 같은 공간’ 등의 표현이 그러한 기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아무나 막 이렇게 와서 쉬고 얘기하다 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죠.” (참여자 A)

“저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좀 단순한 판매 매장의 역할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뭐 이렇게 판매 매장이 아니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참여자 C)

“우리는 약간 마을 문제 해결형 협동조합이잖아요. 도시 농업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주말 농장을 보면서 막 정말 이런 공간을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 거 보고 보면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참여자 D)

“그리고 더 이제 고민이 된다면 취약계층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들이 손잡고 오면 그냥 이발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들은 사실 저희가 고민했어요. 쪽방이나 이런 데서도 용산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개인 조그만 미용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골목에. ...(중략)그러니까 지역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죠.” (참여자 F)

장소에 대한 기대감은 ‘지역’ 자체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지역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그것을 점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선이나 면으로 인식하는지는 소속된 지역을 스스로 어떻게 구성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동(洞) 단위, 생활과 아주 밀접한 단위까지 차별화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되, 이렇게 흩어져있는 단위들을 ‘점’이라고 했을 때 이를 ‘선’과 ‘면’으로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리 역할’, ‘네트워크’, ‘거점’, ‘생태계’ 등으로 구체화되어 표현된다.

“그럼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런 다리 역할을 해야겠구나.” (참여자 A)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저는 이런 공간들이 이 지역 안에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무리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 그냥 정말 저희 슬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슬리퍼 신고 그냥 딱 나가면 이런 매장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손쉽게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좀 곳곳에 좀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좀 거점으로. 거점형 이런 매장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C)

“우리는 뭔가 지역의 어떤 거점을 만들어내는 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를 ... oo의 일로 이제 분리했어요.” (참여자 D)

“저희 oo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든 장애인 발달장애 지원센터든 낮 동안에 돌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돌봄의 거점을 잡고 싶은 거였는데...” (참여자 F)

“사경(사회적경제)의 미래는 동단위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참여자 E)

“수많은 다 서울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강동구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고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니까 높낮이가 달라요. ...(중략)문제는 해당 지역에 포커스, 포커스, 포커스 봤을 때는 틀리거든요.” (참여자 E)

“지역에 있는 거리를 갖다가 점에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면으로 만들어주는 거, 선으로 만들어주는 거...” (참여자 E)

(2)창출하고 있는 문화/생활방식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은 익명성보다는 가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언제든지 특정 장소에 가면 아는 사람을 여러 명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때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다는 ‘제3의 장소’의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Oldenburg 1999/2019). 이를 통해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가며 ‘지역 이익’을 제안, 지역의 필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간다.

“동네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더니 인식이 바뀌신 거죠 ... 저희 사무실을 못 찾아도 물어보면 그거 여기 있잖아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이제 ...” (참여자 A)

“이익 집단이다. 우리는 근데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지역에 필요한 플랫폼이나 솔루션 2가지들 중에 제안할 수 있는 기구와 ...(중략)우리는 공동의 이익인데 그 이익이 뭐냐 했을 때 지역 이익이다. 아주 간단하다. 지역 이익이 살아나면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다.” (참여자 E)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 단위의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그 동네에 깔려 있는 뭔가 에너지들은 아직 보이지 않을 거란 거죠. ... 지역성은 잘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발견해 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 인정이 돼야 지역에 있는 고급 자원들이 지역 역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 E)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는 어려운 외부상황이나 조건에도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는데, 조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한다. 문화, 곧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해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제적 손해나 편리성 대신 먼저 수고를 무릅쓰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알고 일부러 오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오셨다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

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고요. ... 당장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 조금 일회용을 쓰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또 다른 계속 메시지를 발신을 해요. 행정에도 그러고 마을기업이나 저희 같이 이렇게 돌봄 sos를 하는데도 일회용을 못 쓰게 해야 된다.” (참여자 B)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그게 문화거든요. 먹고 소비하고 이제 사는 게 그 문화잖아요. 삶의 문화 문화고 삶의 양식이잖아요. 그거에 좀 개입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을 바꾸고 삶의 양식, 삶의 문화를 바꾸는데, 개입해 들어가는 방식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제 경제활동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경제는 삶을 바꾸는 방식에 가장 근본적이기도 하면서 가장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B)

“물론 이제 기업에서 버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중요해요 ... 저는 저희 oo이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그냥 주민들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작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고민 돼서 결국에는 그래도 힘들더라도 개인 기준으로 우리는 다시 좀 목표를 다시 좀 선행하자...” (참여자 C)

“이 기름값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는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뭔 차이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데 아직까지 식용유는 타협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식용유가 잘 안 들어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중략)우리는 굉장히 사는 게 좀 힘든 사람들이고 아직도 고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가격이나 이런 면도 있어서 이제 진짜 필요한 동네인데, 사실 생협도 오프라인 매장 생긴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어요. ...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취지를 추구하면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렵다.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은 구조니까 그나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저 스스로도 하거든요.” (참여자 D)

5. 체험과 기억: 지역이 어떤 장소가 되다

장소가 ‘되는’ 것에서 장소감(sense of place), 즉 장소에 대한 감각은 매우 중요하다. 장소감은 장소를 경험, 사용, 이해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체험과 기억이 더 많은 이들에게 축적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운영 과정 중 지역에서의 체험과 기억, 지역에 제공하고 있는 경험(체험과 기억)의 가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지역에서 축적한 경험들은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의미화된 공간들을 형성했는지 확인한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으로 맺는 관계, 상호이해의 네트워크에서 발생시키는 특정 기억들(articulated moments; Massey 1994)의 내용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내용들을 보여준다. 인터뷰 내용은 장소에서의 체험과 경험의 가치로 나눠 분석하였다.

(1)장소에서의 체험

여성 기술자,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온전한 채식, 가치소비 등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주체들이자 활동들을 포함한다. 생산, 소비(이용), 교환, 분배와 같은 경제활동의 단순 행위를 넘어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장소의 특징과 체험의 차별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기술자도 만들고 싶고 간단한 건 정말 그분들이 가서 하면 ... (중략)여성분이신데 처음으로 작년에 건축부장 기능사라는, 이제 페인트 자격증 시험 학교서 붙어서 올해 저희가 주민 기술학교 할 때는 일부터 ... 그분을 모셨어요. 여성분이시고 주부님이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분 작년에 처음으로 뒀어요, 니까 더 의욕적으로 배우시네요.” (참여자 A)

“이제 청년들이 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뭔가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같이 같은 문화적으로 뭔가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 (중략)그냥 일반 식당이 아닌 이제 그런 저희가...” (참여자 B)

“야채식으로도 그냥 온전한 식사가 가능하구나 고기 없어도. ...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괜히 매일 오시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채식에 대해서 편견을 깨고 그냥 채식이 맛있고 이제 즐기게 됐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참여자 B)”

“내가 가치를 보고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 걸 하나 사면 그래도 내가 뭐 쥐똥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 경쟁으로 따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하기 위해서 와서 구매를 한다,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여자 C)

‘공동체적 지역화(community-oriented localization)’ 내지 ‘장소적 공동체(place-based community)’는 공동체가 장소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포착해주는 개념이다. 사실 ‘지역’은 여러 수준의 스케일을 포괄할 수 있는데, 미시적 수준의 장소가 되는 과정은 특정한 노력을 수반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봉사’ 정신으로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지역주민들이 조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배송사업을 통해 알게 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나 주 사업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등은 일반 기업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해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이다.

“저희들끼리 2~3시간 더 남아서 일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꾸 돈을 지출하니까 저희끼리는 이진 봉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끼리 그냥 봉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사례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참여자 A)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고 이제 이 빌라의 지하 1층에 누가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안 드시고 계속 걸려 있어 이러면은 이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참여자 B)

“이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 거의 본인들이 있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투입해 주는 거잖아요. 공무원 들은 박수쳐줘야 돼요. ... 지역민 대상으로 요리 수업 한다거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선한다거나...” (참여자 E)

지역에 필요한 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풀어내려는 과정은 후원과 기부, 기증, 지역 내-지역 간 사업체계의 형성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무형의 자원을 조달하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사회적경제는 ‘같이 할 수 있는 가치’, 즉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이해도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식사지원이)막상 이제 끊어지니까 우리한테 너무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끊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잖아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아쉽잖아요. 제가 일단은 그래서 제일 좀 힘드신 것 같은 분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 조합원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주신 거예요. ... 그러면 또 몇 분은 한 달 정도 더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도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올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하시는 분, 종교, 동네 산부인과 병원 이렇게 동네 분들이 해줘가지고 ... 돈이 많이 모였어요...” (참여자 B)

“약간 우리가 뭘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늘리지 우리가 지정 기부금 단체 등록이 됐으니 그러면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더 늘리자. 2호점 3호점 4호점 우리가 후원해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 (중략) 지금 이제 4호점 나왔고 5호점 이제 하는데 ... 이제 하면서 약간 지역에 소문을 내가지고, 후원자가 좀 늘어나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직접 후원해서 이게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참여자 D)

“여기서 이제 거점 배송을 매주 화요일 우리랑 두세 군데를 더 이렇게 농산물을 떨어뜨려주는 차량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거기도 이제 우리 때문에 그 노선이 생겼어요. 올라온 김에. ... 농민이 얘기하신 게 이 거점이 한 여섯 군데만 돼도 차량과 인건비가 빠진다. 약간의 거점이 좀 더 활성화 되면은 그냥 서로 농민들은 장터까지 안 와도 앉아서 농산물만 잘 키워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거를 3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참여자 D)

“그런 장비들을 모을 때 나 안 쓰는 거야 이렇게 끌고 오는 분들 ...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고 싶은데... 돈을 모을 때도 흔쾌히 기부해 주시고, 가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지는 않고 자본주의 그 되게 박하게 살진 않는구나. 그걸 꼬집어낼 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가치, 이런 단어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었다면 사경이 좀 더 이해도를 높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E)

(2)경험(체험과 기억)의 가치

경험은 그 경험을 할 만한 장소에서 발생하기에 그런 장소가 없다면 경험은 일어나지 않고, 특정 장소가 사라지면 특정 경험도 사라진다(Oldenburg 1999/2019). 집과 일터가 아닌 장소에서 경험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가 장소 기반의 공동체 결속에 중요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이 없었다면 그 활동에 따른 현상 역시 없었을 것이라는 반사실적(conterfactual) 추론은 조직 활동이 지역사회에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령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업에 따라 ‘생각의 전환’을 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차별적인 경험 세계를 장소 기반에서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전에는 이런 모임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걸로 있었나요?)아니요. 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새로 다 만든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죠. ... 그리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참여자 A)

“(만약에 특구 사업 때 진행되었던 그니까 자원순환 의제로 참여하는 우리 oo이 아니었다면 다른 우리 단체를 대신해서 다른 곳이 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때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노원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요?)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

“내가 좀 어쨌든 환경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오셔서 그냥 여기서 이런 분위기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조금 생각의 전환만 할 수 있는 저는 공간이 돼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 지역에서 저희를 통해서 그냥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익히고 배고 이런 말이 내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어요.” (참여자 C)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운영 과정 중에 느끼는 ‘뿌듯’, ‘보살핌’, ‘일조’, ‘케어’, ‘환원’과 같은 키워드는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관계와 관련된 경험이 가지는 가치의 의미를 보여준다. 특히 돌봄, 환경, 코로나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조직으로서 자원과 체계를 갖춘 사회적경제의 자발적 역할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이 올스톱’했을 때 ‘국가와 사회’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기능한다.

“정당 활동은 아니고 다들 정치적인 거잖아요. 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지구가 안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탄소 중립 그것도 지금 골치 아픈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는...” (참여자 B)

“이제 그런 돌봄 서비스 하려면 도대체 누구한테 신청해야 된단가 저희한테도 물어보시죠 지역 주민들이 그럴 때는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 (참여자 A)

“자기 태어나서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 이거 혼자 사시는 남자 분인데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오셔서 전화를 고맙다고 몇 번이나 오셨더라고요 ... 국가와 사회가 나를 그냥 이렇게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누가 와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정성들인 음식을 갖다 드린다는 그래서 보살핌 만 한 느낌이 드는 거죠.” (참여자 B)

“그 어찌 됐든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구를 난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쥐뿔만큼이라도 난 내가 거기에 뭔가 일조를 하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곳 여기 살림 여기 oo에 있으면 그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참여자 C)

“이제 무료로 우리가 이제 반찬 한 개씩은 만들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아예 문 밖을 못 나가니까, ... 그러면 후원을 받자. ... 그렇게 쪽 해놓고 구청한테 토스했죠. ... 행정은 올스톱하고 그나마 그래도 사회적경제는 그래도 공간에 뭐라도 있잖아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결국 이 위기가 닥치니 우리 거 우리가 챙기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사실은 커뮤니티케어다.” (참여자 D)

“지역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KT&G 복지재단하고 어르신들 난방비 지원, 김장 행사... 어르신 나들이... 어르신이 주시는 그 본인 부담금이 우리는 그렇게 쓰여진다, 사회 환원 차원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니까 사회환원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 지세요.” (참여자 F)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성장도 경험하였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대량 일감을 수주하고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지역공장 등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업을 학습할 수 있다. 특히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 연합을 구성하고 그것을 인정받았던 경험은 이후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sr 사업이라든지 코레일 사업 중간 사업들을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다 모여야 되거든요. ... 절대로 혼자 못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소상공인도 껴야 되고 지역 공장도 껴야 되고 기획자도, 디자인 영상 기타 등등이 다. 그러면 결론은 돈 버는 건 똑같잖아요. 그냥 정해진 걸 우리가 가져오는 거니까. 계속 팔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한다기보다 지금 현재는 학습 중이라고 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돈도 잘 벌 수 있어 학습하는 것도 하나 있고...” (참여자 E)

“17년, 18년, 19년 3년간 사실 특구를 사업을 했죠. 주요 사업은 저 허브 공간을 운영하고 지역 자원 조사를 해서 공동 판로를 하는 거였는데 ... 대표적인 게 ... 18년, 19년에 저희가 이제 해외 쇼에 초청을 받았어요. ...(중략)oo라는 협동조합 형태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태리 가서 느꼈던 게 제일 섰던 게 뭐냐면, 야 니네 협동조합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라고. 반응이 지금도 약간 짜릿한데 ... 주식회사는 좀 약한 애들이 하는 거고 또 혼자 뭐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 E)

“그 당시 갔던 팀들이 있어요. ...지금 다 사회적기업 됐어요. 이때는 사회적기업 하나도 없었어요. ... 계속 이런 목표로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 인증까지 다들 다른 작업들을 했던 것 같고...” (참여자 E)

6. 역사와 변화: 지역 기반의 장소로 뿌리내리기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요소 중 시간의 흐름은 역사적 측면을 보여준다. 시간의 경과 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중요한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 기반하며 변화를 겪어 내거나 겪어 낼 방식은 조직이 지역에 뿌리내려온 역사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의 변화 과정과 이에 상응해 온 조직의 변화, 조직이 지역에서 갖는 역사적 특징 혹은 시간의 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함에 따라 형성된 축적된 느낌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조직의 역사성과 지역의 변화에 대응한 부분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1)조직의 역사성

꾸준히 지역에서 존재하며 활동을 이어왔다는 것 자체가 조직이 지역 기반의 역사성을 가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것이다. ‘안 망하고’ ‘아직까지 문을 열고 있다는 것’과 ‘꾸준하게 끈기 있게’ 지역에 존재했던 것의 중요성에 대한 반복적 언급이 이를 잘 나타낸다. 운영공간이 주민과의 교류 거점이었던 점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원동력이 되었고, ‘꾸준히 지향’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의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간의 경험들이 쌓여 조직이 수행해 온 사업의 의미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저희가 6년 차 이제 이 공간을 운영한 거는 6년이 지났어요. ...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제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죠. ... 다양한 소모임 같은 것들을 계속 했었어요. ... 그래도 여기를 거점으로 주민들이 모이기도 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새롭게 시작해보자하고...” (참여자 B)

“일단은 은평구에 최초로 비건 식당을 열어가지고 안 망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 (참여자 B)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이 생겨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초기에 이제 제품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지금 지역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기반이나 이런 밑받침이 안 돼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도 우리가 이런 분들하고 못 만났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지 못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참여자 C)

“그냥 저희가 그냥 꾸준히 끈기 있게 이 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참여자 C)

“예전에 ...만난 사람 있는데 ...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잖아요. ...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략)좀 꾸준히 이 지향을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멋져 보이고 하는데 코로나 터져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이분이 소상공인 뭐라도 지원을 받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중략)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한 게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하고 있었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뿐이지 이런 게 우리 이제 협동조합의 힘이 아닌가 싶고...” (참여자 D)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숙련도 향상에도 필요한데, 따라서 지역 중심으로 판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며 지역에 일정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면서 지역의 유관 조직 인사들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며 지역에 정착해오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이 꾸준히 운영되는 것은 사업 역량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해야 숙련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판로 구축을 해요.” (참여자 E)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라고도 있어요. 이제 지역에 큰 복지관을 이제 정하는. 거기도 구에서 먼저 저한테 좀 들어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들어가게도 됐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우리 oo을, 오랫동안 지역에서 그래도 작고 이런 기업이지만 저는 이제 강소기업... 그냥 작아도,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참여자 F)

“제가 이제 이사회를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꾸리고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좀 지역에 있는 나눔의 집, 자활센터 그다음에 이제 다른 비영리 기관들 이런 데, 이제 사외이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참여자 F)

한편 지역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기여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지역변화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지역의 특성을 같이 만들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인지하고 지역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역 시민사회의 여러 분야와 더불어 ‘풀뿌리’ ‘시민력’을 만들어나가는 경험을 축적하기도 했고, 소상공인 등과의 경제적 협업을 학습하거나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비영리성을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경우도 있다. 이는 사회성, 경제성, 비영리성을 모두 가진 혼종적 특징이 지역성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이 지역을 오래 살긴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애 낳고 여기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이제 주민들 뭔가 좀 주도성도 생겼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생겼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에 구로구에서 분구를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없지만 기반 단체들이나 시민력도 없는 상태. ...(중략)그 아주 풀뿌리로 시작했는데 그 시작점이 실은 약간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교육감 민간 선거가 시작되는 그 기점에 약간 우리 금천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중략)도시농업이나, 햇빛발전이나, 청소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경험이 축적이 돼서...아직까지도 도시농업이 제일 탄탄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참여자 D)

“동네에서 열심히 하세요...이 안에서 ... 잘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도 사회적기업하고 사경하고 일을 해 보니까 재미나. 재미라는 게 돈도 벌 수 있고 뭐 하여튼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레퍼런스를 만들겠어 라는 거였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들이라고 한다면 다 강동구에서 적어도 태어났거나 30년 이상 거주했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아들도 동네에서 키워야 되는 거고 내 엄마도 아빠도 동네에 사는 거고...” (참여자 E)

“oo는 자활기업이면서 2012년도에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사회적기업이고 처음에는 조직 형태가 주식회사였어요. ... 2018년도에 주식회사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대로 조직 변경을 합니다. 조직 변경 총회를 해서 사실 폐업을 하고 창립을 하면 쉬울 텐데, 기존에 이제 있던 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직 변경을 했던 거고요 굉장히 좀 어렵게 조직 변경을 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영리 조직에서 비영리 조직으로 바뀌었고...” (참여자 F)

연차가 오래된 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과정을 몸소 보여준다. 행정과의 소통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지역 외부에서 경험했던 부정적 기억이 지역 안에서의 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찾기 힘들었거나 힘든 상황에서는 사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는데, 외부 자원을 모색 및 조달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라는 공통점이 가져다주는 연계와 협업의 의미는 또 다른 것이기에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더욱 확장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한 조직들은 지역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논의체(협의회) 역할 혹은 중간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 가족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참여자 E)

“외로웠으니까 지역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막 사람들을 불러오고 같이 일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oo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참여자 E)

“외부에 나가면 너네들 사회적기업 아니라는 상처들이 되게 컸어요. 초반에 2014년 시범 나가면 ... 그래서 강동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강동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오히려 더, 빈말이 아니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여지는 늘 그걸 해요. 그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을 하든지 지역에 있는 단체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문제 관련해서는 꼭 반드시 집어넣죠. 그 다음에 우리보다 구조가 약하거나 약한 사경 조직은 반드시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습관처럼 있어요.” (참여자 E)

“(용산구에서 사회적경제의 조직 형태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저희 한 곳이라서 좀 외로워요. ... 이제 저희가 용산에서 워낙에 활동을 또 오래 했고 공단이나 이런 데서 청구상담봉사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있는 타 센터들과하고도 굉장히 좀 이렇게 관계나 이런 것들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사업적으로 막 서로 개방한다거나 연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외롭죠.” (참여자 F)

“이제 한번 용산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지역 기관으로 했던 곳이니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떤가 했었고 (중략)... 저희가 됐던 거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 사업이었고 저희 oo이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해도, 왜냐하면 지역 돌봄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경 조직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 거다.” (참여자 F)

(2) 지역의 변화에 대응

역사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지역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 대응하려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연차 조직은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결심하고 있는 한편 고연차 조직은 사회적경제 방식을 택했을 당시 ‘약속’했던 것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년, 3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또 그냥 그냥 그런 조합이 될까 봐, 근데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게 좀 안타까워요.” (참여자 A)

“제가 지역에서 기업들 같이 청년들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당시에는 마을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겠습니더라는 것... 약속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고...” (참여자 E)

나아가 지금까지 한 노력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역 내외에서 ‘체계’화를 하려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외부의 공론장을 만들으로써 지역사회, 정책전문가, 동일 업종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반 혹은 ‘의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 단위 조직들이나 지역과의 연대와 같은 지역을 고려한 정책 실행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솔루션’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또 통합돌봄에 대해서 지금 또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자원순환 의제에서는 이렇게 사협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이렇게 매장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통합돌봄 의제로 지금 또 같이 또 노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여자 C)

“이게 우리만 노력하다 우리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책 토론회 같은 것도 늘 하거든요. 해마다 그 먹거리 정책 토론회 해가지고 지역 사회를 같이 불러들여서, 우리 전문가도 불러들여서 이제 주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먹거리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먹거리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됐는지 이제... (중략)이제 그런 어떤 체계? ...그냥 유통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유통 유품 협회에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 금천구에 우리 같은 먹거리에 관심 있는 단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참여자 D)

“oo는 솔루션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플랫폼에서 다시 솔루션들을 많이 붙이는 상태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런 플랫폼을 통해서 막 업체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난항이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기는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력이 쌓이다 보니까 먼저 어디라도 일거리를 받아올 수 있었거든요.” (참여자 E)

“저희가 이제 최근에 요청해서 돌봄 네트워크 돌봄 분과 같은 거 좀 만들자,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 돌봄 분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간담회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주로 나눌 수 있는 게 사업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열악한 수가 체계에서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역과 어떻게 연대하고 잘하는 자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서로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참여자 F)

‘우리 동네’라는 일정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의 잠재력을 발견해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조직의 구성원이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다면, 조직이 지역의 ‘거점’과 같이 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을 옹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인식은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장소 의존(place dependency)과 같은 장소성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힘들어도)우리 동네니까 하지 ... 남의 동네까지 가서 이걸 하냐.” (참여자 D)

“...지역에 좀 많이 애정을 가져야되겠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역에서 우리 동네 되게 볼 거 없어가 아니라 뭔가 발견해내는, 그럴 때 문화들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하고. ... 그러면 저는 지역에 필요한 역할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E)

“...가능하면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참여자 E)

“저희 조합원들이 다수가, 이용자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용산 주민이 많은데 은평구에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 왜 협동조합을 한 거지 막 이런 거.” (참여자 F)

“...이제 돌봄 sos센터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제 이제 완전히 거의 주민센터, 동주민센터마다 이제 돌봄 매니저들이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거의 한남동, 보광동, 이촌동 이런 거점같이 돼버린 거예요. ... 이제 한남동이나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조금 연대가 있다 보니까 또 혹 떠나버리면 그쪽에서는 다시 시작하거나 또 그쪽에서 기본 잡고 있는 센터들한테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참여자 F)

물론 지역성은 특정 장소, 특정 물리적 범주에 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관계를 기반할 수 있는 범위’를 아울러 지역성이 존재 또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력이 좀 더 생기니까 ...지금 제주도 붙이는 거고 ... 울주도 붙이고 ... 학습이 됐으니까 편해요.” (참여자 E)

“(지역성은)그 관계를 기반할 수 있는 범위... 좀 더 친밀하게. 네트워크를 하고 소통하고 같이 협력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게 좀 지역성 ... 그래서 (용산구에 한정하기보다)어느 정도로 내가 돌봄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나를 개방시킬 수 있는지 서로를 개방하고 할 수 있는지가 그 지역성...” (참여자 F)

제3절 주민 관점의 지역성 사례분석 결과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하는 주민 관점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어떠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앞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분석하기 위해 조명래(2013)가 제시한 6개의 장소성을 살펴보았다면 주민 관점에서는 법·이념을 제외한 5개의 속성으로 지역성을 탐색하였다.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한 주민들을 인터뷰 한 결과 <표 4-2>와 같이 5가지 장소성의 속성, 18개의 장소성의 차원으로 요약되었다.

<표 4-2> 주민 사례 분석 내용 요약

장소성의 속성 (properties)	장소성의 차원 (dimensions)	차원의 구체적 내용
지역 내에서 관계맺음	현재 지역에서 살게 된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와 직장 상황에 맞춰 현재 지역에 정착함 - 자녀 육아에 편리한 지역 - 부모님 돌봄에 적합한 지역
	어떤 점으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함 -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사는 동네 - 타향살이가 아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곳 - 교통과 거주시설이 더 편리한 곳으로 이주고민을 함
	지역에 대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없을 것 같은 끈끈한 관계가 있는 곳 -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지원군이 있음 - 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있는 곳 - 점찍고 가는 동네처럼 때로는 오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움
	지역에서 사회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자원활동가, 기부자로서 사경조직과 연결고리가 있음

장소성의 속성 (properties)	장소성의 차원 (dimensions)	차원의 구체적 내용
조직에서 참여 내용	계 조직과의 연결 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할 때 사경조직을 이용함 - 조합의 소모임 활동으로 지역 소속감과 애착을 갖게 됨
	사회적경제 조직 이용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생애주기에 맞춰 조직을 이용함 - 자녀출산-육아-교육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이용함 - 삶의 전환기에서 가치있는 삶을 선택한 기로에서 사경조직을 이용함 - 지역사회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이용함
	개인적 차원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생활의 일부가 됨 - 소비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한 활동을 함 - 조합원으로서 자부심, 소속감을 느낌 - 조력가로서 자신감을 되찾음
	조직적 차원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과는 다른 느낌 - 수익이 나지 않아도 끝까지 운영함 -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한계가 느껴짐 - 코로나19로 위기이지만 또 다른 탈출구를 발견함
	지역사회 차원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문제나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함 - 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유연하게 대처함 - 지역에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음 - 풀리지 않았던 지역문화 개선이 시작되어 새로운 힘을 되찾음
경험에 대한 기억	참여한 행사나 활동으로부터 남은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함 - 유해한 먹거리로부터 보호받아 안도감을 느낌 - 총회, 회의참석으로 작은 변화와 실천을 하는 본보기를 보여줌 -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어 성취감을 느낌 - 공동체의 힘, 연대의 힘을 체험함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리한 사교육 환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 -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신념을 외롭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음 - 지역의 취약계층이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차별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함 -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원이라는 느낌 -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의미와 연결됨
지역 내에서 상 징성	관계망을 넓혀주는 곳. 쉼터가 되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서 가볍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자 동네 사랑방 - 관계망을 넓혀주는 역할 - 조직의 노력과 주민이 체감하는 시너지가 있음
	공공성의 사각지대 를 채우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이용시설이 폐쇄될 때 돌봄노동을 제공함 -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성이 드러남
	마을의 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변화를 기획하고 행동하는 곳 -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곳 -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으로 마을의 자랑이 됨
	지속성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유지와 자립에 대한 걱정
역사적 특성	조직 내·외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외형이 변화하였으며 조합원들과 함께 자산화한 번듯한 건물이 생김

장소성의 속성 (properties)	장소성의 차원 (dimensions)	차원의 구체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고 지역의 변화를 기대함 - 위기의 시대에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내적으로 견고해짐 - 마을의 보호수처럼 지역에서 추억, 자긍심, 전통, 역사가 함께함
	세대간 갈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분위기, 문화가 변화함 - 세대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자원순환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남겨주고자함
	내 삶의 즐거움을 주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대가 맞는 사람들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함 - 가족 전체의 삶이 있는 현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함

1. 지역 내에서 관계맺음

연구에 참여한 주민은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현재 지역에서 살게 된 동기나 지역 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생활하는 지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얼마나 생활하였는지 질문하였으며 거주 지역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소개받았다. 특히 생활하는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1) 현재 지역에서 살게 된 동기

인터뷰 참여자들은 생애주기와 직장 상황에 맞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대부분 가족들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편리하거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

“20년 넘게 되고, 애가 이제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성장도 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 지역 이제 애들의 성장 과정에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5살까지는 좀 데리고 있었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할 때는 그 엄마들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새마을문고 거기에서 책을 빌리거나 하니까 그런 공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참여자 G)

“아파트가 아이들도 좀 싫어했었고 그런 환경을 좀 삭막하다든가 역지로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 삭막하더라고 근데, 〇〇시에서는 이제 저기서부터 아이를 대한 유치원에 보낸다거나 생협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지역 사람들과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막상 이제 〇〇시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는 아이가 과밀학급이었어요.” (참여자 H)

“20년 넘었죠. 저도 저 아까 임대 아파트라서 굳이 이사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만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장애가 있거나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거기에 계속 살 수가 없거든요.” (참여자 I)

결혼 초반에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과 타 지역에서 이전하게 될 때 주택 가격이 낮은 곳을 선택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기가 5개월짜리가 있었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집을 구하기 전에 들어온 상태라 그냥 친정에 딱 들어갔어요. 1동에 있는 친정에 근데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집 보러 멀리는 못 갔어요.” (참여자 K)

(2) 어떤 점으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나?

인터뷰에 참여한 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10년 이상 살아왔기에 다양한 경험을 해 왔다. 장기적으로 같은 지역에 살게 되는 요인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였다.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사는 동네, 아무도 모르는 타향살이가 아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지금 이곳이 좋아 떠나기 쉽지 않다.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피로감도 있겠쎬. 사람의 관계가 생기려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돼야 되잖아요.” (참여자 G)

“나는 거기서 이렇게 뭔가 내가 열심히 산다는 느낌을 가지고 관계를 다시 맺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 약간 두려운 게 벌써 있어요. 나이도 어리지만 그런 데도 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관계인 것 같아요.” (참여자 I)

“이렇게 보니까 (운동회를) 너무 재밌는 시골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후로 오게 됐고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다른지역은)경쟁도 치열하고, 모든 게 경쟁이거든요. 저는 아이 유치원도 그렇게 보내기는 했지만 그렇게 경쟁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도 경쟁하면서 살아왔는데 경쟁해서 살아와서 행복하냐고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해서,” (참여자 H)

“금천구 와서 그런 게 좋았고 일단 사람 사는 동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진짜 시골이거든요. 다들 얘기하면 광명에서 살지 왜 금천구 왔냐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금천구가 훨씬 더 저는, 사람 사는 동네 같아요. 주택가라서 또 주택가라서 우리 집에 누가 오는지를 옆집 사람들이 다 알아요.” (참여자 H)

그러나 도시개발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교통이나 거주시설이 더 편리한 지역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여 이주를 고민한다. 이러한 양가감정 사이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 다 그게 양가감정인데 굉장히 편안한테 굉장히 떠나고픈 마음도 같이 있어요. 그니까 지쳐온 마음이랑 편안한 마음이 같이 공존하더라고요 어떨 때 지금 떠나고 싶어 그랬다가 이만한 데가 어딴지 태양계 최고지 이러면서 두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참여자 N)

(3) 지역에 대한 소개

연구 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기 위해 지역에 대해 소개를 요청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표적인 건물을 떠올리기보다 서울에서 없을 것 같은 끈끈한 관계가 있는 곳임을 언급하였으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지원군을 떠올렸다. 자신의 지역에서는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신경 써 주며, 관심과 걱정을 나눠주는 곳이라 소개한다.

“사실은 마을을 지키는 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다가, 사실은 지금은 좀 더 그게 죽긴 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근데 2010년대만 해도 좀 더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가지고 이런 동네였거든요. (중략) 약간 사람 사는 동네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참여자 H)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하였다.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다는 것에 지역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는 것을 지역에 대한 소개에서 드러났다.

“진짜 좀 안전하게 이게 단지 안에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나한테 다 단지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서로 좀 서로 집에 진짜 밥 손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그 정도로 많이 친밀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진짜 맡길 수도 있고, 서로 부탁할 수도 있고” (참여자 M)

“언제 우리 집에 와도 괜찮고 우리 아이가 언제 거기를 가도 되요. 한 번 중에 응급실에 갈 때 작은 아이를 맡겨도 괜찮아. 당연히 전화해도 괜찮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있는 저는 정말 든든해 보이거든요.” (참여자 N)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로 인해 골목문화가 없어지고 분위기는 변화되고 있다고 느낀다. 거주 지역이 베드타운의 성격인 곳은 젊은시절 돈을 벌어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쉽게 옮기는 ‘점 찍고 가는 동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오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지금은 또 많이 변했죠. 왜냐하면 oo구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옛날에는 아파트도 별로 없었거든요. oo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아파트가 적은 동네였어요.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 아니고 재건축하면서 빌라로 다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참여자 H)

“동네 점 찍고 가는 동네라는 인식이 되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적 소득이 좀 약한 젊은 시절에 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애를 애가 낳으면 딱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약간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는. 그 전까지 여기 사는 동네. 점 찍고 가는 동네가 oo이라는 거죠.” (참여자 J)

(4)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결고리

인터뷰 참여 주민들은 소비자로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 자원활동가, 기부자, 주민-조직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특기활동이 필요하거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악기가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할 때 재능기부 활동을 도움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 조직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관계를 맺어 온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활동하고 공동육아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활동 같은 거, 특기 활동 같은 거 봐주시는 선생님들도 다,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뭐가 필요한데 하고 제가 그냥 뭘 사야 되겠다. 그거 어디 가면 있다고 알려주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회적 경제랑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삶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J)

“청문(청소년문화센터)이 딱 생기면서 이 주변이 되게 살기 좋은 곳 활발한 곳. 생활 문화가 좀 되는 곳 이렇게 된 거죠. (중략) 일단 도서관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제3의 공간. 집에서 나오면 그래도 마음 붙이고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됐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디 외출했는데 우리 아이가 딱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청문에 있어~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탁아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음 놓고 이제 아이한테 있어달라고 할 수 있는 곳.” (참여자 K)

우연한 기회 또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조합의 소모임을 통해서 지역 소속감을 느끼며 애착을 갖게 한다. 또한 소모임은 지역의 생협이나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관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친해지는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동네 모임이라든가, 소모임이라든가, 또 뭔가 이제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학교에 친환경 생리대 만들기 강의나 비누 만들기 강의나 이런 것들로 마을에서, (중략)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래도 이 동네가 사람 살 수 있는 동네라는 인식들을 조금 작은 힘이나마 좀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더라는 걸 2004년경에 일하면서부터 좀 이 동네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참여자 J)

“조합원 되면서 이곳에서 직장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조합원들도 만나면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조합원 생활하면서, oo구에 좀 약간 소속감이 생긴 거지 그전에는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중략) ooo 조합원 되면서 oo구에서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거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oo구 주민과 이렇게 약간 소속감이 생긴 거죠. 조합원 되면서.” (참여자 L)

2. 조직에서 참여 내용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이용 경험은 매우 다양하다. 장터로 활용하기도하고, 좋은 식자재로 반찬을 만들어 팔기도한다. 아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어르신들과 운동소모임을 만들어 우울감을 해소하는 활동을 한다. 청소년들의 마을참여 공간이 되기도 하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부, 판매의 활동을 하며 나눔, 순환, 새쓰임의 변화된 삶을 실천한다. 이러한 공간으로부터 나타나는 참여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탐색하였다. 일반 민간조직과 다른 점들을 이용자는 어떠한 시각으로 참여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 내용,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장소의 특징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이용 동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하게 된 동기부터 살펴보면 개인적인 생애주기에 맞춰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며 교육을 하는 과정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좀 더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의 사회적경제 조직 이용 동기는 육아로부터 시작한다.

“학부모모임이라는 단체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남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학부모모임 단체 시민단체를 같이 만들 때 만나게 된 거죠.” (참여자 G)

“그 유치원이 유치원 보낼 때 조건이 생협 활동하는 거랑 저 학원 안 보내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 (참여자 H)

“아이 키우면서나 그렇게 할 때 그런 물품들을 잠깐 잠깐 필요한 물품들인데 큰 돈 주고 사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아기 키우니까 그래서 그럴 때, 되살림 가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참여자 I)

“지인 소개로 친환경 변화에 대한 소개를 받고 아이 먹거리 때문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마을모임 참석하면서 좀 더 사람에 대한, 미래 관계가 쌓이는 그 물건에 대한 신뢰 플러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같이 맞물리니까 그 감정이, 애정도가 증폭하더라고요” (참여자 N)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할 때는 중요한 삶의 전환기를 거칠 때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게 된다.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아이를 위해 진입했다면 가치있는 삶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큰

변곡점이 된다.

“그냥 일반 직장 다닐 때,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데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 나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건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H)

“저는 이제 좀 의식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그런 매장이나 이런 걸 이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생활 자체를 이제 일회용 잘 안쓰고 먼 생리대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소비 자체를 그냥 친환경적으로 하고, 세탁기 잘 안 돌리고, 걸어 다니고,”(참여자 J)

“단순히 당신이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듯이 자연드림 매장에서 물건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한 거예요. (중략)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물건에 대한 신뢰감이 확 올라 가고 내가 그냥 마트 이용하는 거랑 좀 다른가 보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참여자 I)
뭔가 마음이 딱 동한 거죠. 그때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알아보다가 가입이 돼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가입을 했다가 이제 물품이 워낙 다양하니까, 어떤 물품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때 저희 동네 마을 모임이 있었어요.”(참여자 M)

거시적으로는 사회적경제를 이용하는 목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사회적경제 제품을 사용하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에 불편하더라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거 맞고 제가 보면 다. 그건 또 역으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돈을 조금 주기 때문에 동네 사람밖에 못 쓰는 거 아닌가. 또 나쁘게 말하면 왜 그러냐하면 돈도 조금 주는데 어디서 멀리 차 타고 한두 시간 오겠어요. 동네 가까운, 가까우니까 걸어와서 그냥 다녔다가 이렇게 가지 그 시간이 한두 시간, (중략) 홍보도 편해 내가 거기 다니잖아 우리 어디에 있어요. 막 이런 것들도 애기하기 쉽지요. 일 밀착형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고,”(참여자 G)

“(대기업에 쓴) 그 자본은 결국에는 제가 쓴 돈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일하시고 하니까 그런 관계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참여자 I)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저도 여기 다니면서 차츰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맞았고, 감사한 부분이지요.”(참여자 J)

(2) 개인적 차원의 경험

지역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소비활동을 위한 구매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때 활용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이제 생파가 됐든, 이제 자기들끼리 생파가 됐든, 이거 초기에는 이것저것도 많이 시도해보긴 했어요. 힘만 들고 돈도 안 됐어요.” (참여자 G)

“카페를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음료 먹고 했는데 거기 나중에 최근에는 빵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빵이나 쿠키 먹어보면 이 가격 대비 가격 대비 또 굉장히 알차고 실속 있고 맛도 있고 저희 가족들도 그래서 좋아해” (참여자 J)

“주민들이 수시로 와요. 여기” (참여자 J)

“동네 아줌마가 오기가 되게 어색했을 텐데 일단 도서관이 있으니까, 드나들기가 되게 쉬웠죠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자원 활동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참여자 K)

이러한 이용경험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 지역 내 소속감 그로부터 생활의 활력을 느낀다. 특히 활동가로서의 참여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으며, 조력을 통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언급한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조합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 가입을 이제 한다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건놓은. 그래서 맨날 저도 자랑하잖아요. 어디 가서 막 만장일치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와야 돼. 막 이제 이제 이제 또 약간 자랑스러운것도 있고, (중략) 소수 정예일 수도 있고 쥔 조합원만, 이제 약간 초기에는 좀 이렇게 의기 투합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싶어요.” (참여자 G)

“집에 찾아가서 놓고 이렇게 되는 거가 되니까. 여기 어쨌든 되게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 나이에 되게 새롭게 이 아파트에 사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여자 J)

“결국은 나를 위한 활동이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한 활동이기도 했지만 돌아봤더니 다 나를 위한 활동이더라 그거를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은 꼭 해야 한다. 결국은 막 지금 당장 약착같이 하는 게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한 활동들이 결국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활동이었다는 걸 굉장히 깨닫고 있죠 요즘은 너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참여자 J)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는 이제 공터가 생기기 전과 공터가 생긴 후에 내 삶이 되게 다르다. 공터가 생기기 전에는 동남아(동네남아도는아줌마)였지만..” (참여자 K)

“그분들도 굉장히 기회가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생각은 있으나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줍니다. 기회를 판에 깔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여기서는 뭐든 가능할 것 같아요.” (참여자 N)

(3) 조직적 차원의 경험

마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용하며 그간 일반 기업을 이용할 때 느낌과는 다

르다고 밝혔다. 비영리성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이 나지 않아도 끝까지 운영하는 가게를 보게 된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볼 때마다 안쓰러움을 느끼고 때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가 되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직감한다.

“약간 5천 원 내서 5천 원만큼을 주는 거예요.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그래서 엄청 이제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사실은 상시적인 판매 공간이나 사업체. 이제 사업. 운영체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중략) 그 공간을 엄청 활성화시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사실 했는데 그거는 돈 버는 구조가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계속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뿌렸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거기에 서는.” (참여자 G)

“굉장히 고맙고 좋은데 가면 막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답답하죠. 돈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들 거기 이제 활동가들도 다른 데서 돈 벌고 여기 와서는 이제 뭔가 이런 공간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활짝은 그래도 조금 더 자립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공간들은 다 너무 힘들어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H)

“그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 뭔지를 해봐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 거부하죠. 골치 아픈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 K)

“고정적으로 30명 정도는 하시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이제 활동이 많이 정체되어 가는 걸 제가 느껴요. (중략) 우리처럼 재미도 있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가들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마지막이라면 좀 그렇긴 한데 점점 많아지지 않겠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참여자 L)

특히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며 도저히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위기속에서도 또다른 탈출구를 발견하는 조직의 모습도 발견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만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타 조직과 결합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지속하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활동가로서 조직에 더 큰 활동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시너지 역할을 한다.

“왕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단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활동하는게 서로가 했던 게 보이잖아요. 저기는 저런 걸 하는구나 저기는 저런 걸 하는구나 하고 보고 계시다가 (중략) 라이터 유니온이랑, 배달을 맡아주시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지금 그제 협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은 한번은 라이브 유니온에서 한 번은 헬로 비전에서 그들이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N)

(4) 지역사회 차원의 경험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하며 겪은 것으로 실제로 조합원들의 문제나 지역 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정이나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나와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조직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자기의 자산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조합원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바로 연결을 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팠으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개인적인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협동조합의 다양한 인프라로 해결하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거죠.” (참여자 J)

“밥벌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 복지관 안에서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결국은 살아야 되는 곳은 복지관 밖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인턴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의 커피 가지고 이제 오감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참여자 K)

“밥을 못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저희 조합에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처음에 도시락을 싸서 그 집 앞에 문고리를 걸어두고 오는 활동을 3년 전? 올해 4년째 하고있어요.” (참여자 L)

“조합의 활동 공간을 위해서 출자금 사회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어쨌든 빛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는 임기가 2년이라서 물론 연임이 있지만 우리가 임기가 끝나면 다음 이사 활동하시면 이제 후배 활동가들에게 빛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참여자 L)

“저희는 마을 협동 금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입 조건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달에 지금 2만 원씩 내고 있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30만 원이 최대치예요 (중략) 30만원 빌릴 수 있다는 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좋고, 내 적금 통장을 깨지 않아서 좋고. 좋더라고요” (참여자 L)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며, 풀리지 않았던 지역문화 개선이 시작되어 그동안 받았던 불평등한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을 되찾았다고 밝힌다.

“동네 슈퍼에 다니고 집 앞에 슈퍼 다니고, 집 앞에 빵집 다니고 그렇게 관계 맺으면서 좀 한 번 더 아이 뛰어들었다. 지나가더라, 넘어진 것 같더라 괜찮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관계 맺음에 대해서 제가 아이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oo에 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참여자 I)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게 없는 거예요.” (참여자 I)

“학교하고 연계해서 수업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들어간 수업 같은 거죠. 교실 속 마을알기 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든든한 이웃이 이렇게 전체 폭지를 다 맡았어요.” (참여자 K)

“개네들(청소년)을 알게 되고 개네들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는 저런 특성을 보이는 게 맞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되고 다 이쁜 녀석들 이렇게 보게도 되고.” (참여자 K)

3. 경험에 대한 기억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역에서 이용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자리잡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에서 참여한 사회적경제 행사나 활동에 대한 부분, 그 경험이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 이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경험에 대한 기억은 조직에서 단순한 참여내용과 달리 삶을 변화시킨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개인별로 참여한 행사는 장터참여, 제품구매, 총회참여, 자원봉사 활동, 나눔활동, 기부활동 등 다양하나 참여한 행사나 활동으로부터 공간에 대한 기억은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한 행사나 활동으로부터 남은 기억,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차별화된 경험으로 요약된다.

1) 참여한 행사나 활동으로부터 남은 기억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부터 받은 공통적인 부분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속이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변함없는 제품과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고 특히 먹거리에 위대한 환경으로부터 차별되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다.

“의식을 가지고 자꾸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되살림 가게 이용하고, 아까 그 물품 중고물품 좀 사 오고 뭐 기부하고. 한살림 거 먹고, 생협 거 먹고 그러는 게 기여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저를 위한 게 더 컸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전히 저를 위해서였고, 지금도 기여한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쓰는 건 맞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참여자 I)

“좋은 재료로 만들고 마을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좋은 재료로 한약을 만든다고, 제가 조합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기 가면 어쨌든 멀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이용은 안 했어 초반부터 이용하지는 않았었어요” (참여자 J)

“여기가 막 튼튼 어린이 식품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생산해내는 식품들이 사실은 딱 보기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 또 이제 원산지를 속이지 않고 다 국산으로 쓰고 믿을 수 있는 뭐 조미료 쓰지 않고 그런 거를.(참여자 H)
 먹거리나 이런 게 사회적 경제 물품이 나오면 일단 아까 말한 거 맞아요. 약간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좀 차별된 느낌은 있어서 조금 더 대접받는 느낌도 사실 있긴 있어요.”(함께의 협이사)

주민의 입장에서 총회에 참석하거나 간단한 회의에 참석할 때 해당 조직에서 실천을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나의 역할로 실현되는 작은 변화를 볼 수 있어 참여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한두 가지를 봐도 약간 그런 거, 약간 장애인 기업이나. 그러니까 다 대기업 거 갖다 놓잖아요. 말로는, 사실 나는 실천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치하는 사람부터 혹은 우리 같은 활동가들조차도 되게 져어 있고 안 그러면 의지를 이렇게 이런 의지를 자꾸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가는 거예요. 편하게 가는 거죠.”(참여자 J)

“보통 표 하나로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게 거의 다잖아요. 그거 한 표 하나의 내 뜻을 심는 거에 그치지 않고, 뭐든, 캠페인 노력 캠페인 같은 거 참여 작지만 미미하지만 내 손이 붙었다. 내 의지가 표현이 됐더라고 하는 그 실현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참여자 N)

특히 공간 안에서 조직화를 하고, 연대를 이룰 때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체험을 하였다. 자발적인 주민조직화를 통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즉시 시도해 내고 있었다. 이것은 성취의 기쁨도 있지만 공동체의 힘, 연대의 힘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냥 민간에 이거 문제 있어 그래 그냥 마음만 모으면 바로 하게 되고, 우리가 딱 지르고 시작하니까 다른 이제 개인들도 그래. 하고 이제 또 모금이 바로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약간 그런 거 느꼈어요.”(참여자 G)

“댄스를 하고 싶어 그럼 조합에서 소모임으로 만들어보면 되지 될 필요해 그러면 어디 가면 뭐 시간당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약간 필요하면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장점인 거죠. 사회적 경제는 대안을 추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거를 세 명만 만들면 되잖아 모여 해서 3명이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좋으면 더 사람이 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재미있고 즐거워요.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그냥 만들면 되니까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참여자 J)

2)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다보면 무리한 사교육 환경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고, 플라스틱 등을 쓰지 않겠다는 신념을 외롭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편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의지할 수 있

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이 공간의 모임을 유지하게 된다.

“신념? 그걸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있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지 않고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많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H)

“나도 만약에 뭔가 우리 조직이 저렇게 하려면 일단은 oooo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업종이나 이런 거 이런 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게 조금 제가 흔들릴 때, 그래 함께걸음이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것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조금은 해볼 수 있겠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참여자 I)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하며 마을의 취약계층을 만나며 그들이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때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느낀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생각하고, 주거 취약주민에게 도시락 봉사를 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저희가 지역, 취약한 지역 취약한 사람들 만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집 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체보다는 뭔가 그분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집수리 하는 것도 있거든요” (참여자 H)

“장애인과 함께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1순위가 장애인 접근성이예요.(중략) 비용이 배로 들고 또 사전 답사를 항상 가야 돼요 그 근처에 갔을 때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가, 장애인이 들어갈 식당은 있는가, 기본적으로 어떤 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행사,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거는 행사 준비에 두세 배의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함께걸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해요.” (참여자 J)

“삶에 뭐가 중요한가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조직들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막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사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곳이 여기도 있고 또 몇 군데 있잖아요.” (참여자 H)

3) 차별된 경험

특히 주민들은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이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때 차별된 경험을 갖는다. 공간에서 진행되는 활동 참여를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갖게한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공간의 공공성을 높이는 의미와도 연결이 된다.

“생협의 어떤 소모임 같은 것들은 목적이 생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더 소비 더 많이 하고 약간 그런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를 뭔가 바꾸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사회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참여자 H)

“조합 활동하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하고 공익성을 좀 좋아하고 그런 기본 활동가의, 가만 보면 기본 신문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고 모여요. 근데 이게 단순한 숙적인 활동이 아닌 거예요. 조합 활동을 하면서 내가 되게 사회적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I)

“옛날에 처음에 내가 시작했던 그때 마음 같은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우리의 순수성 든든한 이웃이 찼자 우린 든든해. 그 누구에게나 든든한 이웃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퇴색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참여자 K)

4. 지역 내에서 상징성

사회적경제 조직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활동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용하는 장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분위기나 문화, 생활양식이 만들어진 것 같냐는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들의 응답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간은 공공성의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 지역의 자랑, 위기에서 빛을 내고, 안심과 위로를 주는 곳이라는 의미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1) 관계망을 넓혀주는 곳. 쉼터가 되는 곳

사회적경제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마을에서 가볍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느낀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도 마을의 이념, 상징,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랑방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랑방 역할은 지역에서 관계망을 넓혀주는 역할로 이어지며, 조직의 노력과 주민이 체감하는 부분이 함께 나타나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새로운 관계망들이 생겨지면서 마을 안에 좀 활기도 좀 넘치고 이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나, 코로 나로 오갈 데가 없다가, 이런 흐름을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생동감이 넘치고 이웃 간에 왕성한, 뭐라고 하나 왕래. 이런 것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였거든요.” (참여자 J)

“단지 안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망을 통해서 서로 건강하게, 그리고 누가 안 보이면 찾아가서 정말 잘 했는지 안부를 묻고, 내가 아프고 아주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만드는 그런 단지 정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 대비 훨씬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이

제 생각을 하고.” (참여자 J)

“사람이 그리운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그리고 쉽터? 그러니까 지나가시면서 이제 힘들어서 딱 쉬고 가실 수 있는 잠깐 앉았다가 그러면서 가방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야쿠르트 하나 꺼내서 먹어. 그랬던 분이 지금 기억나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든든한 쉽터였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참여자 K)

2) 공공성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역할

지역주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이용시설들이 폐쇄되고 필수적인 돌봄노동이 필요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체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사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성을 발휘했던 모습을 목격했을 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징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얼마 전에 코로나 19 응급 무엇인가 이렇게 반찬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제, 돌봄 어르신, 어르신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약간 그게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 복지 체계가 약간 무너진 어떤 기간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돌봄이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공공의 한계성이나 빈틈을 사실은 그런 활동을 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중략) 사실은 이런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그 사람들의 공공의 빈 틈 같은 것을 요소 요소에 채워줄 수 있기도 하는 거죠.” (참여자 G)

“지역에서 제가 소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웃들이 같이 있구나. 그러니까 문 닫고 떠나지 않고 내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 문 닫고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구나(중략)낯선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낯설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안심? 위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I)

3) 마을의 자량

실제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잘 읽고 있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마을의 변화를 기획하고, 액션을 하는 곳이라는 것,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기점이 되는 곳이라고 느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발전하여 마을의 자량이 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7단지를 어떤 할머니가 노원의 자량이야 그러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으신 거..(중략) 지금 특정 지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특정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무서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되게 이분들 대단하신데 막 이렇게 단어화시키고 정체성을 딱 정립을 해버리시니까.” (참여자 I)

“무슨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이제 그분들에게 그러면 혼자서 자립적으로 뭔가 해먹을 수 있는 어떤 작업을 기획해 보자라거나 여기를 떠올리는 거죠.” (참여자 H)

“주민들이 필요했으나 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걸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중략) 필요해 가지고 하셨던 그 경험을 여기 또 여기 주민분들한테 그대로 다시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I)

“영화제를 한다든가 oo프로그램을 해서 주민한테 개봉한다든지 약간 어쨌든 문화를 키워드로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아마 이제 이 집에서 고민할 거예요.” (참여자 L)

4) 지속성에 대한 우려

한편으로 지역에서의 상징성을 공감하며, 사회적경제 공간 유지와 자립에 대한 걱정도 나타난다. 지역에서 애정하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사회적가치를 지키며 운영되는 공간이 열악해 보인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까지도 확장되었다.

“이 보면 공간을 이용하면서 생각하셨던 그곳의 특징 이거는 사실은 여기도 그렇고 유사한 이 사회적 경제 이런 공간들 갖을 때 느끼는 점은 다들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 (참여자 H)

5. 역사적 특성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역에서 이용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민들은 변화를 느끼고 역사적 특성을 갖게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시간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지역에 자리잡는 방식에 대해 주민을 통해 탐색하였다.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갖는 역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민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적, 외적 변화를 감지하였고,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곳으로 느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에서 삶의 즐거움을 주는 곳이라는 특징을 밝혔다.

1) 조직 내·외적 변화

지역주민들은 지역내 오랜기간 지내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외형이 변함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10년 전과 달리 자산화를 통해 조합원들과 함께 매입한 건물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외부에서 열리던 장터가 작지만 안정적인 공간이 생기는 변화가 생겼다. 이

로서 자원 활동가로 조직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더 큰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과 많이 협의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약간 외형적인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참여자 G)

“그냥 장기적으로 뭐든 계획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이사 가지 않아도 되니까 내 집 이전에 대한 1부 끝 못해, 이게 아니니까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지속할 수 그니까 뭐든 나눔이든 뭐든 이런 거를 계속 여기서 계속할 수 있겠다. 안정감이 계속될 수 있을까” (참여자 N)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있기에 쉽게 무너지는 결정을 할 수 없기도 한다. 위기의 시대에 일반 소상공인과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은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내적으로도 견고해졌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쉽게 뽑을 수 없는 마을의 보호수처럼 지역 안에서 추억, 자긍심, 전통,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다.

“쉽게 여기는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문 닫자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익 안 난다고 해서 금방 문 닫고, 아니면 이렇게 개인 사기업처럼 하는 협동조합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이제 역사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구성원 자체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지역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뭔가 지역의 역할과 약간 의미가 있는 조직이랄까 사업체랄까 약간 그런 저는 자긍심이 좀 있어요.” (참여자 G)

2) 세대간 갈등 해소

지역주민들은 한 지역에서 오래 지내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해 지역의 분위기, 문화가 변화한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조직내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격려하는 모습은 마을구성원들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 세대간의 갈등이 해소와 연결된다. 또한 자원순환 등과 같은 활동으로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의 문화를 바꾸기도 한다.

“분위기 생활 양식, 이런 걸 통해서라도 내가 큰 건 못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약간 지구 환경에 기여한다.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I)

“주민들이 그 청소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봐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그게 청이 했던 역할인 것 같아요. (중략)사람들이 청소년들한테 참 친절해요. 그런 거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뭐 하니 물어봐줘요. 뭐 하니. 관심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간식 같은 거 사다 주고,” (참여자 K)

3) 내 삶의 즐거움을 주는 곳

돈을 지불하고 즐길거리를 찾는 요즘시대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감대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있도록 하는 곳이 되었다. 이로인해 나와 가족들의 삶 전체가 있는 현재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는 이유가 된다. 뿐만아니라 서울의 빠른 변화에도 지역의 빈틈을 메꿔주고 즐거움을 주는 곳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뭐야 중복적이잖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빈틈을 다 묶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서로 사업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생기다 보면 그런 조직들 안에서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H)

“저희 제 집이 있는 곳이고, 내 아이의 고향이고 내 아이 친구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쉽게 뜰 수 없는 곳이고 그런 거죠. 내 삶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 가능하다면 계속 여기 이 동네에서 살고 싶은.” (참여자 K).

“퇴근하고 퇴근 이후의 어떤 삶을 문화센터 말고, 지역에 있던 동네에서 내가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데서 뭔가 퇴근 이후에 어떤 풍성한 삶? 재미있는 삶 저는 사람 되게 노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L)

제4절 소결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필요’와 ‘사회적 조달’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사회연대경제’의 진정한 의미 역시 사회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연대하여 사회적 조달을 하는 활동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2020).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역성을 분석하는 과정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착근되면서(embedded) 지역 내 필요의 발견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달 활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역 단위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떤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타났을 때의 이유와 다를 수 있다 (Oldenburg 1999/2019).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차치하고서라도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으로 인해 확대되었다고 평가되는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의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즉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

(mechanism)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적경제가 정부의 지원과 같은 외부조건에 의존하거나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활용이라는 정책 논리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인 주체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성’이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생 및 유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특정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지역의 ‘장소성’이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장소성의 속성(properties)과 차원(dimensions)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적경제의 장소성을 정리하였다. 총 6개로 정리된 속성은 장소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내외부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 장소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자원, 장소를 통해 창출하고 있는 문화와 체험의 내용, 그 역사적 경로의 특징을 포함한다.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유형 등 여러 조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서 역할을 정체성 삼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을 위한 단순한 사업 장소의 기능을 넘어 지역, 나아가 이 시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이며 공적인 역할을 고민하며, 이러한 고민에 대한 실천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 공론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역 내 장소의 형성과 장소에 대한 애착, 장소에 대한 의존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는 곳에 ‘제3의 장소’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실상 지역에 오래 남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자산이 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 관점에서의 장소성의 속성은 총 5개로 정리되었으며, 18개의 장소성의 차원으로 요약되었다. 주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장소성은 지역내에서 관계를 맺고, 조직에서 참여한 내용에 따라 경험이 달라졌으며,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징성을 명명할 수 있으며, 역사적 특성이 있다고 밝힌다. 주민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활동하며 추억, 자긍심, 전통, 역사가 함께한다고 느끼며 마을의 보호수처럼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켜야한다고 의미를 나타낸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제2절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개념, 역사, 제도 및 정책 등과 같은 기존 담론 검토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요 분석적 접근인 생태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역 기반 특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분석이다. 지역마다 시공간적 특수성과 상황의 복합성이 있기에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들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지역성의 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기후 위기대응과 같은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지역 단위의 상황에 적합하게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경제 영역 외의 지역조직들과의 협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역사성 속에서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것에서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지역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장소성의 구현 양상에 대한 분석이다. 기능적 의미의 ‘공간’이라는 개념보다 인지도를 쌓으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탄생하는 ‘장소’라는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소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장소적 정체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이해관계자 및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장소적 공동체(place-based community)’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직이 지역의 플랫폼, 지역의 거점, 지역의 연결면, 지역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내재화한 것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할 때 지역 기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만들어내는 장소가 손님, 고객, 가까운 이웃을 위해 꾸며질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제3의 장소’의 될 수 있음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단순히 주어진(given) 조건으로 보거나 지역에 대한 개념을 행정단위로서의 지역으로만 제한해 본다면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맺는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지역성, 장소성과 같은 특성은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다.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맺는 관계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공적 역할이나 조직의 사회적 책임감과 같은 조직의 외부 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의 지역성은 조직 내부의 규칙, 사업 내용, 운영 장소의 활용 등과 같은

조직 운영의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지역에 착근된(embedded)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넘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어떤 환경(장소)을 구성해내는지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살기 좋은, 공동체적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유무형의 지역적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가능한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안에서 적절한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2장 1절에서 확인한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정책들은 입주공간 지원, 금융지원, 건물 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만 공간 및 재원의 한계 등으로 다양한 조직이 이러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만큼 가용한 여러 공간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은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 지역자원조사와 같이 지역의 특성, 활용 가능 자원 등을 조사하는 작업과 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고 조직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기회, 여러 조직과 단체, 주민들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가령 본문에서도 확인한 것과 같이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 연합 사례는 지역 내 사업체계 구축, 공론장 형성, 주민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성장해 온 지난 10년간 조직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였고 어떤 군집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시기별 조직의 주소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었던 만큼 실태조사, 패널조사 등을 통해 조직의 정보를 수집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조직의 위치 정보도 포함하여 조직의 공간 범위를 파악하고 정보를 축적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동(洞) 단위의 문제까지 접근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공동체 해체의 문제나 도시빈곤, 불평등과 같은 지역 문제와 사회적경제의 상관관계를 심화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강식, 심효섭(2011). 지역성이 살아있는 재미있는 도시(Fun City)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강원택 편(2016). 지방정치의 이해 1, 2. 서울: 박영사.
- 공석기, 임현진, 문명선, 유지연, 이은아, 이주연(2015). 지역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기획재정부 연구 용역과제 결과보고서, 1-100.
- 구양미(2016). 사회적경제와 지리적 사고. 김의영 편.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서울: 푸른길.
- 권성문, 김리영, 양광식(2016). 협동조합 활성화지역의 공간적 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2), 173-193.
- 기영화, 오영균, 이승중, 최영출(2018). 사회적 경제와 마을기업. 서울: 학지사.
- 김경희(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금환, 강영숙(2014).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특성 분석. 벤처창업연구, 9(1), 141-151.
- 김기태, 정지영, 한근진, 연제민, 조은지, 박유진(2019). 지역조사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분석연구. 경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서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김영정(2015).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163-199.
- 김영천(2006).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운영사례 질적연구: 운영유형별 핵심성공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2): 107-137.
- 김영철(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25-49.
- 김의영 외(2016). 동네 안의 시민경제: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사례. 서울: 푸른길.
- 김정원(2011). 지역자활센터,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자활Review, 2011-2, 1-16.
- 김제선, 금홍섭, 김태근, 홍석인(2013).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색. 국회의원 김기식 용역보고서, 1-59.
- 김종범(2016). 지방정치와 지역경제. 강원택 편. 지방정치의 이해 2. 서울: 박영사.
- 남춘모, 김세연(2021). 지역성에 따른 사회적자본의 구축과 동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연구지원사업 보고서. 경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81-271.
- 모종린(2017). 골목길 자본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는 어떻게 디자인되는가. 파주: 다산북스.

- 박승옥(2016).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재생. 신명호 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경기: 한울(한울아카데미).
- 박해광(2017). 마을 문화와 지역성의 동학. 차철욱 외. 마을연구와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 신명호(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36.
- 오단이, 원도연, 전예지(2017).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상과 고찰: 동작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3), 1-26.
- 오단이(2020).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진입에 관한 연구: 공공성, 진입장벽, 정책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NGO연구, 15(3), 305-341.
- 오단이(2021). 지역중심정책 시대의 사회적경제 역할과 과제. 장원봉 외. 한국 사회적 경제의 거듭남을 위하여: 장원봉 추모집. 서울: 착한책가게.
- 이가람(2019). 한국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의미: 사회적 가치의 의미 구성과 공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미, 정원오(2017).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유형 및 특성 연구-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사회복지정책, 44(1), 135-160.
- 이유리, 이명훈(2017).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분석: 성수동 소셜벤처 벨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2), 161-187.
- 이창남(2009). 글로벌 시대의 로컬리티 인문학: 개념과 과제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 (창간호), 75-106.
- 이해진(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혁신, 호혜, 협력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9(5), 77-111.
- 이흥택(2018).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에 관한 개념 틀: 호혜, 배려와 공공 정책.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3), 254-269.
- 임혁백, 김윤태, 김철주, 박찬웅, 고형면(200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한국형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모색. 좋은정책포럼 총서 1, 서울: 송정문화사.
- 장우진(2011). 지역성에 기반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 연계의 기대효과.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1), 129-146.
- 정현목(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 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
- 조명래(2013). 공간으로 사회읽기. 경기: 한울(한울아카데미).
- 조복현(2020). 지역공동체 경제와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 경제발전연구, 26(3), 33-66.
- 조항제(2006). 지역방송의 지역성 변화: 개념적 접근. 한국언론정보학회, 34, 275-305.

- 주성재, 노경란(2018).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경제지리학의 연구 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2), 173-191.
- 주운현, 김형수, 임형빈, 정원희, 최유진, 이동규(2021). 쉽게 쓴 행정학. 서울: 윤성사.
- 차철욱, 차윤정, 전은휘, 이동일, 양홍숙, 변광석, 박해광, 공윤경(2017). 마을연구와 로컬리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연구총서 22. 서울: 소명출판.
- 채종현, 최준규(2012).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195-225.
- 채종현(2015).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정책현황과 과제. 국토연구원 409, 특집: 사회적 경제와 지역활성화 2, 12-17.
- 최유진(2016).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 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20(3), 111-132.
- 하연섭(2016). 제도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한상일, 김경희(2013).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자산기반지역공동체발전 관점에서
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방행정연구, 27(3), 153-180.
- 한상일(2019). 지역공동체 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위한 대안의
모색. 서울: 집문당.
- 한선, 이오현(2012). 지역방송의 지역성 개념과 지역성 구현의 문제. 한국방송학보, 26(5),
271-306.
- 홍진주(2021). 서울 자치구 사회적경제생태계사업 10년의 회고와 과제. 2021 서울 자치구 사
회적경제 지원센터 연대회의 포럼: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과 나아갈 방향. 서
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서울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대회의.
- 관계부처합동(2021. 12.).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민·관이 함께 만
들어가는 상생의 경제.
- 국토교통부(2014. 12.).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국토연구원(2016).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국토정책 Brief(556),
1-8.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0).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투자지원재단(2014).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가치측정 연
구: 지역특화사업의 협력적 평가모델 구축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4).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성과보고회: 서울의
사회적경제, '봄, 바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어반스테이션(2019). 사회적경제 로컬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

범조사 연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비프로젝트(2020).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개발 및 측정연구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202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응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2020). 202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지역자원조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결과. 경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정책연구팀)(2021). 지자체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현황DB(21. 5월 말 기준). 경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min, A., Camerion, A. & Hudson, R. (2002). *Placing the Social Econom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oe, Neil M., Kelly, Philip F., & Yeung, Henry W. C. (2021). **현대 경제지리학 강의: 21세기 글로벌 공간 경제의 새로운 관점과 통찰** (안영진, 이종호, 이원호, 역). 서울: 푸른길. (2013).

Convery, I., Corsane, G. & Davis, P. (2012). Introduction: Making Sense of Place. In Convery, Ian, Corsane, Gerard and Davis, Peter (Eds.), *Making Sense of Plac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1-8). Suffolk: Boydell Press.

Defourny, J. & Nyssens, M.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ayter, R. & Patchell, J. (2020). **경제지리학: 제도주의적 접근** (남기범, 이종호, 서민철, 이용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6).

Massey, D. (1994). A Global Sense of Place. In Oakes, Timothy S. and Price, Patricia L. (Eds.), *The Cultural Geography Reader*. (pp. 257-26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elucci, A.(1997). The Symbolic Challenge of Contemporary Movements. In Steven M. Buechler & F. Kurt Cylke, Jr.(Eds.). *Social Movements: Perspectives and issues*. Mountain View: Mayfield.

Oldenburg, R. (2019). **제3의 장소: 작은 카페, 서점, 동네 술집까지 삶을 떠받치는 어울림의**

장소를 복원하기 (김보영, 역). 서울: 풀빛. (1999).

Strauss, Anselm L. & Corbin, Juliet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Yin, Robert K. (2017).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Sixth Edition.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부 록 1. 인터뷰 질문지 <<

[조직용]

〈사회적경제의 지역성 연구_인터뷰 질문지〉

*본 인터뷰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성(지역에서 어떠한 장소를 만들어내고 계신지)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계신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외부와의 관계 및 맥락: 장소를 에워싼 환경에 대한 설명과 관계 맺음]

- Q. 현재 선생님이 소속해계신 조직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그 지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Q. 그 지역에서 활동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 Q. 그 지역에 위치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 Q. 선생님이 소속해계신 조직은 지역(사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Q. 그 관계를 맺는 데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Q. 조직의 활동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부 구성과 배열: 장소를 구성하는 시설, 활동, 사람 등의 흐름]

- Q.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Q. (각)공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뤄지나요?
- Q.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요?

[법·제도: 장소의 지위, 용도, 활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과 제도]

- Q. 공간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활용하신 정책(법, 제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Q. 활용하셨던 정책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Q. 정책을 활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 Q. 그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지역사회로의 영향 확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셨나요?
- Q. 정책에 따라 조직의 공간 운영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규칙은 무엇이었나요?
- Q. 이런 정책들이 기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나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경감시켜주었나요?

[이념, 상징, 정체성: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념, 상징, 정체성]

- Q.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 Q. 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역에 어떤 문화(생활방식)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험과 기억: 장소를 점유 또는 이용자가 장소에 대해 가진 체험과 기억]

- Q. 지역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체험과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 Q. 만약 지역에 조직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변화와 역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해온 혹은 변할 장소, 장소의 역사성]

- Q. 시간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지켜보실 수 있었다면, 그동안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직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Q. 향후 지역의 변화를 전망함에 따른 조직의 대응 계획이 있으신가요?
- Q. 조직이 지역에서 갖는 역사적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용]

〈사회적경제의 지역성 연구_인터뷰 질문지(주민/이용자/조합원)〉

[지역과의 관계 맺음]

- Q. 주로 생활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이신가요?
- Q. 그 지역에 어떻게 오게 되셨으며, 얼마나 생활하셨나요?
- Q. 그 지역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Q. 지역과 사회적경제(조직)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Q.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용/참여 내용]

- Q. 주로 어떤 공간(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Q. 함께 이용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 Q. 공간(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생각하셨던 그곳(조직 혹은 장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Q.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나누셨던 그곳(조직 혹은 장소)의 특징이 있으신가요?

[경험에 대한 기억]

- Q. 지역에서 참여해보신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나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 Q. 그 경험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 Q. 그 경험이 선생님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Q. 만약 지역에 사회적경제(조직)가 없었다면 그런 경험들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 내 상징성/정체성]

- Q. 이 장소(혹은 조직)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분위기(문화, 생활양식)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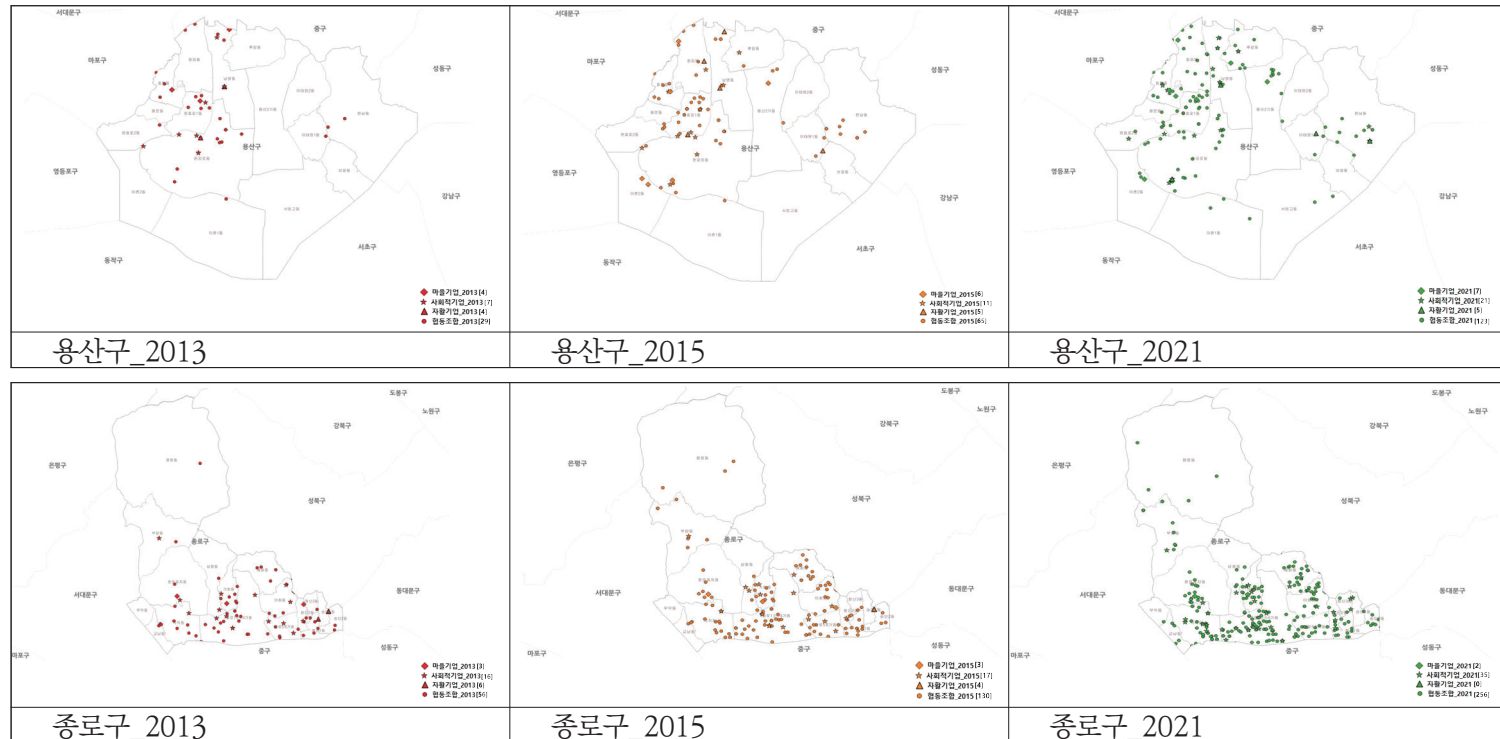
[역사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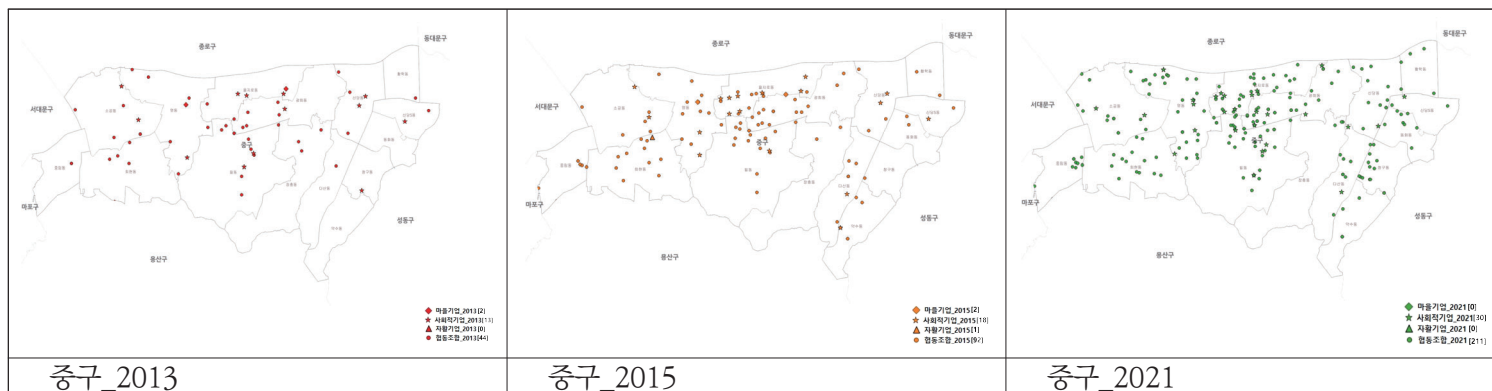
- Q. 시간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지켜보실 수 있었다면, 그동안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Q. 사회적경제(조직)는 지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오며 지역에 자리 잡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Q. 사회적경제(조직)가 지역에서 갖는 역사적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 록 2. GIS 지도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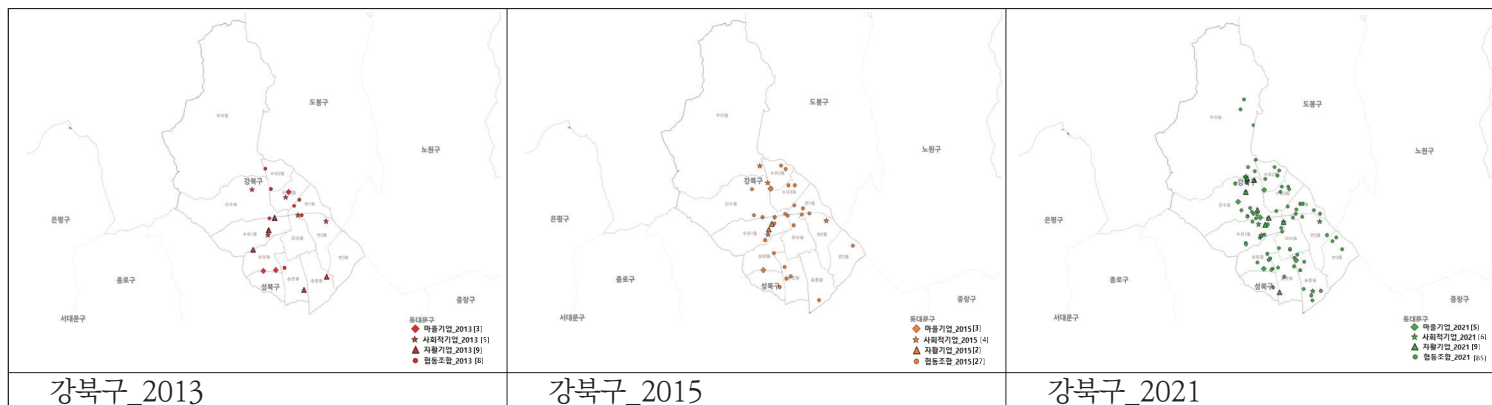
1. 시점별 사회적경제 조직 개수

[도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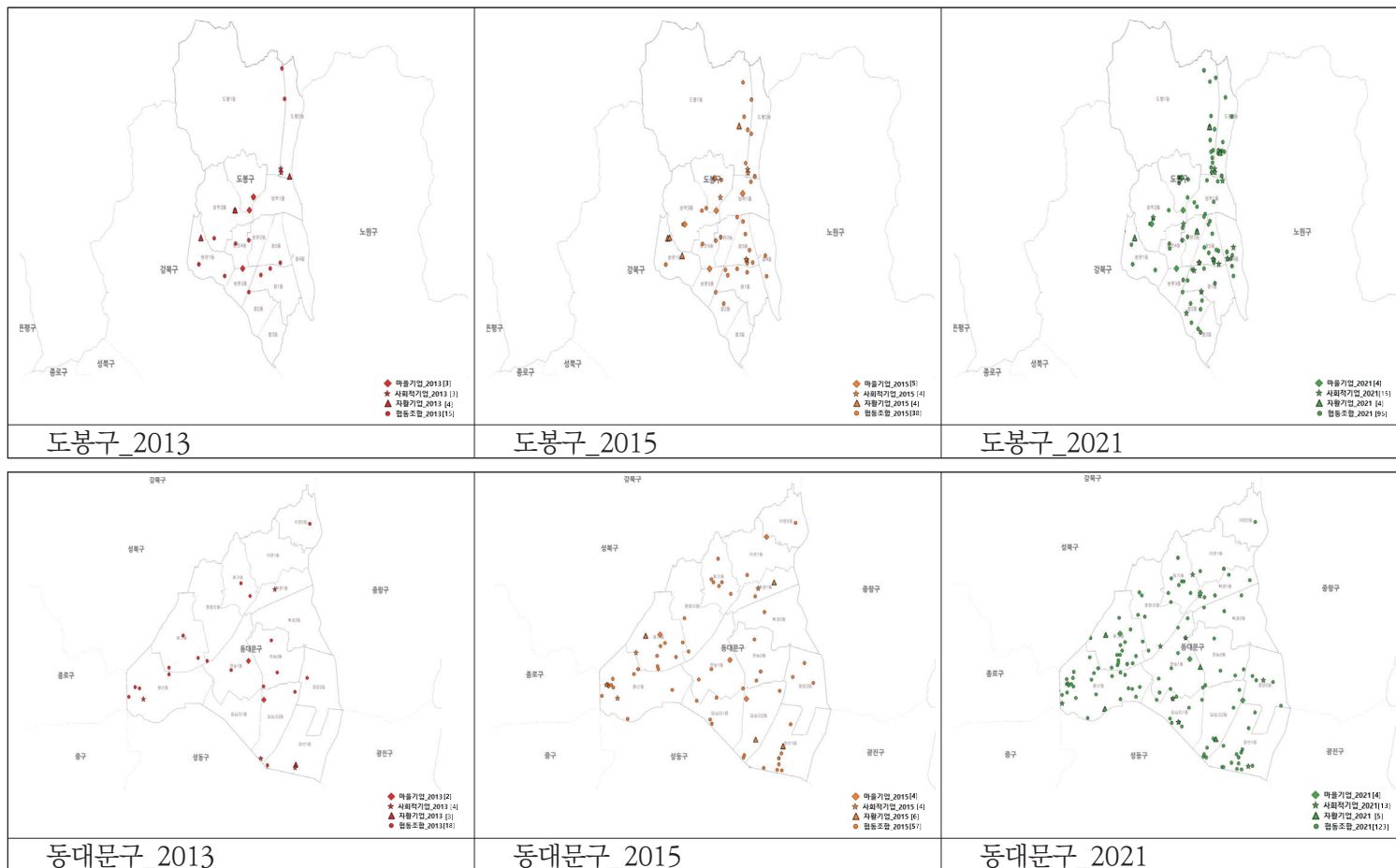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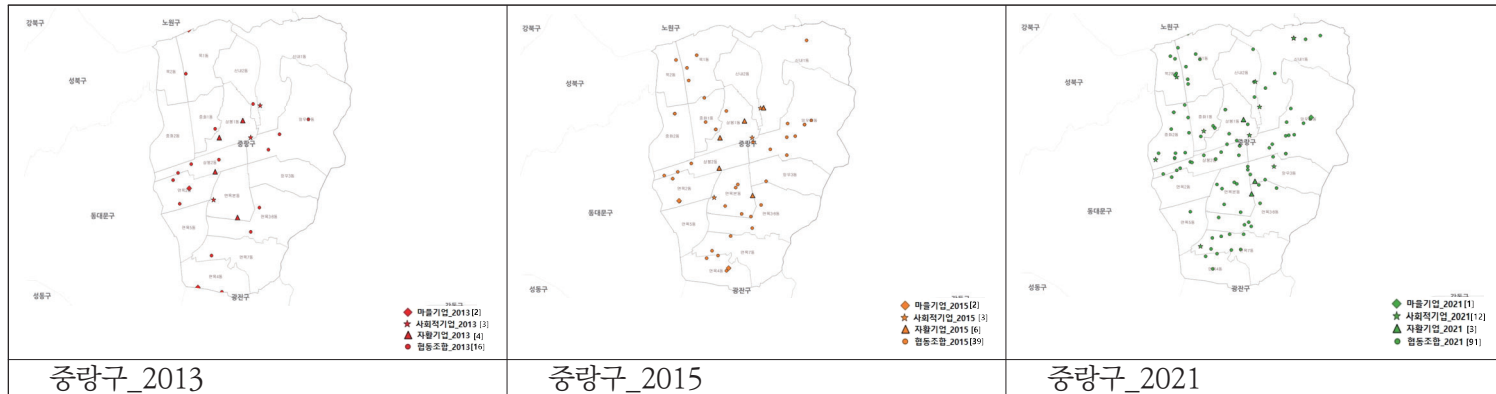
[동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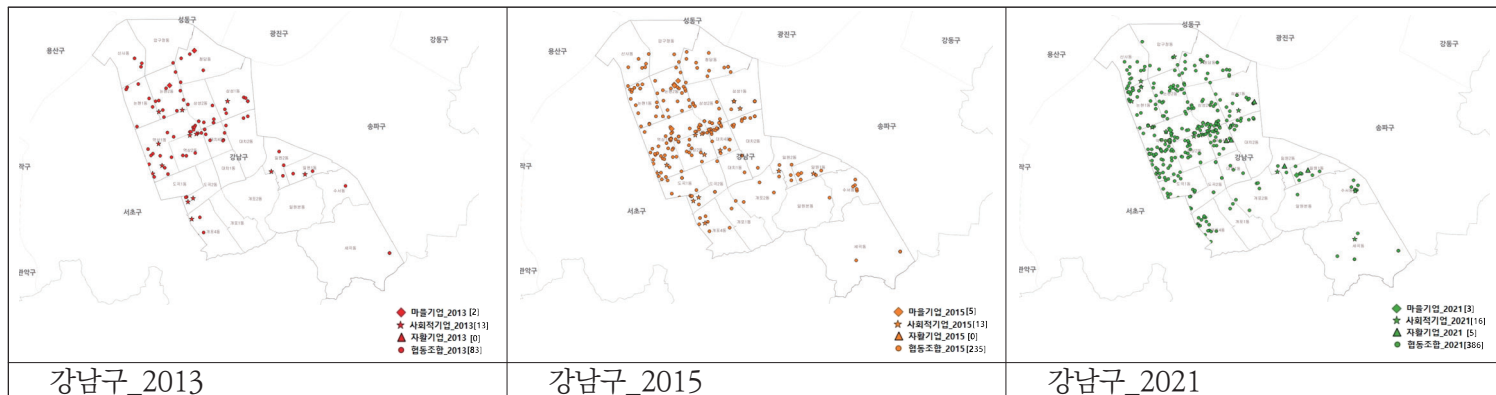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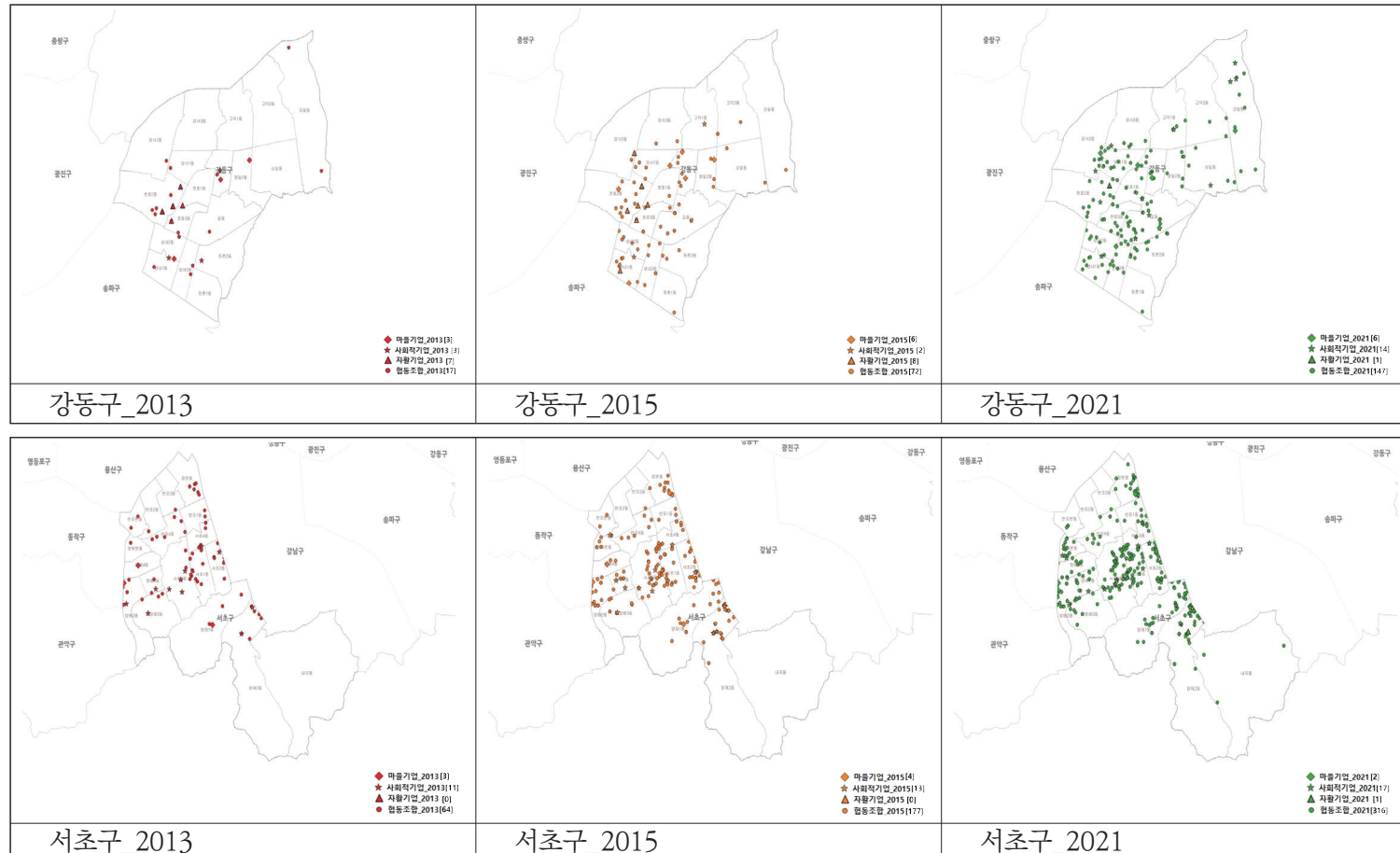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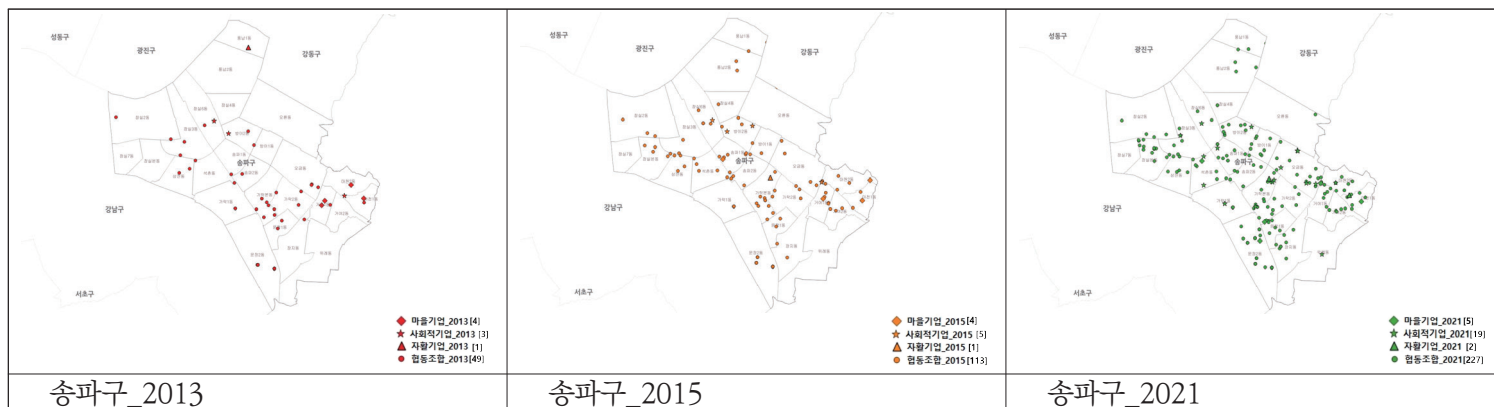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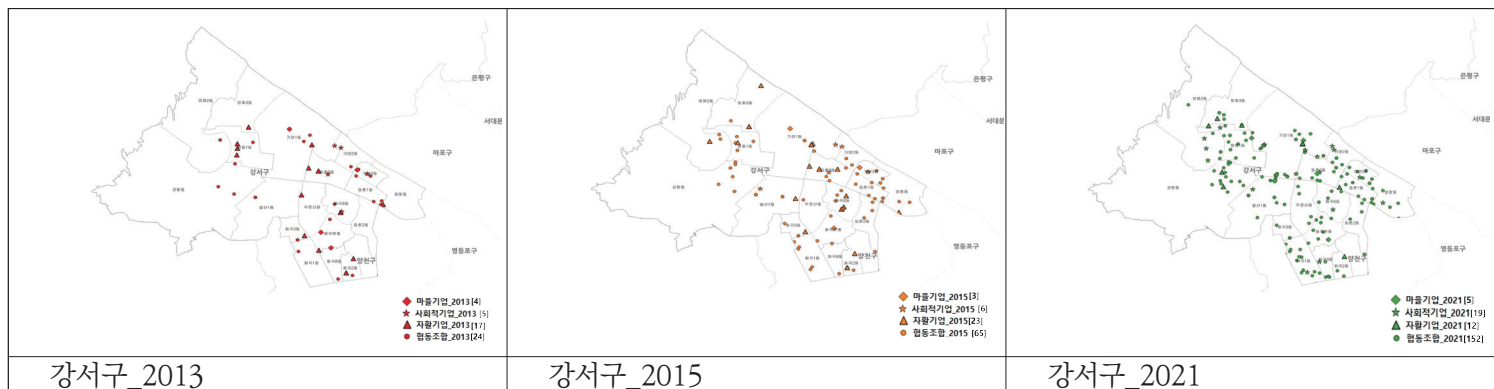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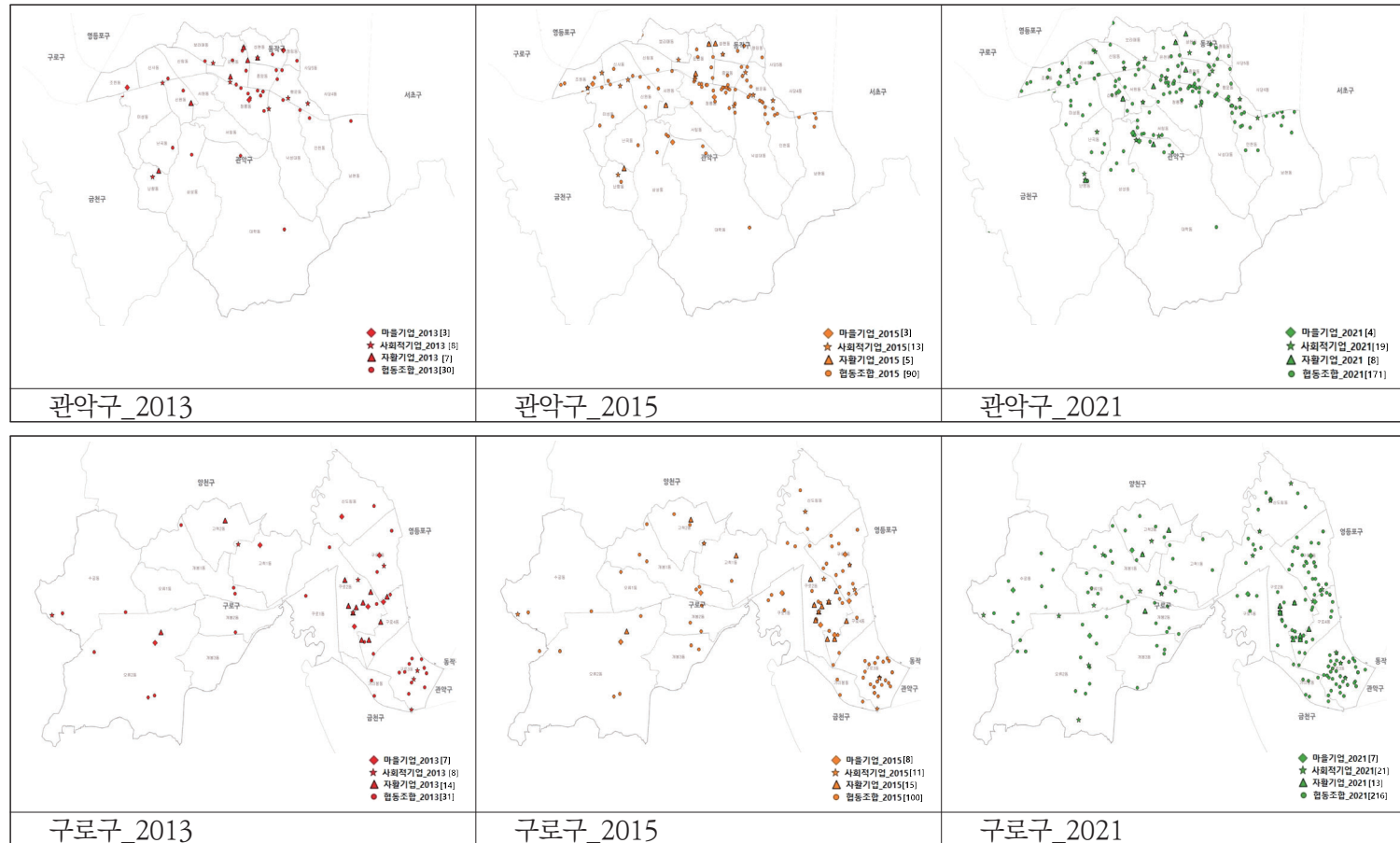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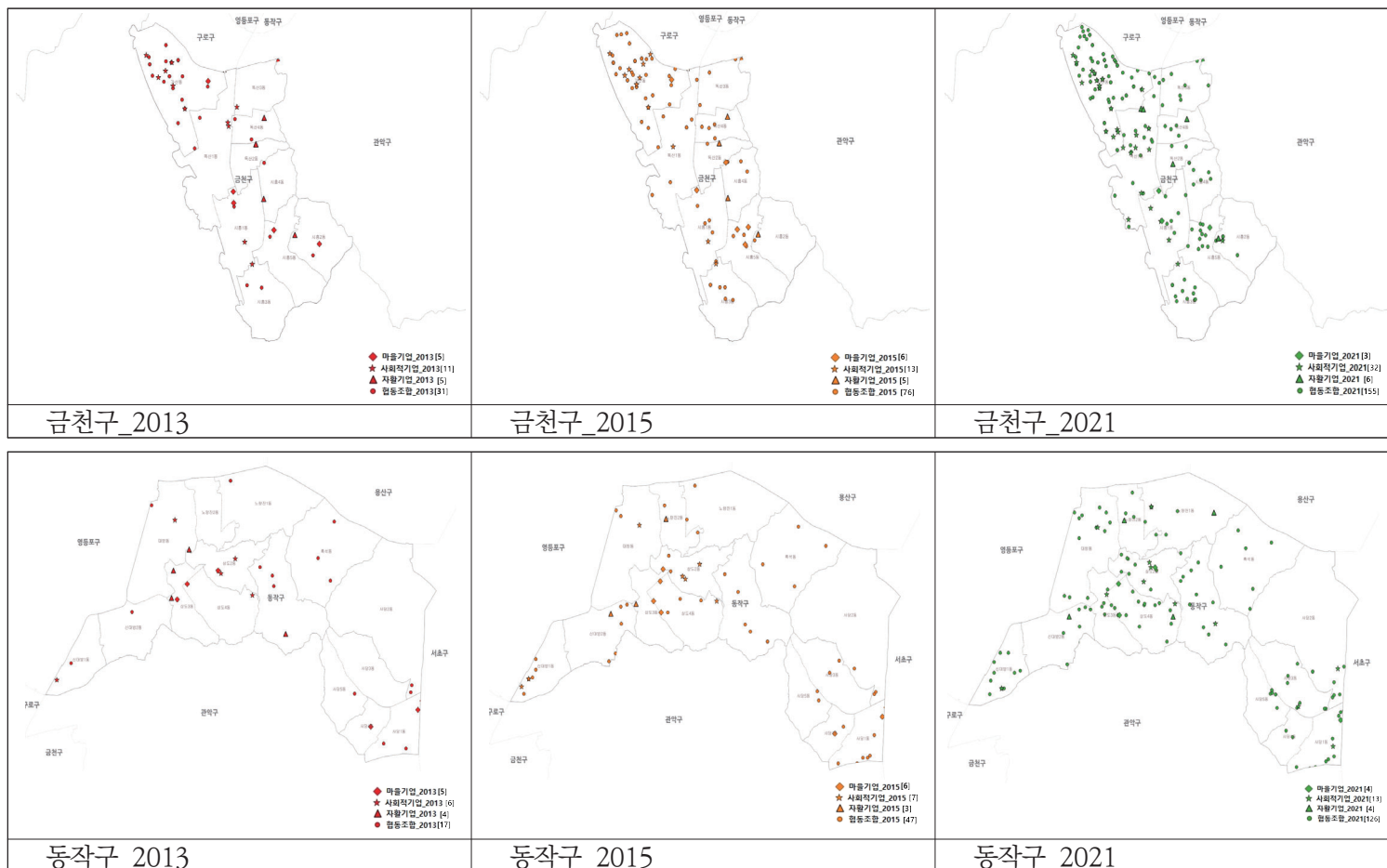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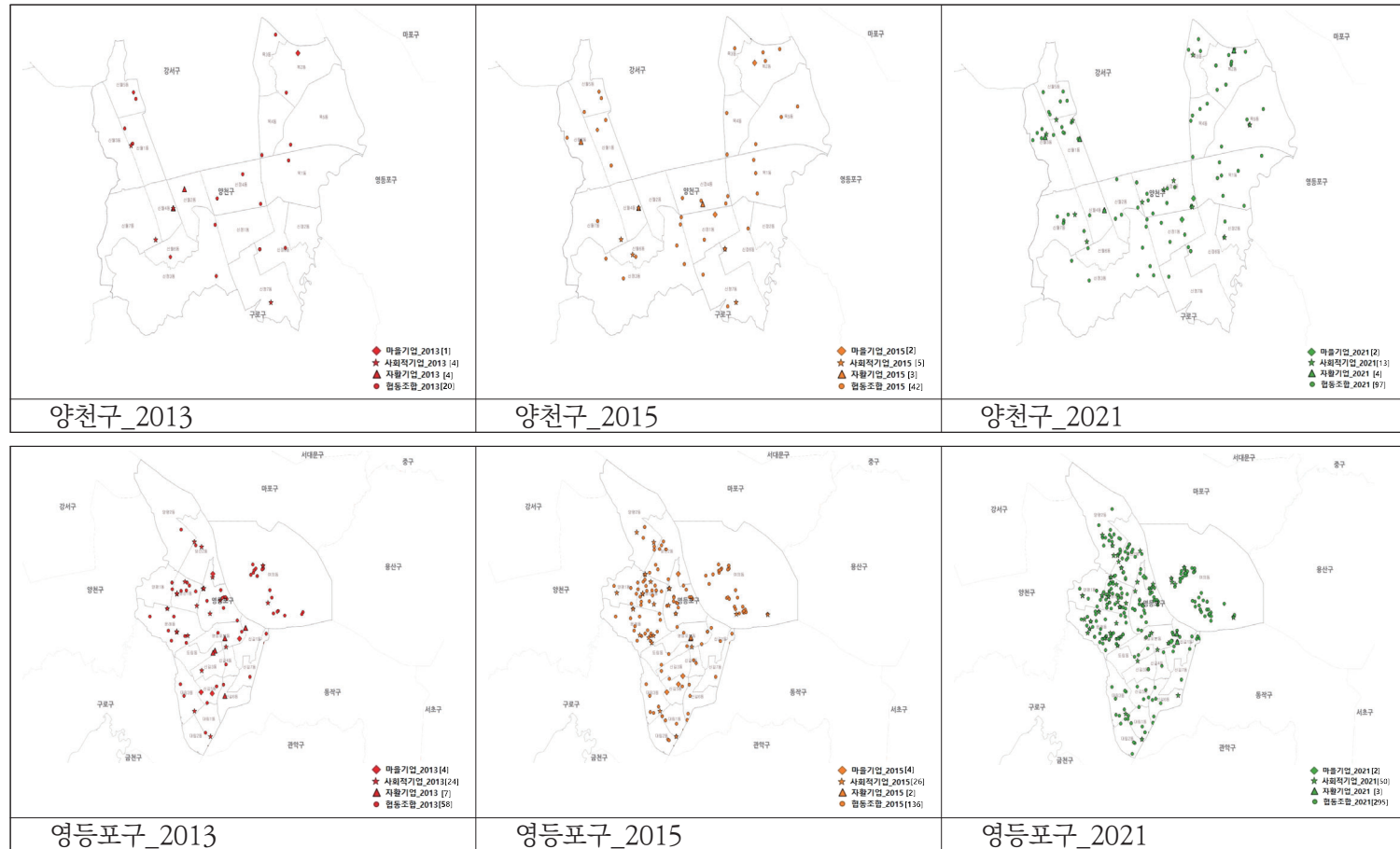


[서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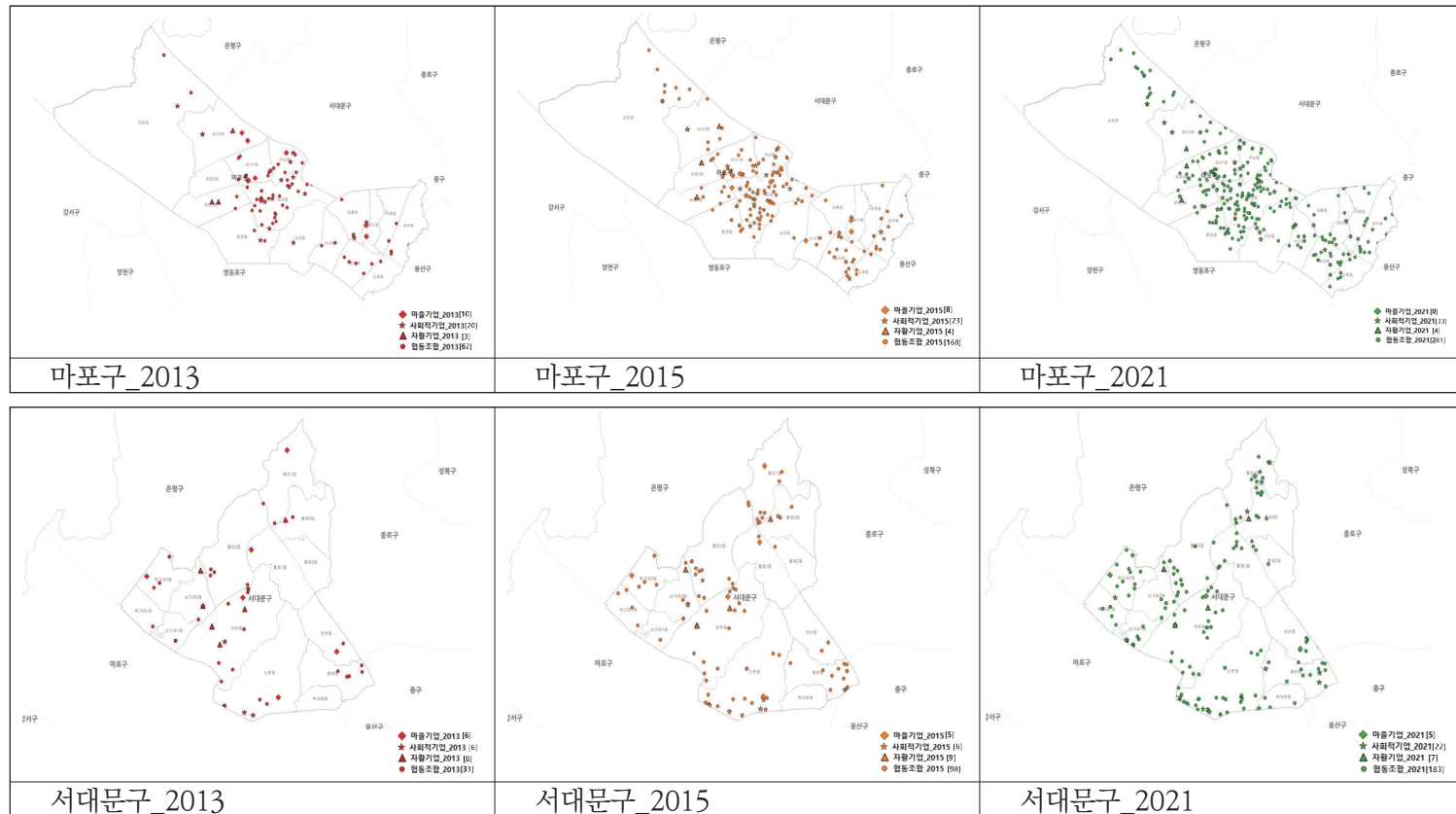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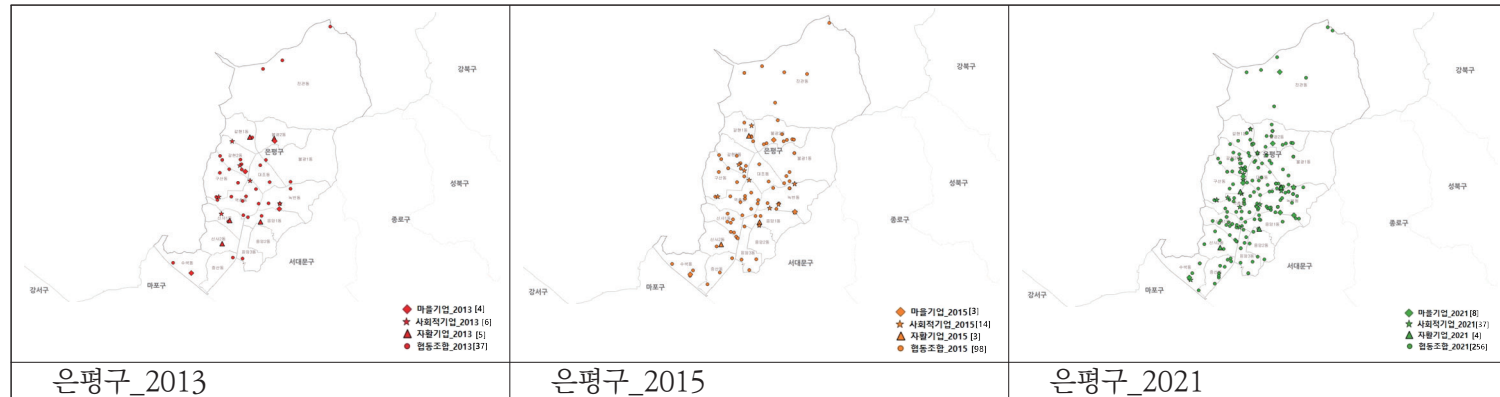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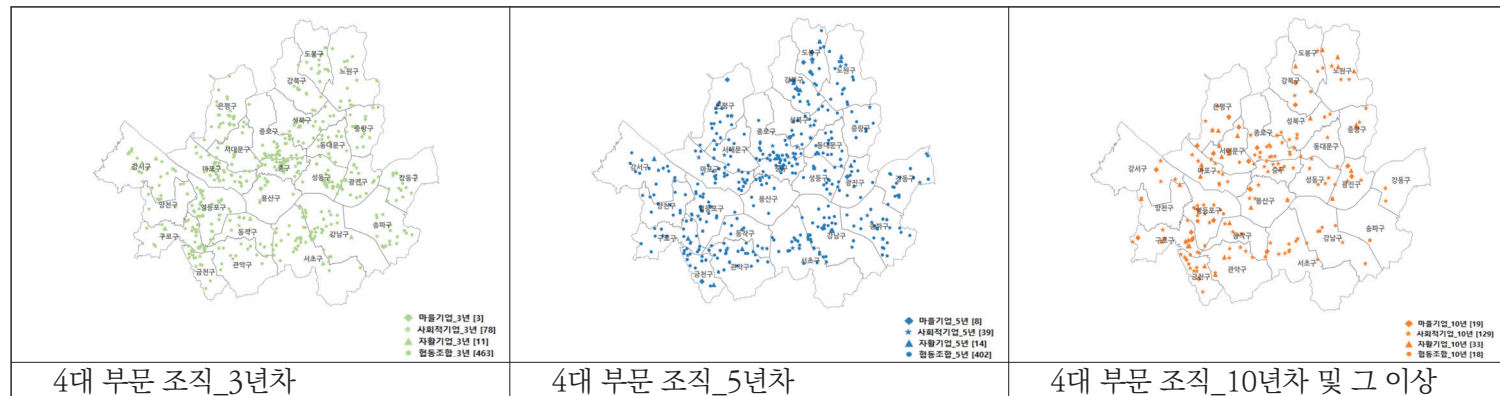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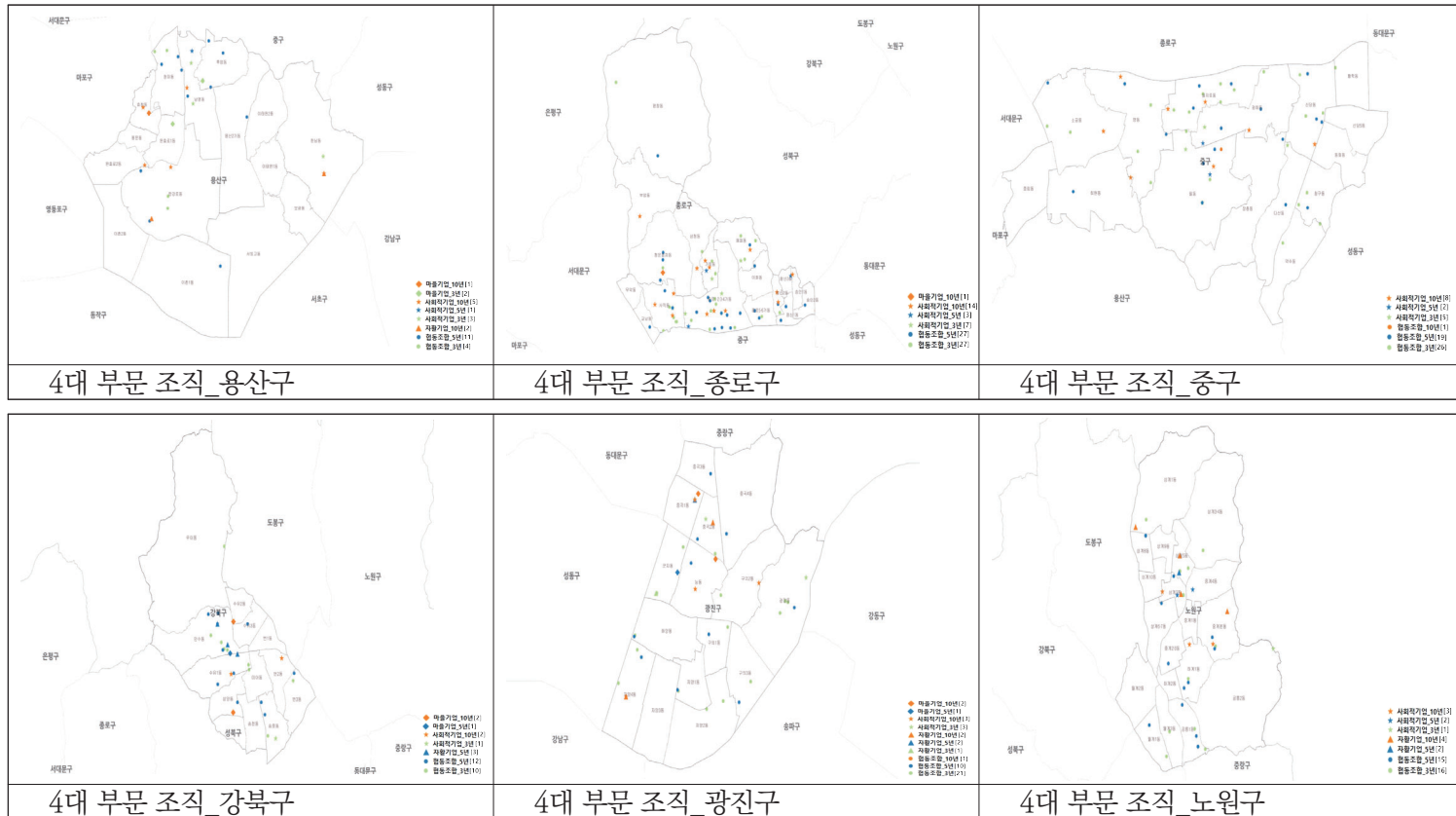
[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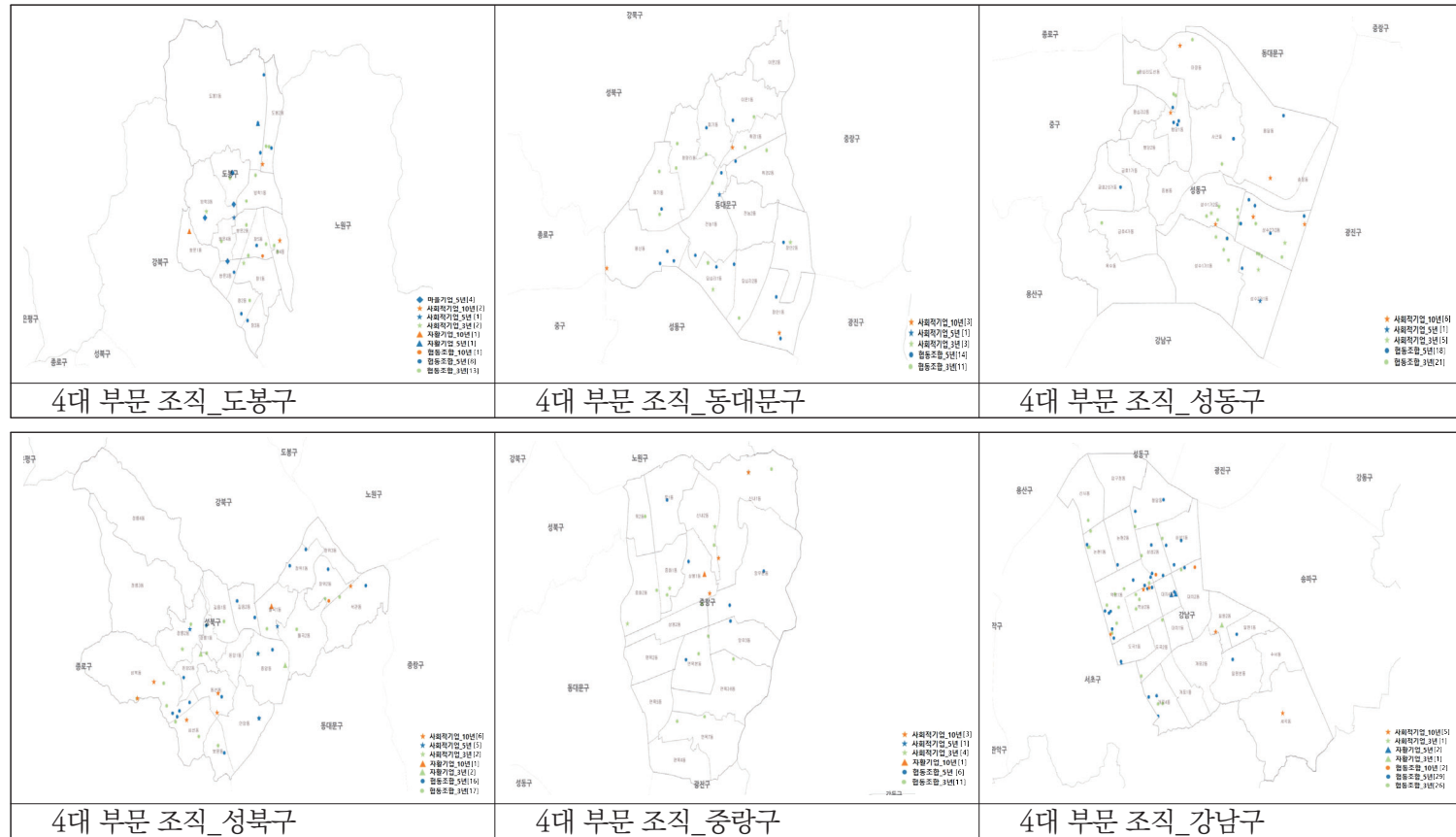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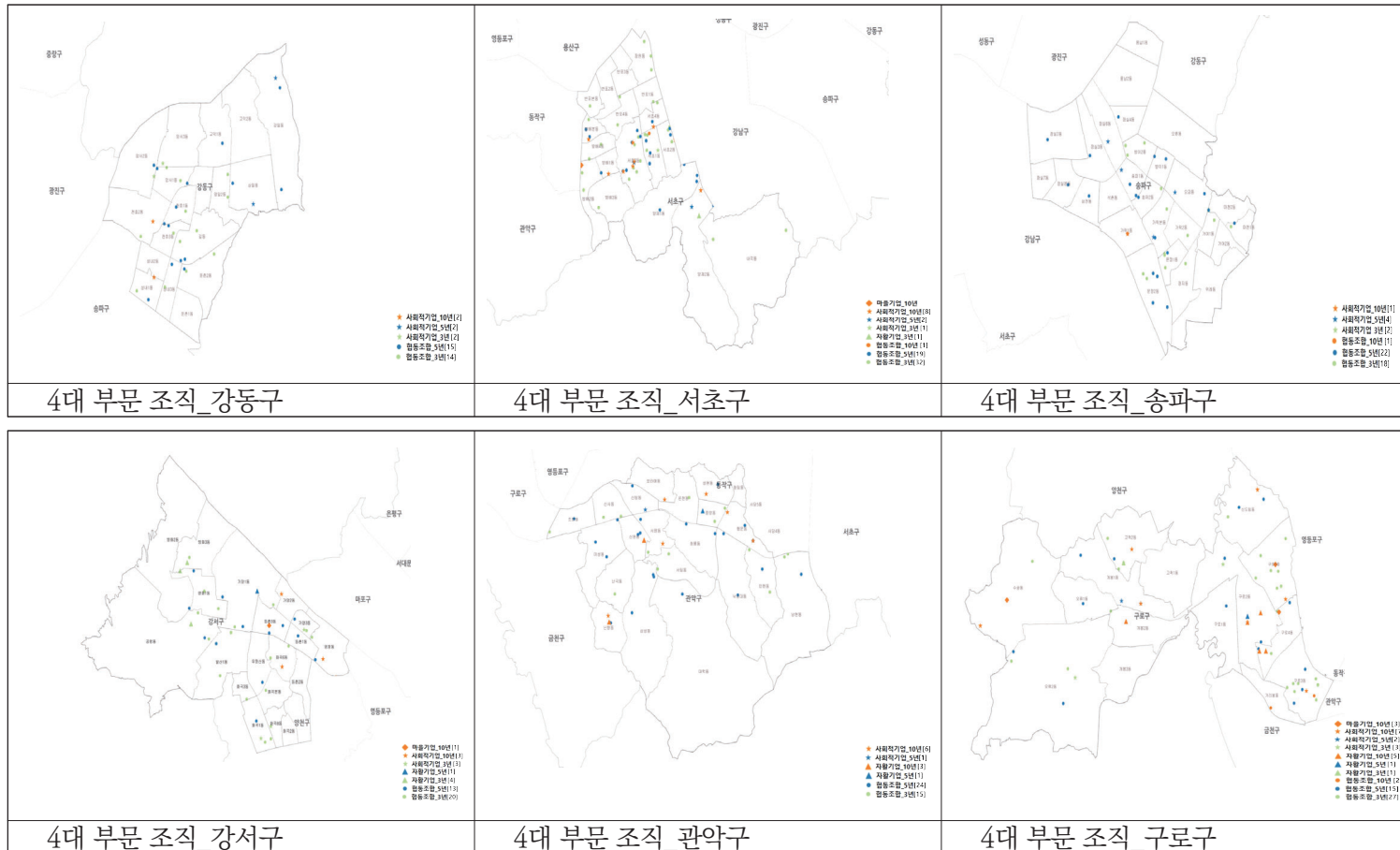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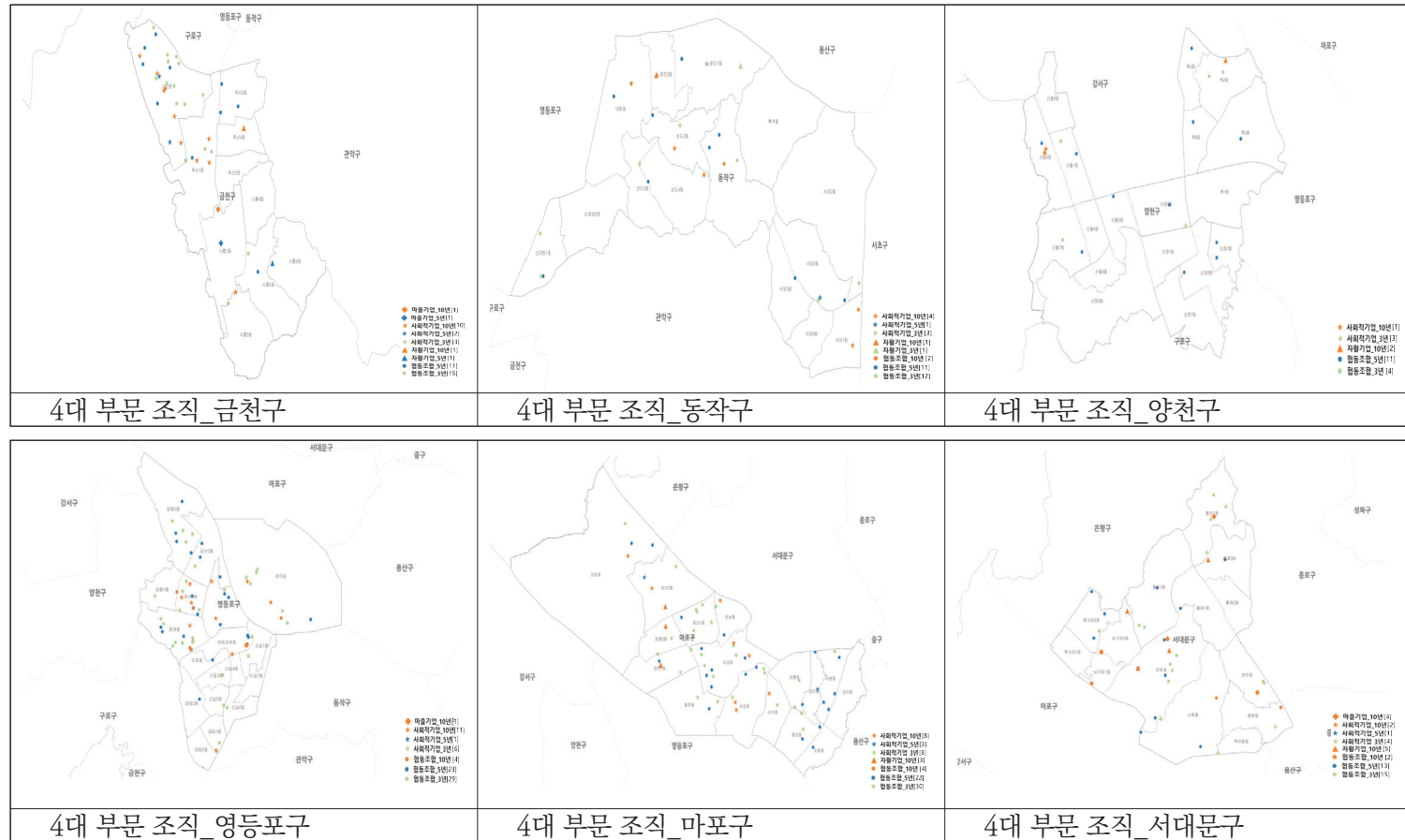
2. 연차별(2021 기준) 사회적경제 조직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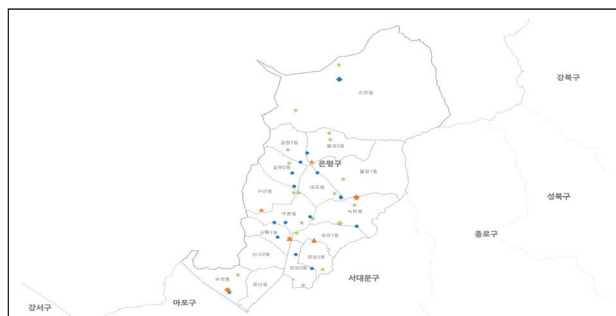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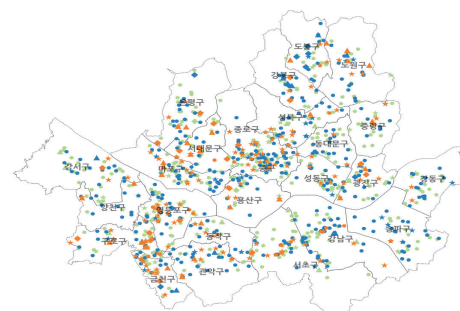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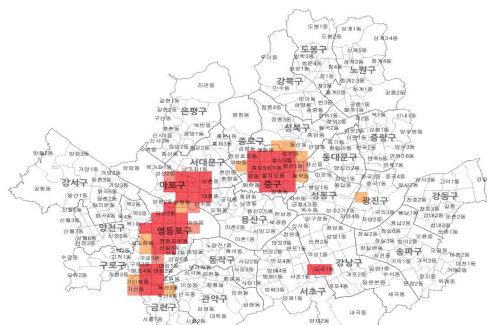


4대 부문 조직_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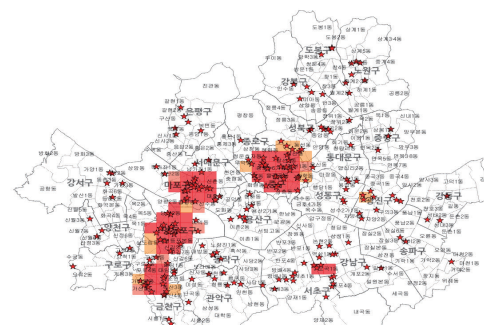


4대 부문 조직 운영기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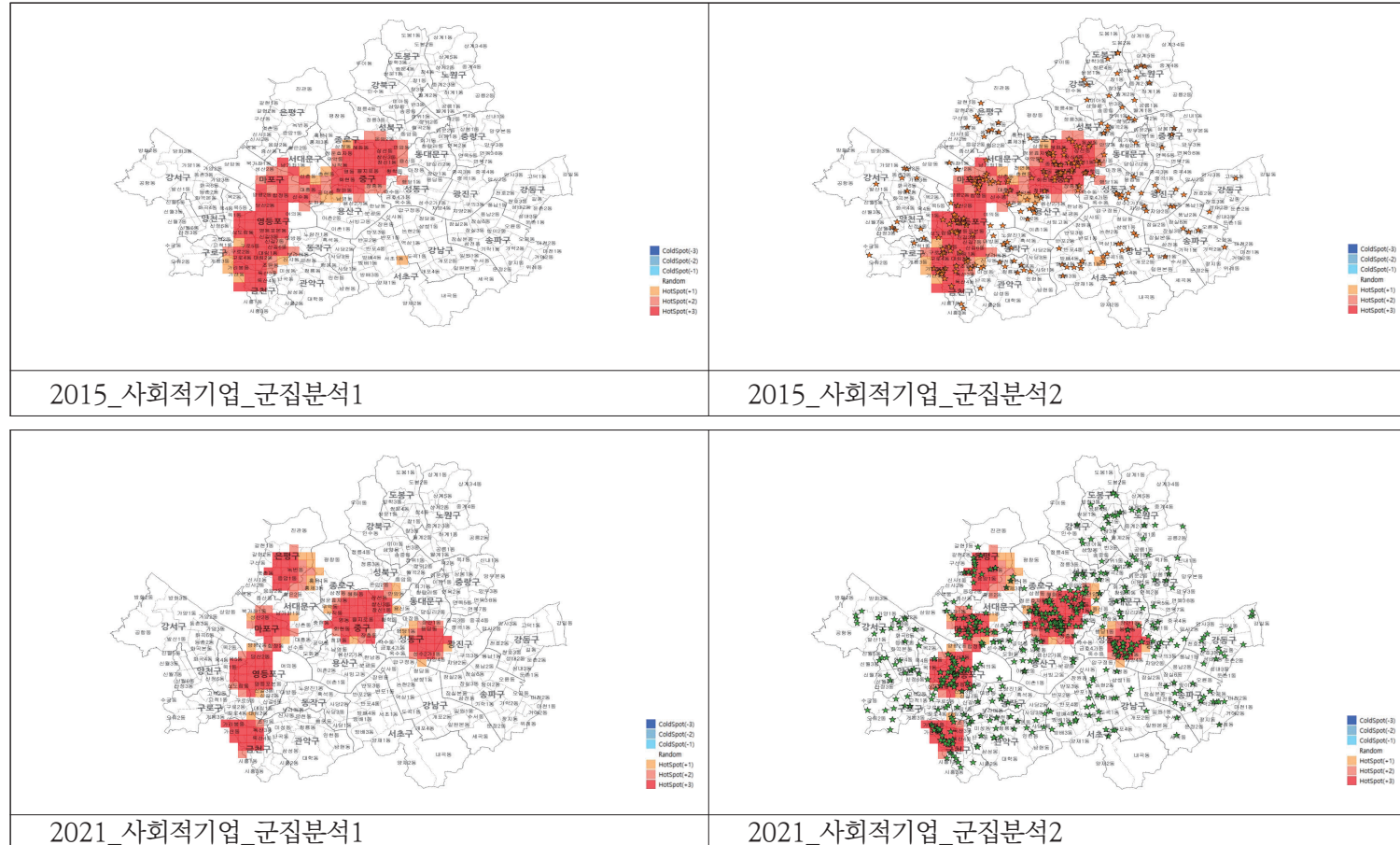
3. 조직유형별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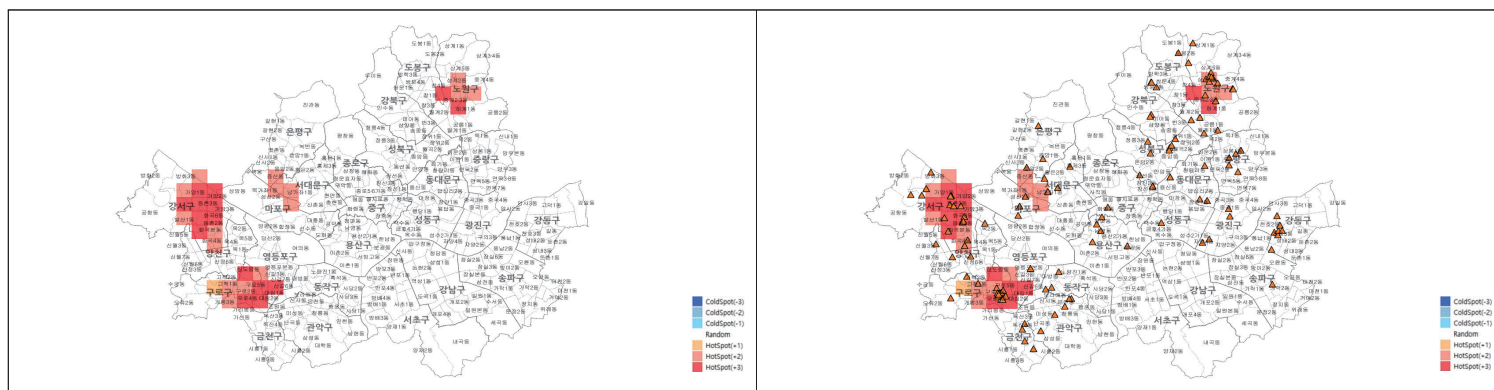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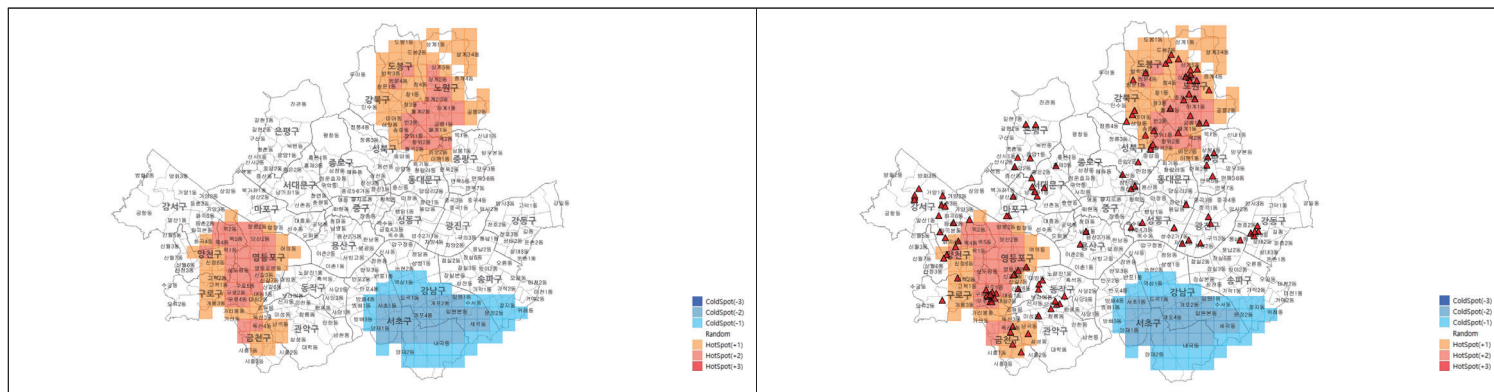


2013_사회적기업_군집분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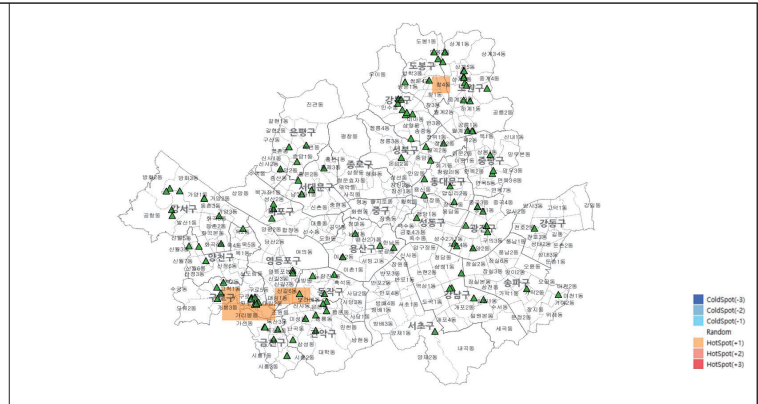
2013_사회적기업_군집분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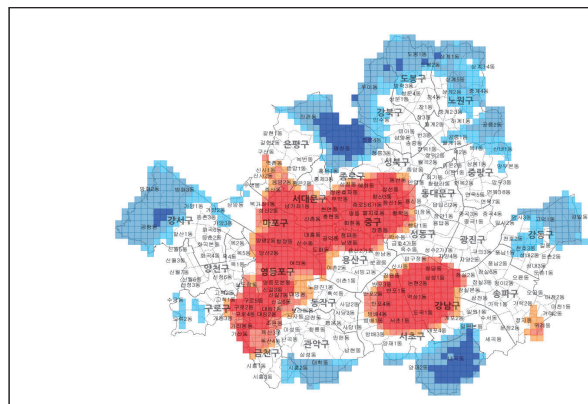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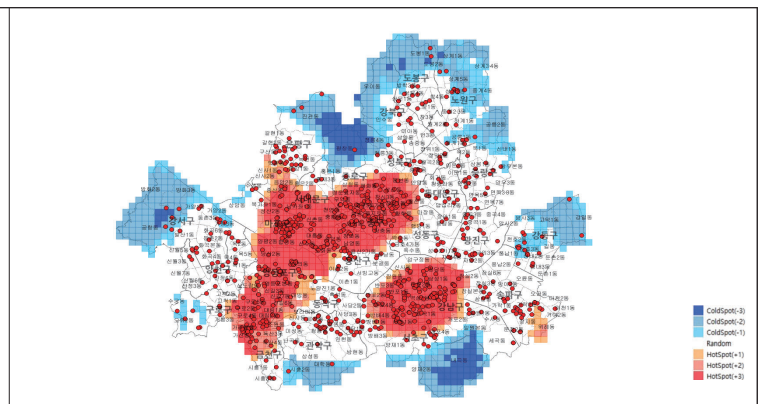
2021_자활기업_군집분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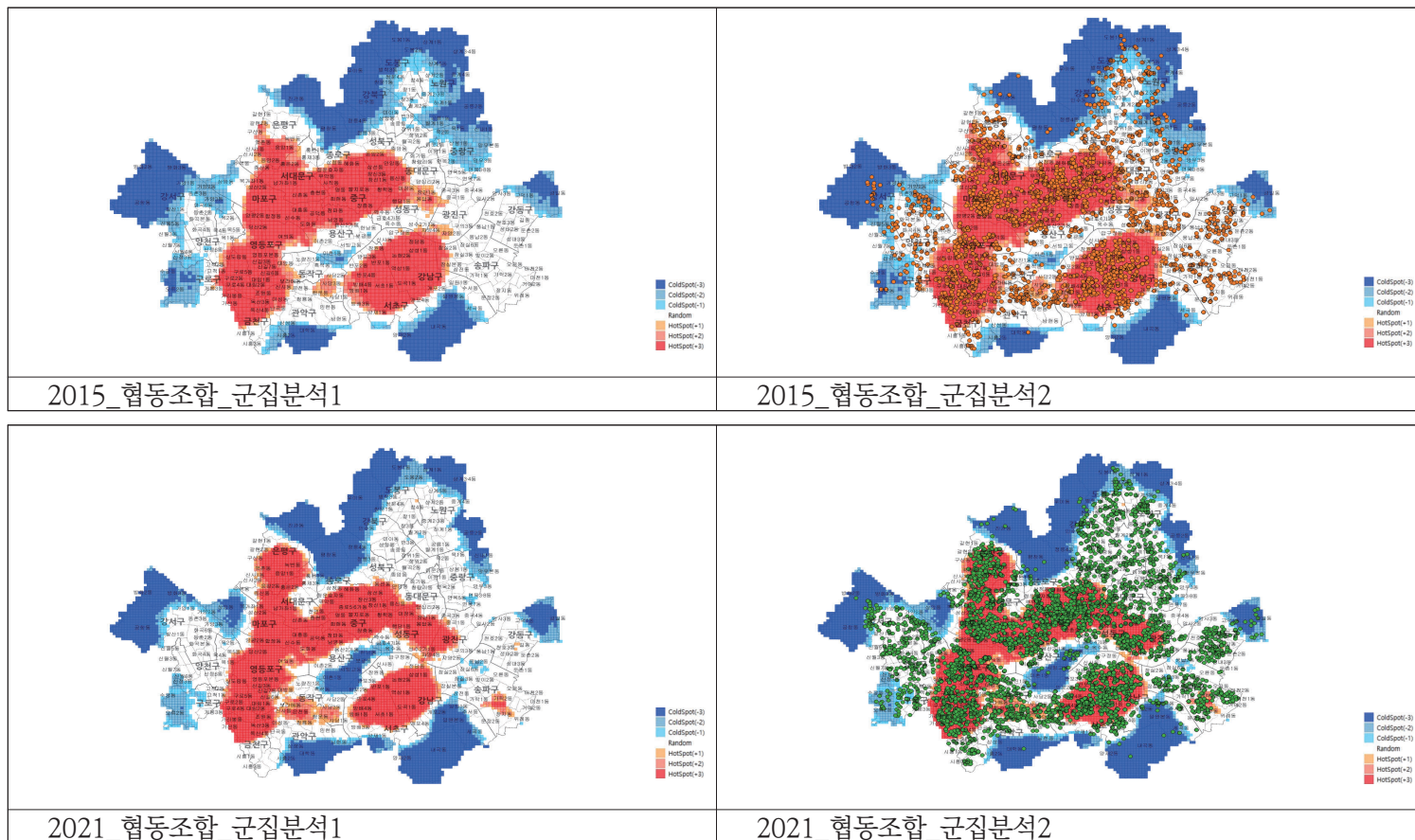
2021_자활기업_군집분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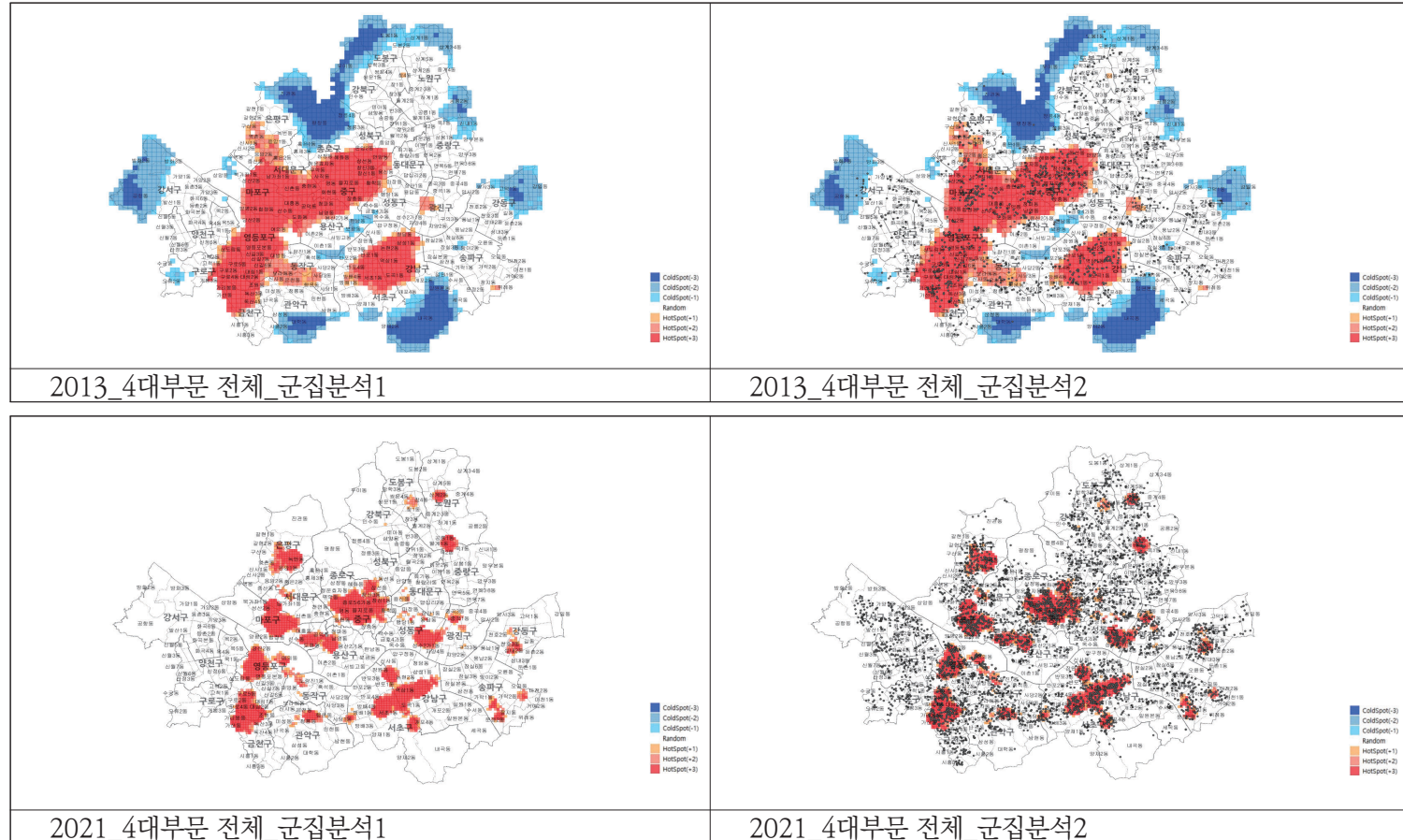


2013_협동조합_군집분석1



2013_협동조합_군집분석2





사회적경제의 지역성 탐색 연구

발 행 일	2021년 12월 27일
발 행 인	조 주 연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전 화	82-(0)2-353-3553
팩 스	82-(0)2-383-3553
이 메 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www.sehub.net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연구진들의 의견으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